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13-0120

The Good Edu-Partner
참 좋은 교육파트너, 인천교육청

현장이 공감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2013 인천교육발전토론회

-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

» **특강 :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주제 발표**

- 주제발표 1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과제
- 주제발표 2 :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안
- 사례발표 1 : 부평동중학교 운영 사례
- 사례발표 2 : 영종중학교 운영 사례

» **지정 토론**

주제 1 자유학기제의 수업 운영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1 :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 지정토론 2 : 나를 찾는 과정 - 수업

주제 2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운영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3 : "자유학기제"운영의 과제
- 지정토론 4 : 학부모가 바라본 '자유학기제' - 그 우려와 기대를 말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3 인천교육발전토론회 세부 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담당자	비 고
1부	13:30~14:00 (30분)	● 등록 정부3.0동영상 시청	서종수 주무관 외 3명	○ 등록부 ○ 명찰
	14:00~14:10 (10분)	● 개회(국민의례) ● 주요 참석자 소개 ● 교육감 인사 말씀	김영일 사무관 사회	2층 대연회실
	14:10~15:00 (50분)	●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 박사	
	15:00~15:10	● 휴식(10분)		
2부	15:10~16:30 (80분)	● 주제 발표 (20분씩 발표) - 주제발표 1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과제 - 주제발표 2 :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안 - 사례발표 1 : 부평동중학교 운영 사례 - 사례발표 2 : 영종중학교 운영 사례	사회 오헌주 주제발표자1,2 시교육청 최영선장학사 서창중 유명선 부장 사례발표자1,2 표혜영 교감 염인식 교감	
	16:30~16:40	● 휴식(10분)		○ 토론책자 준비 ○ 논의자료 ○ 팀별명패
3부	16:40~17:30 (50분)	좌장 : 경인교대 권난주 교수 ● 지정토론 (10분씩 발표) - 주제1 : 자유학기제의 수업 운영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1, 2 단국대 박삼철 교수 화도진중 온혜현 교사 - 주제2 :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운영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3, 4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배은주 박사 부원여중 학부모 이상연 운영위원장	좌장 사회	
	17:30~18:00 (30분)	● 자유토론 - 청중의견 및 종합토론		
	18:00~20:00 (2시간)	● 만찬-친교의 시간	담당 장학사	3층 식당
	20:00	● 폐회	담당 장학사	

CONTENTS

01 특강 :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09

02 주제 발표 33

– 주제발표 1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과제
– 주제발표 2 :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안
– 사례발표 1 : 부평동중학교 운영 사례
– 사례발표 2 : 영종중학교 운영 사례

03 지정토론 105

주제 1 자유학기제의 수업 운영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1 :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 지정토론 2 : 나를 찾는 과정 – 수업

주제 2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운영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3 : "자유학기제" 운영의 과제
– 지정토론 4 : 학부모가 바라본 '자유학기제' – 그 우려와 기대를 말하다

운영계획

현장이 공감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2013 인천 교육발전 토론회 운영 계획

- 효율적인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 -

Ⅰ 목 적

가. 정책토론으로 현장 지원 및 발전적 협력 방안 모색
나. 국정과제인 행복학교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프로그램 논의의 필요성
라. 자유학기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 개발된 정책자문위원회 인천교육 발전 의제에 대한 실천력 제고

Ⅱ 방 침

가.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토론회 효용성 확보
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 유도
다. 자유학기제 토론 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의 변화에 대한 생산적 담론 형성 계기 제공
라. 분과 운영 내실화와 전문성 심화를 위한 의제 설계 및 실천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위상 정립
마. 2012 인천교육 발전의제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바. 연수 참가자 직무연수 4시간 부여로 연수 내실화

Ⅲ 일반 계획

가. 일시 : 2013. 10. 29(화) 14:00(※13:40 등록)

나. 장소 : **인천 하버파크 호텔(중구 항동 소재, 인천일보 옆)**

다. 참석 대상 : 170명 내외

토론 좌장, 강사 및 토론자 : 9명

각 지원청 교육국장 및 업무담당 부서 : 18명

본청 및 사업소 자유학기제 실무지원단 14명

각 지원청 장학사, 교감, 교사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총49명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 : 53명(자문단20명+실무단33명)

학부모(행복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등 기타 참여 희망자 27명

라. 토론회 운영 및 결과 평가환류 계획

인천교육발전 토론회 자료집 발간 배부

2013 행복교육 학교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자료집 배부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북 자료 제작하여 교육정책 홈페이지 탑재, 전자문서 게시공문 안내

1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특 강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김 진 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서 론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이다. 이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복지 확충,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의 3대 교육정책의 축 중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에 속한다(곽병선, 2013). 자유학기제는 교육부 내에 신설된 ‘공교육진흥과’가 주무 부서가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2013년 5월 28일 교육부 보도자료, www.moe.go.kr, 이하 5·28 보도자료). 자유학기제 도입 일정은 <표 I-1>과 같다.

<표 I-1> 자유학기제 도입 일정

연구학교 운영 (’13. 9월~’15년 말)		희망학교 운영 (’14년 초~’15년 말)		제도확정 및 전면실시 (’16년~)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 (’13) 1학년 2학기 등 42교 (’14) 2학년 1학기 등 40교	➜	·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	➜	· (’15. 6월) 자유학기제 실시계획 확정·발표 · (’15. 7~’16. 2월) 학교별 준비 · (’16. 3월) 전면 실시

자유학기제는 연구학교가 2013년 5월에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42개교로 2학기 운영이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희망학교’로 표현된 운영 시범학교를 모집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2013년 9월부터 2015년 말까지 2년 반 기간의 준비 및 시범 운영기를 거쳐 2016년 3월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의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5·28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운영되는 연구학교(42개교)는 1학년 2학기, 2014년 3월부터 운영되는 연구학교(40여 개교)는 2학년 1학기를 주 대상으로 운영하되, 학

교의 희망에 따라 다른 학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학교 예산은 학교규모에 따라 학교당 3,000∼4,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구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의 진로체험 경비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본 구상은 5·28 보도자료에 소개되어 있으며, KRIVET에서 수행한 두 차례(2013.03.27; 2013.06.14)의 대규모 국내, 국제 단위 자유학기제 주제의 포럼을 통해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KEDI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가 구축되는 등 자유학기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가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의 정체성은 우리 교육계의 청중(audience)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 2013년 9월부터 적용을 시작한 학교들은 학생들과 학교 분위기 등에서 활기찬 모습, 높은 만족도 등 고무적인 반응이 보고되었다(교육부 2013년 9월 26일 제1회 자유학기제 포럼 자료집).

당장 2학기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 교원들은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부분에 있어 5·28 보도자료 등 자유학기제 정책의 취지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맞게 실행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본고는 정부의 정책자료에 나타난 자유학기제의 면모를 소개하고, 학교에서의 적용 방안을 교수학습 및 평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자유학기제 정책의 개요

자유학기제는 '3학기제', '2학기제'와 같은 학사 운영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또 처음에 모델로 삼았던 것이 아일랜드 '연계학년제(Transition Year: TY[1])'인 만큼, 시간 운영의 특징과 함께 교육과정과 평가 등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실행하는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5·28 보도자료에 제시된 정의는 <표 II-1>과 같다.

1) 보통 연계학년제, 전환학년제로 번역되나, 본 발표자는 transition의 용례에 따라 '연계학년제'로 사용함

<표 Ⅱ-1>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의

자유학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3.05.28.보도자료)"
자 유 학 기 :	"중학교 3년의 6학기 중 교육과정(전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수업방법, 평가방법 등에 있어 나머지 학기들과 다르게 편성하여 학생 중심의 체험활동, 진로탐색이 강조된 학기"
중학교 3년 = 자유학기 + 일반학기	

<표 II-1>의 정의에 따르면, 자유학기는 중학교 3년의 6학기 중 한 학기에 시수, 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등에 있어 나머지 학기들과 다르게 편성하여 학생 중심의 체험활동, 진로탐색이 강조된 학기이다. 즉, 중학교 3년은 자유학기 1개 학기와 일반학기 5개 학기로 구성된다.

다음은 5·28 보도자료에 제시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이다.

<표 Ⅱ-2>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안

1.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 진로학습 → 진로상담·검사 → 진로체험 →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구성
2.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 학생 수요에 기반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제공
 ◇ 예술(음악·미술), 체육 교육 내실화
 ◇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관리
3.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 기본교과별 특성에 맞는 참여·활동 중심 교육
 ◇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 활용
  - 블록타임을 활용한 융합·연계 수업
  - 코티칭(Co-Teaching)-코러닝(Co-Learning)
  - 간접체험교육과 직접체험교육의 동시 활용
4.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한 편성·운영
  - 수업시수 증감 제도 활용, 중간·기말고사 기간 등 여유 시간 활용
 ◇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장애 요인 개선
 ◇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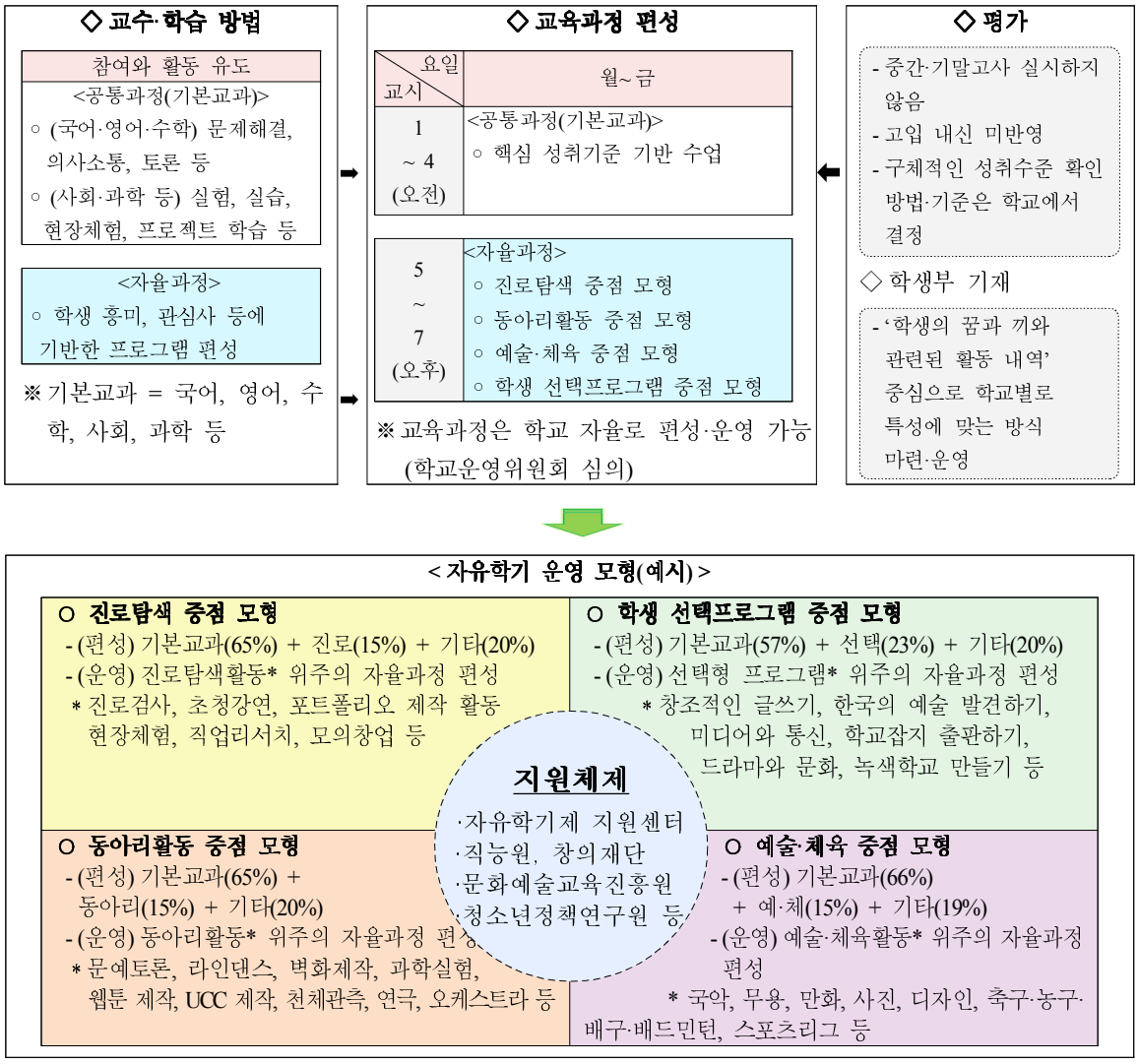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2013.05.28.보도자료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안 중 첫째는 진로교육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학생에게 체계적인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한다는 첫째 방안은 자유학기제 운영의 취지라고도 할 수 있으며,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에도 부합하는 특징이다.

둘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안은 학생의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이다. 이를 위해 주로 예체능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발굴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안은 학생중심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이다. 여기서도 학생의 체험이 강조되면서 특히 예체능 이외의 주지교과들의 교수학습 방법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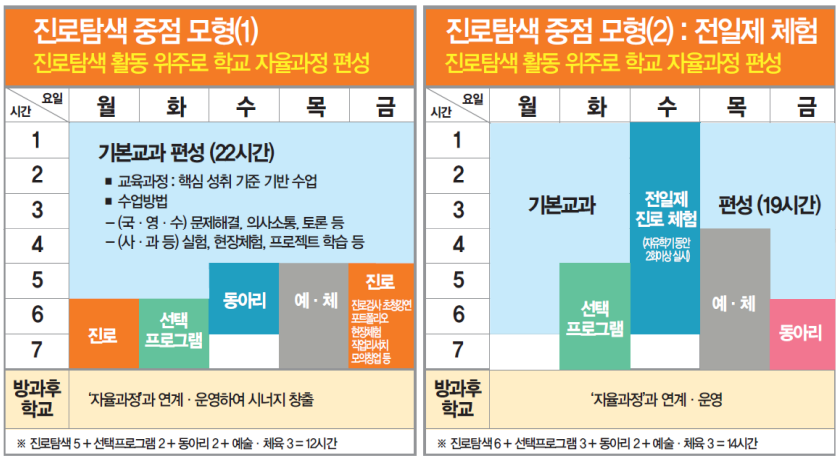
넷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안은 학교별 자율적이면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20%증감제도 및 시험기간의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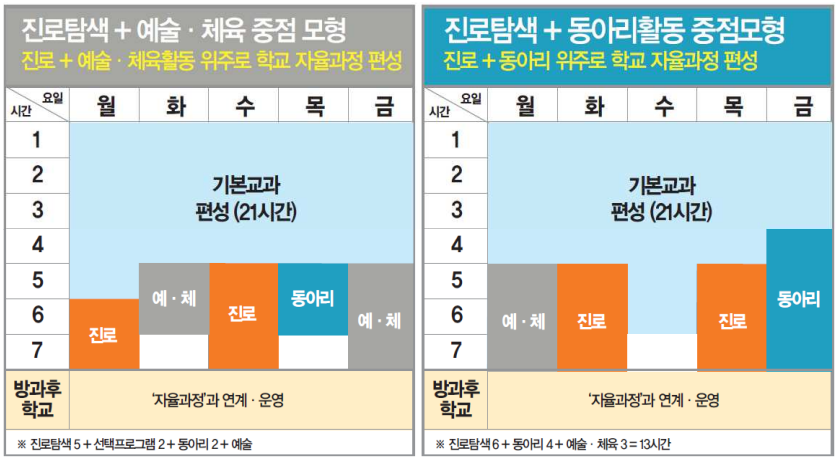
[그림 II-1]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 운영 모형(교육부 보도자료, 2013.05.28)

5·28 보도자료에서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위하여 전체 구조도 및 운영 모형도 제시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 편성, 평가의 요소 및 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진로탐색 중점, 동아리 중점, 예술·체육 중점,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 등 4가지 모형은 [그림 II-1]과 같다.

또한 자유학기 4가지 운영 모형을 적용한 예시로 8개의 적용 사례 모형이 [그림 II-2]~[그림 II-5]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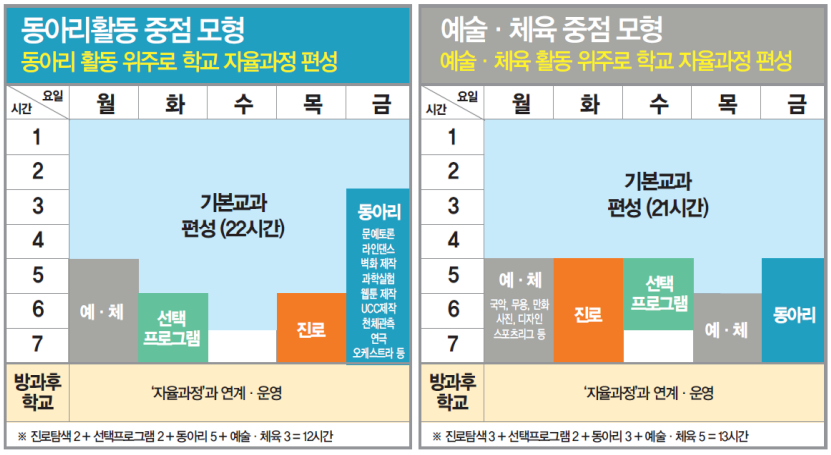


[그림 II-2]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 8가지 예시 중–진로탐색 중점 모형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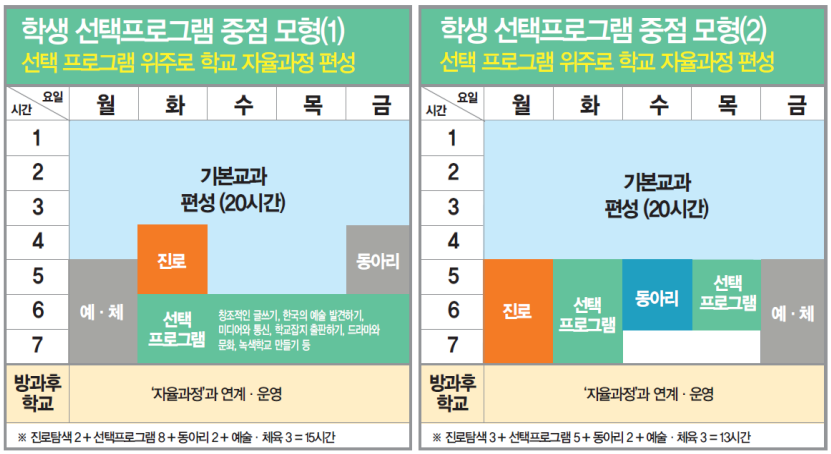


[그림 II-3]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 8가지 예시 중–진로탐색+예술·체육 중점 모형, 진로탐색 +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그림 II-1]~[그림 II-5]에 제시된 자유학기 운영 모형에서는 앞서 <표 II-2>에서 제시된, 진로탐색 기회 제공, 체험 ·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교수 · 학습방법의 다양화, 유연한 교육과정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을 구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II-4]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 8가지 예시 중-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그림 II-5]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 8가지 예시 중-학생 선택활동프로그램 중점 모형 1, 2

첫째, 교육과정을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한다. '공통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기본교과' 과정이다. '자율과정'은 현행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사한 활동들 및 예술 · 체육 교과가 포함된 과정이다.

둘째, 자유학기 운영 모형은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중점을 무엇에 두는가에 따라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이 어우러져 진로탐색 중점, 동아리활동 중점, 예술 · 체육 중점,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으로 구분된 4가지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자유학기 운영 모형의 적용 예시는 오전-오후, 전일제 등 주중 시간표 구성에서 다양화된 것이다. 기본교과의 공통과정은 오전에, 자율과정은 오후에 편성하는 것이 제시된 모형의 일관된 특징이나, 학교 자율 편성 · 운영에 맡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table>
<tr><th>요일
시간</th><th>월</th><th>화</th><th>수</th><th>목</th><th>금</th></tr>
<tr><td>1</td><td colspan="5" rowspan="4">기본교과 편성
(20시간)</td></tr>
<tr><td>2</td></tr>
<tr><td>3</td></tr>
<tr><td>4</td></tr>
<tr><td>5</td><td rowspan="2">예체능</td><td rowspan="2">예체능</td><td rowspan="3">선택
프로그램1</td><td rowspan="3">선택
프로그램2</td><td rowspan="2">진로·인성</td></tr>
<tr><td>6</td></tr>
<tr><td>7</td><td colspan="2"></td><td></td></tr>
</table>

[그림 II-6]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S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모형- 학생선택프로그램 적용

출처: 교육부(2013),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료집 p. 36

[그림 II-6]은 교육부의 운영 모형을 적용한 연구학교의 사례이다. 학생선택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오전 기본교과 편성에서는 국·영·수·사·과 중심의 수업을 하되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체육과 음악을 1시간씩 편성하고 블록타임 기술가정 수업과 도덕 수업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하였다.

넷째, 예술 · 체육 교과를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일반 교과들과는 다른 '자율과정' 집단에 속하도록 교육과정의 영역을 정하고 있다. 예술 · 체육 중점 모형에서는 자율과정에서 기존 예술 · 체육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자유학기 운영의 지원체제 제시이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앙의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한국교육개발원에 두고 있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및 유관 단체 들이 망라되어 자유학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체제로 준비되어 있다.

반면, 5·28 보도자료에 나타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특징 중 향후 명료화 작업 등 개선이 필요한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 시간 감축 편성이다.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은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 수업시간이 교육과정의 90%이상을 점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의 시간 분포를 볼 때 예시 모형에서는 대폭 감축된 57%~65%로 '자유학기 운영 모형' 4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자유학기 동안 감축된 교과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를 들어 전체 중학교 교과 수업시간수를 감축한다는 것인지, 다른 일반 학기에 추가하여 이수하도록 한다는 것인지의 해명이 필요하다. 다음 표의 예시는 현재 연구학교인 S중학교에서 1시간씩 교과를 감축한 예이다.

<표 II-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S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과 수업시수의 변동 사례

과목	본시수	감소시수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예정 시수
국어	4	-1	3
영어	4	-1	3
수학	4	-1	3
과학	4	-1	3
도덕	3	-1	2
한문	1	-1	0
합계	20	-6	14

출처: 교육부(2013),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료집 p. 37

둘째, 자유학기에 편성하는 특정 교과 및 교과 집중이수의 문제이다. 5·28 보도자료에서는 교과를 5개 '기본 교과' 중심으로 하는 공통과정으로 하고 핵심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과 시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수하는 교과수가 줄어들어 소수의 교과에 대한 집중이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자유학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증배할 경우, 이후 학기에는 창체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용도에 대한 명료화이다. 자유학기 공통과정인 기본교과는 핵심성취기준 기반 수업을 하도록 예시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책과제를 통해 2013년말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교과별 핵심성취기준을 개발 중이다. 그런데, 핵심성취기준의 용도 및 적용 시간에 대해서 자유학기제를 비롯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 용어의 유사성 및 혼란에 대한 우려이다. 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모든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만을 '기본 교과' 및 '공통과정'으로 칭함으로써, 기술·가정, 도덕 교과에 대한 처방이 결여되어 있다. 또 '자율과정'의 용어 및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있다. 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하위 영역 중 하나이나, 5·28 보도자료에서는 교육과정 자체를 공통과정 + 자율과정으로 2분화하고 있고, 자율과정을 다시 진로탐색 중점 모형,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의 4가지 모형으로 예시하고 있다. 즉 '기본교과', '자율과정' 용어는 사용시 현행 교육과정 용어와의 혼동에 유의해야 하며, 추후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 방안의 구체화이다. 5·28 보도자료에서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음을 천명함으로써, 자유학기 기간에 학교 수준 평가를 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였다. 문제는 수행평가 등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그 결과를 서술식으

로 기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NEIS에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문제, 수행평가에서 일체의 지필식 평가를 제외하도록 할 것인가 등 세안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자유학기의 교수·학습 방법

자유학기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육부의 5·28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참여·활동 중심 교육 강화
□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 마련

자유학기 수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학생의 참여·활동 중심 교육,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두가지 key word이다.

◇기본교과별 특성에 맞는 참여·활동 중심 교육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 활용
- 블록타임을 활용한 융합·연계 수업
- 코티칭(Co-Teaching)-코러닝(Co-Learning)
- 간접체험교육과 직접체험교육의 동시 활용

이 중 기본교과별 특성에 맞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국·영·수는 핵심성취기준 기반의 수업 효율화로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활성화
* (예) 국어 : 교사와 전문 미디어 강사(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의 코티칭을 통해 글쓰기, NIE를 활용한 토론교육 등 실시

○사회·역사·도덕·과학·기술·가정 등은 실험·실습·체험학습*을 강화하고, 스스로 탐구 할 수 있는 개인 및 조별 프로젝트** 학습 확대
* (예) 사회 : JA KOREA 등을 통해 시장경제, 기업경영 등에 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JA KOREA : 학교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하는 자원봉사자 모임)

또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예로는 블록타임제 활용, 팀티칭과 같은 코티칭 등 협업학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블록(BLOCK)타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과 간, 교과와 창·체 간, 학습주제 간, 학급 간 융합·연계 수업* 실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연계 교수·학습 모형' 개발·보급 추진

○두 명 이상의 교원이 한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는 코티칭(Co-Teaching)과 학생 간 역할 분담 및 의사교환 등을 통해 학습하는 코러닝(Co-Learning)을 활용하여 능동적 협업학습 실시

＊('코티칭+코러닝' 예시) 과학(빛과 색의 합성 원리 설명) + 미술(빛의 원리를 이용한 인상파 작품에 대한 설명 및 빛을 활용한 학생 간 협동 작품 제작)

○학습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명사·전문가 특강, 독서 등의 간접 체험학습 방식을 직접 체험학습 방식과 동시에 연계*하여 활용

＊(예)적성과 연계한 독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 포트폴리오 실천 계획 작성 및 실천

이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 아일랜드 연계학년제(Transition Year; TY)에서 제안한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과도 일맥 상통한다.

"다양하고 광범한 교수·학습 방법과 상황의 사용

- 협상 학습
- 학습에서 개인적 책임감
- 활동에 기반한 학습
- 학습에서 어울리는 영역들 간의 통합
- 팀티칭
- 집단 작업: 토의, 논쟁, 인터뷰, 역할극
- 프로젝트 작업과 연구
- 외부 연사와 세미나
- 현장 실습 그리고 현장 체험
- 직업 체험, 직업 시뮬레이션, 지역사회 봉사."(Ireland DES, 1994)

아일랜드에서도 연계학년제 교육과정의 실행 시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특히 방법에서는 활동과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학교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자유학기에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예시된 융합·연계수업은 최근 정부에서 수행한 융합 인재 STEAM 교육의 교과 간 통합 교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5·28 보도자료는 다음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 교수학습 모형은 교수학습의 방법이라기 보다는 교육과정 구성에서부터 결정되어야 할 교육과정 통합 운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연계 교수·학습 모형(예시)》

【①교과간 융합학습 모형(안)】

교과	활동내용
국어	고운말·바른말 사용 의미·방법 토론
⇓	
도덕	바른 언어 사용 학급 규칙 정하기
사회	자치법정에서 고운말·바른말 상벌 처리
⇓	
체육	규칙준수 등 올바른 경기자세 학습
미술	고운말·바른말 표어, 포스터 그리기
⇓	
평가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②교과와 창·체 연계학습 모형(안)】

구분	활동내용
주제	이동성(mobility) : 나를 변화시키는 힘
⇓	
교과 (2차시)	이동과 관련한 직업세계 탐색, 조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업군별 이동경로 작성
⇓	
창·체 (2차시)	조사자료 기초로 자신의 진로 상상·설계, 이를 발표·공유하여 나와 타인의 꿈 공유
⇓	
평가	과정 평가, 자기성찰 평가 등

융합·연계수업을 적용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계획 사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D중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과학, 환경, 미술교과 단원 재구성 예시

과학	환경	미술
5.1 열평형	2.1우리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1아름다운 우리자연
5.2열의이동		1.2자연을 고려한 환경
5.3비열과 팽창	2.2산업화 및 도시화와 환경변화	3.1흥미로운 풍경
6.1물질의상태		
6.2분자의운동	2.3지속가능발전과 녹생성장	3.2내가 만난 풍경
6.3상태와 에너지		
7.1지구의물	3.1생태계의 의미와 구성요소	4.2판 위에서
7.2해수의성질		
7.3해수의순환	3.2공기.물.흙의역할과 인간과의 관계	6.1보고듣고말하는 비평

⇒

과학	환경	미술
국어과		
	4.주체적인 해석과 감상	6.1보고듣고 말하는비평
7.1지구의물	3.2공기.물.흙의 역할과 인간과의 관계	1.1아름다운 우리자연
		1.2자연을 고려한 환경

과학, 환경, 미술교과 수업 설계 예시

교과	과학	환경	미술	비고
단원	7.수권의 구성과 순환 1.지구의 물	2.환경과 환경보전 1.1공기,물,흙의 역할과 인간과의 관계	1.조화로운 삶 1.자연과 호흡하는 삶 1.2자연을 고려한 환경	
수업모형	탐구학습모형 개념학습모형	토론학습모형 현장체험학습모형	실기학습모형	
수업의흐름	◆……➤			
	개념정리	개념 확장 및 응용	표현 및 적용	

출처: 교육부(2013),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료집 p. 56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 이전에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교육부의 5·28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 (동아리 활성화) 학생의 희망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개설 및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간 동아리 연계** 활동 강화
 * (예) 지방학교 동아리의 수도권 체험기관 방문, 예술동아리 기자재 등 지원
 * * (예) 동아리 공동 프로젝트 수행, 우수작품 발표회, 동아리 종합 경진대회 등
○ 교육지원청과 학교 공동으로 학교 밖 인프라 발굴 및 확보를 확대하여 방과 후, 토요일 등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시 》

○ 학생회 중심으로 학생수요 조사 →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도출 → 학생별 선호에 따른 선택 →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수요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9월	10월	11월	12월
문예	문예토론반	·글쓰기 기본 교육 ·유명 작가 인터뷰	·유명 작가 문하생 체험 ·교지 제작 기획	·토론대회 참여 ·교지 자료 수집·작성	·시사 칼럼 작성·발표 ·교지 편집 및 발표
음악	라인댄스반	·기본스텝 익히기 ·라인댄스 작품 익히기1	·라인댄스 작품 익히기2 ·라인댄스 작품 관람	·동아리 공동 공연준비 ·양로원·고아원 방문 공연	·동아리 발표회 준비·발표
탐구	과학실험반	·과학 실험 기초 다지기 ·개인별 탐구주제 설정	·모둠별 과학 실험 ·개인 탐구주제 중간발표	·다문화 친구와 과학실험 ·개인 탐구주제 발표	·동아리 발표회 준비·발표
IT·영상	웹툰제작반	·웹툰 이론적 기초 교육 ·웹툰의 사회적 의미 토론	·개인별 웹툰 제작1 ·웹툰 작가와 간담회	·개인별 웹툰 제작2 ·동아리 공동 전시 준비	·(협업) 동아리 공동의 전시회 준비 및 전시
	UCC제작부	·UCC 및 미디어 이해 교육	·UCC 제작1 ·UCC 경연 대회 참여	·UCC 제작2 ·동아리 공동 전시 준비	

○ 학생들의 다양한 청소년단체* 참여 및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예) RCY, 보이·걸스카우트, 누리·한별단, 한국해양소년단, 한국우주소년단 등

□ (선택형 프로그램) 흥미, 관심사 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 학교 등의 수요에 따라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선택형 프로그램은 학교별 동아리에서 중·장기에 걸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흥미 유발 및 교육 효과 증대

* (예) 창조적 글쓰기, 한국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

○ 학교별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피드백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발굴

○ 현재 운영 중인 창·체 중 이론 전달, 간접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체험·활동형 내용으로 대체

- 특히, 학교폭력예방, 안전, 인성, 보건 등 창·체 시간을 활용하는 필수교육의 경우 정규교과 또는 직업체험과 연계*하여 학습효과 증대

* (예)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체험형 프로그램) → 경찰서 방문 직업 체험
소방장비를 활용한 '안전교육'(체험형 프로그램) → 소방서 방문 직업 체험

□ (예술(음악·미술)·체육 교육) 예체능 교육을 다양화·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 실시

○ 예체능 교육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제공 기관에서 전문강사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여 이를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등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16년 전면 도입 시까지 단계적인 확대 방안 마련

○ 학생의 희망에 따라 예술교육선도학교 등에서 기 개발된 '예술(음악·미술)-교과 융합 프로그램*' 활성화로 입체적인 학습 지원

* '음악+국어, 음악+과학, 미술+수학, 미술+연극' 등 2~3개 교과간 연계·융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한 정규교과 및 학교 자율과정 등에 예술 강사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 ('13년 지원 현황)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사진, 디자인, 공예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4,485명 지원 실시

○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활성화* 및 운영매뉴얼 마련, 스포츠클럽을 토요스포츠데이 및 방과후 교육과 연계 등 추진

* 리그대회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연간계획, 대진표 등 체계적 관리

□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발굴·관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발·수집·이용

○ (Bottom-up)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유학기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아이디어 공모 → 분석 및 일반화 → 교원연수 및 활용

○ (Top-down)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Development) 이미 개발되었지만 활용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수집·개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자의 접근성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의 역동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교육과정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도 일단 프로그램이 구성된 후에는 다음 구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표 Ⅲ-2> 아일랜드 연계학년 교육과정(TU) 샘플

<table>
<tr><td>5. 시간 구성</td><td><table><tr><td>교실 수업</td><td>35차시(hour)</td></tr><tr><td>현장 학습</td><td>5차시</td></tr><tr><td>프로젝트 준비 및 발표</td><td>5차시</td></tr></table>이 연계과목은 한 학년(주당 2시간)동안 내내 가르치거나 학교의 연계 학년 계획에 따라 짧은 블록시간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td></tr>
</table>

<표 Ⅲ-3> 자유학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의 구성에 대한 시간 계획 예

<table>
<tr><td>5. 시간 구성</td><td><table><tr><td>교실 수업</td><td>24차시</td></tr><tr><td>현장 학습</td><td>4차시</td></tr><tr><td>프로젝트 준비 및 발표</td><td>6차시</td></tr></table>이 과목(또는 프로그램)은 한 학기동안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하거나 학교의 자유학기 계획에 따라 짧은 블록시간을 통해 격주로 운영할 수 있다.</td></tr>
</table>

자유학기 수업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수행해 온 편성의 경험에 예술, 체육교육 내실화 부분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 학생 수요에 기반한 동아리활동 활성화
◇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제공
◇ 예술(음악·미술), 체육 교육 내실화
◇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관리

Ⅳ 자유학기의 평가

자유학기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유학기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교육부의 5·28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 마련

□ 자유학기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중간·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 대신, 학교별로 수업진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자기성찰평가: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 수립 및 점검하는 평가(교사는 피드백 제공)

※ 형성평가 : 교사가 수업과정 중 학생들의 학습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평가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KEDI:한국교육개발원)를 통해 다양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수준 확인 결과는 학생들의 꿈과 끼 살리기와 관련된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등에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구체적인 기재방식은 연구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방식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자유학기 동안의 학습 성취수준 확인 결과는 고교입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자유학기 교육평가는 중간·학기말고사 폐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기성찰평가, 형성평가의 활용, 평가결과의 서술식 기재 등을 특징으로 한다.

◇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시험 실시하지 않음

◇ 학습과정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 확인

- 성취 수준 확인 방법과 기준 등은 학교별 마련

◇ 자유학기 성취수준 확인 결과는 고입에 미반영

학생의 성취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성찰평가, 형성평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은 그동안 교육계에서 활용해 오던 수행평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아일랜드 연계학년제(Transition Year; TY)에서는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와 달리 학교 수준에서 평가는 하도록 하지만, 수행평가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과의 관계를 제안하였다.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의 총체적 부분이다. 평가는 진단적이어서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을 통해 학생의 수행이 향상되도록 촉진하는 형성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정규 평가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모든 측면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중략)

교육과정 말에 모든 학생은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학생의 개인별 평가를 위한 완성된 다이어리/로그북 또는 저널
- 학생의 성취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받은 프로파일 및 평가기록"(Ireland DES, 1994)

아일랜드 연계학년에서는 교육과정의 연장선으로서의 평가의 역할과 함께 엄격한 수행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요청하고 있고, 동료 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를 중요시함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아일랜드 연계학년제 교육과정 샘플 TU에서 제시한 수행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표 서식, 자유학기제에 적용한 양식이다.

<표 Ⅳ-1> 아일랜드 연계학년제(TY) 자기성찰평가표 양식

Transition Year Programme
Assessment of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Joint Student- Tutor Assessment

Name.....

		Student's self-assessment	Tutor's assessment
1	Attitudes to the goals of Transition Year		
2	Achievements of goals set for Transition Year		
3	Participation in Transition Year		
4	Attendance		
5	Punctuality		
6	Truthful and effective communication		
7	Personal organisation		
8	Completion of work on time		
9	Dealings with authority		
10	Interest in the welfare of others		
11	Cooperation with others		
12	Willingness to listen to constructive criticism		
13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mistakes		

Student's signature .....

Tutor's signature .....

Date .....

Assessment Criteria
5 .....Excellent
4 .....Very Good
3 .....Good
2.....Fair
1.....Poor

출처: Jeffers, 2007: p. 151

<표 Ⅳ-2> 아일랜드 연계학년제(TY) 샘플을 자유학기제에 적용한 자기성찰평가표 양식

자유학기 'OOO교과 OOO주제(예: '개인과 사회적 성장')에 대한 자기성찰평가표
학생-교사 평가 종합

학생 반: 이름:
교사 이름:
평가날짜:
평가 기준: 5: 매우 우수, 4: 우수, 3: 보통 이상, 2: 조금 미진, 1: 미진

		학생의 자기평가	교사의 평가
1	자유학기 목적에 대한 태도		
2	자유학기 목표의 달성		
3	자유학기 참여		
4	출석률		
5	시간엄수		
6	믿을만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7	자기관리		
8	업무를 제시간에 마치기		
9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관리하기		
10	다른 사람이 잘 지내는 지에 대한 관심		
11	타인과의 협력		
12	건설적인 비판에 귀기울이는 태도		
13	실수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태도		

<표 Ⅳ-3> 아일랜드 TU에서 제공하는 학생 프로젝트 자기평가표, 학생 교과 평가표, 교사의 교과 평가표 서식

<학생의 프로젝트 자기평가표>

1. 당신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2. 당신이 만난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나요?
3. 프로젝트에서 가장 재미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 어떤 기능들을 사용했나요?
5. 만일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생의 교과 평가표>

1. 이 연계과목에서 제일 제미있었던 것은....
2.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3. 이 과목은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4. 내가 제일 재미없었던 것은....
5.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6. 이 과목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나요?

<교사의 교과 평가표>

1. 이 과목의 어떤 부분이 가장 성공적이었습니까?
2. 어떤 부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3. 다음에 대해 당신은 어느 정도로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코멘트
학습결과	
학생의 주요 기능 개발	
학생의 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	

4. 이 과목을 다시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변화를 주고 싶습니까?

a. 내용에서....
b. 교수방법에서...
c. 수행평가에서...

출처: www.education.ie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형태로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지, 학생 발달상황기록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Ⅳ-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S중학교의 평가지- 프로젝트 자기평가 및 모둠 내 동료 평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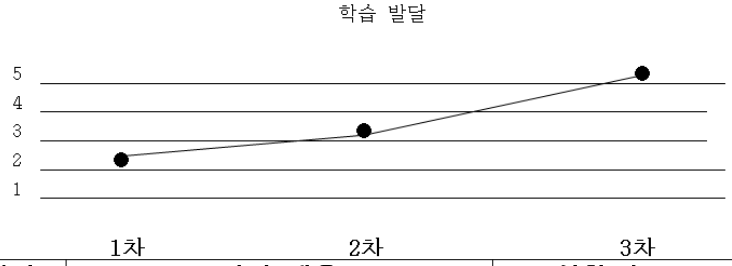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매우미흡:1 미흡:2 보통:3 우수:4 매우 우수:5)				
				1	2	3	4	5
자기평가	지식 (인지적영역)	프로젝트를 통한 수학적 성취수준 도달도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						
	태도·흥미 (정의적영역)	모둠 구성원들과의 공감 및 호응도						
		준비 및 발표과정에서의 기여도						
	합계							
동료평가	태 도·흥미 (정의적영역)	•우리 팀의 친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협동하며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하였습니까? 모둠원을 중심으로 기록하세요.	이 름	평 가				
				1	2	3	4	5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나의 느낌과 제안 점								

출처: 교육부(2013),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료집 p. 38

<표 Ⅳ-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D중학교의 평가결과지- 학생 학습발달 상황 (예시)

학생 학습발달 기록지

학년 반 번호 이름



회 차	평가 방법	평가 내용	성취 수준	노력 정도
1차	형성,서술	여러 가지 설명 방법	2	상
2차	형성,토론	소통하며 듣고 말하기	4	상
3차	포트폴리오	단어와 품사의 이해	4	상
4차	관찰평가	주체적인 해석과 감상	5	중

종합의견

수업 중 실시하는 형성평가에서 향상된 성취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설명 방식을 선정하여 짧은 글을 쓸 수 있으며, 새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생활 속에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문학 작품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만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 편의 글을 읽을 때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

학부모의견

출처: 교육부(2013),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료집 p. 38

V 요약 및 기대효과

1.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유의점

-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 취지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학교, 교사, 학생의 요구와 여건에 기반한 교육과정 방향 설정
  (정부의 모형을 참조하고 이에 기초하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운영 기대)
- 교과 수업시수 감축, 창의적 체험활동 증배 시 일반학기와의 연계성 고려
- 교과 수업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다양한 방식들 중 선택, 예: 블록타임활용, 교과통합(융합)의 일부 도입,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내용의 재배치)
- 교육 활동의 통일성, 효율성 추구(유사 단기 활동들의 나열이나 중복 방지, 큰 규모의 중장기 긴 시간 활동들과 단기간 활동들의 적절한 배합)

2. 자유학기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수·학습 방법

- 수업 및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참여 확대, 학교 밖 물적 인적 자원 활용 확대
- 교육내용의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 적용
- 학생의 흥미 기반한 주제선정
- 학생의 참여 활성화 : 수업 계획 전과정에 학생 참여 확대

3. 자유학기 평가

-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시험 실시하지 않음
- 수행평가, 형성평가의 강조-학습과정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 확인
- 수행평가의 도구에 대한 학교 차원의 준비 구조화
  (동료평가지, 자기평가지, 프로그램평가지 등의 서식 마련)
- 성취 수준 확인 방법과 기준 등은 학교별 마련
- 자유학기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고입에 미반영

4. 자유학기의 기대효과

□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꿈과 끼,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 더불어 함께하는 협동·협업 학습을 통한 사회성 및 인성 함양

○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시설 이용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및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프로젝트 수업 등 참여 위주의 교실수업을 통한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 **만족도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 참여·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 모둠 협동 학습을 통한 교우관계 개선 및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한 교사·학생 관계 개선

○ 자기이해 및 진로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학습동기를 찾아 학업에 매진하는 계기 마련

□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

○ 과도한 학업부담, 지나치게 성적을 중시하는 학교풍토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 경쟁과 성취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공교육 정상화 계기 마련

참 고 문 헌

교육부(2013). 보도자료, 2013년 5월 28일, www.moe.go.kr

교육부(2013).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2013년 9월 26일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지표. 학교 진로교육 목표 마련 공청회 자료집

곽병선(2013).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년 제1회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김진숙(2013a). 자유학기제의 정체성 규명과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언.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년 제1회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김진숙(2013b).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청람포럼 자료집

김진숙(2013c).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평가는 어떻게? 한국교육신문. 2013년 8월 5일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2275

2
주제 발표

- 주제발표 1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과제
- 주제발표 2 :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안
- 사례발표 1 : 부평동중학교 운영 사례
- 사례발표 2 : 영종중학교 운영 사례

주제발표1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과제

최 영 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I 경 과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교육 분야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자유학기제는 현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대개의 정책들이 그러하듯, '개념'만 있고 '세부'가 없을 때는 각자의 자유로운 해석들이 난무하게 마련이다. 특히 입시 지배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학교 현실에서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파격은 교육계의 분분한 이견과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2)]

3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추진 방향이 정립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개념의 모호, 초점의 변화, 추진 과제의 상투적 이해 등으로 업무의 지연과 혼선,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자유학기제 추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까지의 경과를 월별로 간추려 본다.

【3월 ~ 4월】 : 개념 모색

① 3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정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
-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 과장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기본계획 안내
- 연구과제 제시 : 3개 영역(**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진로 및 인성교육**)
- 유의사항 : 2009 개정교육과정 연구학교, 창의인성 모델학교, 진로교육 연구학교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장

② 3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정과), 201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안내
- **자유학기제 개념 제시**

>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이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간·기말 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를 치르지 않으며**,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 전반을 통하여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학기로 운영하여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한국교총,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2013.2.7) 보도자료 참조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운영하며, 학생이 적극 참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체험 중심의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강조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조**

· 적용 시기는 의견 수렴 후 추후 결정 예고

③ 3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학교선진화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지정 요청

· 학교 선정 시 유의사항 변경 : 학부모 동의절차를 거쳐 선정할 것을 명기함(**교사 및 학부모의 전체적인 찬성과 협조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

· 추진 일정 상 **연구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연구학교 계획서는 추후 제출토록 함**[3)]

④ 4월 17일, 교육부(**공교육진흥과**),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자 회의

· 자유학기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의 진행

·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및 학생부 작성, 고입 전형, 체험·활동형 교육 인프라 확보 방안 등 논의[4)]

【5월 ~ 6월】 : 개념 정립

① 5월 21일, 교육부(공교육진흥과),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 과장 회의

·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검토

② **6월 4일, 교육부(공교육진흥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국무총리 격려동영상)

·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 안내

· **자유학기제의 개념 설정**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 설정**

> ◈ **자유학기에 집중적인 진로수업 및 체험**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진로인식)-중학교(진로탐색)-고등학교(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활성화**
>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대폭 확대**
> ◈ **자유학기제 대상학기**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구학교의 운영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
> ◈ 자유학기에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실시되는 중간·기말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기초적인 성취수준 확인 방법 및 기준 등은 학교별 마련**
> ◈ 자유학기를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

3) 우리교육청은 선정계획 공모(3월 20일), 신청희망교 대상 설명회(3월 21일), 11개교 신청서 접수(3월 26일), 운영교 선정(3월 28일), 선정교(영종중, 부평동중) 교과부 보고(3월 29일)의 과정을 진행했고, 7월 4일 운영계획서 제출에 이어 최종 운영계획서는 10월 4일 교육부로 보고함

4) 교육부의 주관 부서 변경과 함께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추진과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됨

③ 6월 13일,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년 제2회 진로교육 국제 포럼
· 진로교육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아일랜드(전환학년제), 영국(갭 이어), 덴마크(브릿징 이어)** 사례 소개
④ 6월 18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워크숍
· 외부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부 협업기관(8개) 인프라 현황 안내
· 자유학기제 담당자(교육청, 교육지원청, 운영교) 분임토의
⑤ 6월 26일~27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워크숍
·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시도교육청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지원계획(안) 검토

【7월 ~ 8월】: 담당자 연수(역량강화)

① 7월 4일, 시교육청, 2013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시교육청 확대간부회의(7월 1일),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보고
·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운영교(2교)의 운영계획서 교육부 제출
· **시교육청 추진과제 설정**

[과제 1]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지원
[과제 2]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과제 3]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과제 4] 학교 자율성에 따른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② 7월 4일, 교육부(공교육진흥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교장 연수
·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장 이해도 제고 및 비전 공유
③ 7월 4일~12일,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자유학기제) 담당자 국외연수
· 아일랜드(전환학년제)와 영국(갭 이어)의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과정 이해 제고
④ **7월 30일, 시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자(교육지원청, 운영교) 협의회**
· 상반기 준비 과정 점검 및 향후 추진 일정 안내(학부모 설명회, 교원 직무연수)
· 하반기 운영계획서(준비상황) 검토 : 수업개선 영역 보완 필요성 제기
⑤ 8월 7일~9일, 교육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연수(KT인재개발원)
· 운영교별 1학년 교사 7명(교과별 1명) 참석
· 연수내용 : 핵심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활동 지도
⑥ **8월~12월,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직무연수(60시간)**
·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담당자의 역량 제고[5)]

5) 자유학기제에 대한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정책 이해 수준을 교육부 담당자 수준으로 높여 2014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교(연구/희망학교) 확대 업무를 담당케 하려는 목적

· 자유학기제 관련 기획 및 정책개발을 위한 집중 세미나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2014년 희망학교 지원 및 관리 방안 마련

⑦ 8월 13일, 교육부/(교육개발원)중앙컨설팅단,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컨설팅 실시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우수사례 7개교 추출(부평동중 외)
· 컨설팅 결과 운영 우수교 : 15개교(영종중, 부평동중 외)

⑧ 8월 14일(영종중), 16일(부평동중), 부교육감, 운영교 방문 간담회
· **적용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검토**(교사 능력개발 프로그램도 필요)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지역사회 홍보 필요)
· 준비과정의 과도한 업무 부담 호소

⑨ 8월 23일, 30일, 시교육청/북부지원청, 자유학기제 운영교 수업역량강화 직무연수
· 운영교(영종중, 부평동중) 교사 전원 참석
· **창의적인 우수 수업 사례 위주의 워크숍으로 참석자 연수 만족도 높음**

【9월 ~ 10월】 : 정책 확산

① 9월 2일, 교육부 차관, 부평동중 방문 및 간담회(교사, 학부모, 학생)
· 연구학교 운영 목적은 한 학기의 사례가 내년도 희망학교에 보급 전파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전력투구하여 다른 학교가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은 곤란
· **자유학기제는 경쟁으로 왜곡된 상황에서 벗어나 애당초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 교사들은 과도한 요구에 대한 부담감 피력, 사회적 여건 강조

② 9월 13일, 시교육청, 중등 전문직 연수회
· 최상덕 소장(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연구지원센터) 특강

③ 9월 25일, 시교육청, 중학교장 및 운영위원장 대상 자유학기제 정책설명회
· 심은석 실장(교육부 교육정책실) 특강 및 부평동중 운영 사례 소개

④ 9월 27일, 1권역(서울, 경기, 인천) 중학교장 대상 자유학기제 정책설명회
· 서남수 교육부장관 특강 및 서울, 경기, 인천 운영 사례 소개

⑤ 9월 30일, 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실무추진단 협의회
· 자유학기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각 부서 및 사업소 담당자 유관 업무 협의
· 향후 주요 추진 일정 협의

⑥ 10월 2일, 교육부(공교육진흥과),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
·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선정 운영 계획 : 2016년까지 전면 도입 추진
· 자유학기제 정책 홍보 강화 및 교사 연구회 운영

이상의 경과에서 자유학기제의 현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정립되고, 추진 방향이 구체화되었다. 수차례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본 운영계획

안내와 연구학교 발대식이 지연되고, 발대식 이후에도 방향성의 혼선이 있었지만[6] 지금은 "중학교 한 학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각인되고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이나 '체험활동'에 국한되거나 '시험도 안 보고' '한 학기' 적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교육 전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간주된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소개될 때 '학교 밖' 진로 및 체험 활동이 주로 강조된 데다, 마침 연구학교들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던 시기에 진행된 워크숍과 제공된 소개자료 등이 주로 전자와 관련된 내용이어서[7] 업무담당자들이 자유학기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었다.[8]

셋째, 초기에는 해외 사례를 상당히 주목했으나, 지금은 우리의 필요를 근거로 추진하기 때문에 연구학교마다 특징적인 운영 모형을 적용해보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영국의 Gap Year, 덴마크의 Bridging Year, 호주의 IBPP 등에서 많은 시사를 얻고 있지만, 교육환경이 다르고 적용 형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알맞은 모형을 만들어나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지향과 모색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자유학기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매우 값진 시간'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다소의 부담과 불안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을 크게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주요 정책 수립 관계자들의 언급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A. 꿈과 끼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발휘하도록 해주자는 것으로 시도교육청마다 이미 표현해 왔던 것이며,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50~60년 동안 우리 교육의 성취는 대단했고, 자부심을 가질 자격

6) 연구학교 발대식('13.6.4,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부 장관은 자유학기제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진로탐색'과 '학생 중심 다양한 수업방식'을 강조하는데 비해, 주요 내빈들은 '진로체험'을 자유학기제의 전부로 이해하거나 '역사적인 획을 긋는 순간' '새 정부의 간절한 소망' 등의 修辭만 언급하는 수준이었음

7) 진로교육 국제포럼(직업능력개발원, 6.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워크숍(한국교육개발원, 6.18),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7.13.) 등은 자유학기제를 진로탐색의 측면에 집중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한 외부 체험활동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음

8) 자유학기제 담당자 협의(시교육청, 7.30)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분석결과(교육부, 8.6)를 종합하면, 교실수업 변화를 위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교육부는 연구학교 컨설팅 후, 운영계획서를 수정 제출하도록 요구함

이 있지만, …… 흥미도와 행복도는 바닥권이다. (입시 위주에 갇혀) **교육이 수단적 가치, 출세나 지위를 위한 교육, 무엇을 위한 도구적 성격의 가치로 국한된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규모와 수준은 모방, 복사, 개선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곤란한 시점이다. 새로운 지식을 위한 창의적 인력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고, 이것이 교육계의 과제이다. …… **한 학기 동안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특별하게 운영해 보자. 이것은 단순히 한 학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한다면 모든 학기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는 무엇인가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때다. …… (자유학기제에 대한) 걱정 중에 (학생들을 그냥) 놀리자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다운 공부를 하게 하는 학기임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시험 중심 방식의 학습, 시험공부만 잘하면 교육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시험 잘 보는 아이로만 키운다고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까?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이다. …… 교직도 교사가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매력이 있는 것이다. 시험 위주에서는 교사가 자긍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 **자유학기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로 부여하므로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자발성과 자율성이 없으면 곤란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9]

B. 서울대생 중에 15%만이 진로의식이 확고한 가운데 입학했다. 85%는 불투명한 가운데 입학한 것이다. 진로의식을 갖고 전공을 결정하는 비율은 25%이다. 나머지는 떠밀려서 진로를 결정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뭐든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 돌아설 수 없는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가는 형국이니, (이후의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 24개 학기 중에) **한 학기만이라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미리 준비, 지원, 격려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 학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학기는) 시작일 뿐이고, 변화된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바꿔나가자는 것이다**.[10]

C.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추진되는 바이나,) 실행 준비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학력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더 이상 우리의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잡혀 있을 수는 없고, 저마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 대한 역할 기대가 많이 바뀌었다. 입시에 억눌리면 곤란하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 **연구학교는 한 학기의 사례가 내년 희망학교에 보급 전파되도록 하는 것으로**, 너무 전력투구하여 다른 학교가 엄두도 못 내게 하면 곤

9)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순회 설명회('13.9.27, 킨텍스)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특강 메모
10) 2013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집중연수('13.8.6,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 특강 메모

란하다. 학생들도 좋아하고, 교사들도 (예산 부담 없이)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교과 시간에 꿈과 끼를 찾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애당초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11]

D.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넓은 시야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학생의 34.4%가 장래희망 '없음'인 이유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에는 40만 개, 우리나라에는 9천여 개의 공식 직업이 있는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평균 15개이다**. ……

창체활동은 자유학기제와 180도 다르다. 창체는 불규칙하게 짜여 있고, 대부분 1회성 행사로 끝난다. 계획 없이 실행만 있다. 자유학기제는 매주 일정시간, 일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을 거친다.[12]

E. 학교에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기술변화가 요구하는 직무역량의 변화 추세를 보면 '반복적 노동/인지'의 역량은 줄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매우 높게 나온다. 대학생 3천 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전공지식만 갖추고 있지 취업에 필요한 다른 역량은 매우 빈약하다. **수업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때, 창의, 협력(협업), 공감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학생 선택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13]

메모 요약의 한계는 있지만, 언급들을 근거로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지향은 다음과 같이 짚어낼 수 있겠다. **첫째,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본질에서 멀리 있는가는 '적어도 한 학기만이라도 공부다운 공부를 제대로 시켜보자'는 호소에서 적나라하다. 교육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에서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것에 학교교육의 초점을 맞추자.**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지? 내가 뭘 좋아하지?'[14] 등의 물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詩를 외우는 것에서 시를 직접 써보는 것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보는 것으로, 실험식을 배우는 것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업의 관점은 물론 방법론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셋째, 자유학기제는 전혀 새로운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정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이 호응하는 수업을 자율적으로 해보자는 것이기에,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교육 전체를 바꿔나가는 출발점의 성격을 지닌다.

---

11) 부평동중 방문 간담회('13.9.2)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 발언 메모
12) 2013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집중연수 및 신길중 방문 간담회에서 심은석 교육정책실장 발언 메모
13) 중등 전문직 연수회('13.9.13)에서 최상덕 KEDI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의 특강 메모
14) 경기 신길중 방문 간담회에서 김재춘 청와대 비서관의 언급(신길중 교장의 전언)

상반기 중 자유학기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추출[15], 진로교육과 교육과정 차원의 연구를 통한 지원과제 모색[16], 그리고 연구학교 운영 현황 분석[17] 등을 통한 자료 개발과 컨설팅을 꼽을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 시기, 기간, 방법, 내용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경쟁)은 진작부터 진행된 세계적인 추세이다. 요컨대, 우리로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은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둘째, 자율성을 강조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스스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가용 자원을 조직하는 역량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주도하고 아무런 구애 없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권한이,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무엇을 해결해 나가도록 응원받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의 진로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워주려는 관심과 제도적 배려가 구체적이다. 우리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지만, 학생의 입장을 존중하여 '기다려주는' 환경도 눈에 띤다.[18] 넷째, 지역사회의 협조와 관심을 중요시한다. 학교 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으로 연계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

다음은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설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학교들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또 '시험도 안 본다는데' 교실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등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의 맨 마지막 항목[19]을 제시하며 운영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상관없이 마음껏 해도 좋다고 했으나, 그런 상황이 학교로서는 더 막연하고 답답한 지경이었다. 그나마 관련 워크숍 등에서 소개된 교육과정 측면의 설명들이 자유학기제 적용을 구상하는데 도움은 되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황규호와 정광순의 설명이 참고할 만하다.

---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진로교육 국제포럼; 한국교육개발원(2013),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 및 시사점(CP 2013-01-1), 호주 IBP 프로젝트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CP 2013-01-4); 2013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국외 연수 보고(아일랜드, 영국) 등을 근거로 함

16) 한국교육개발원(2013), 자유학기제 실행방안(PP 2013-01-1); 자유학기제 운영프로그램 학생수요조사 결과(CRM 2013-85) 참조

17) 중앙교육연수원(2013),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집중연수 자료집; 정책과정 1차 세미나 자료집 참조

18)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에서는 학생들의 '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일탈' 정도라면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19)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교육과정 총론 Ⅲ-2-사)

황규호[20]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의문들을 거론하면서,[21] '학생의 변화'(진로교육)와 '학교의 변화'(교육과정) 중 시급한 것은 후자이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관련해서 '자유'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혁신과 관련된 자유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둘째, 교과 외 학습경험의 활성화와 관련된 자유로서 '자유탐구·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이다.[22] 셋째, 수업 및 평가의 혁신을 위한 과제로서 '자유로운 창의사고'를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는 정답 찾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넷째, 진로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과제로서 '자유로운 꿈'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사회적 통념에 의해 지배되는 한 줄 세우기 수직적 경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섯째, 학교 풍토의 혁신과 관련한 과제로서 '자유로운 학습 공동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 주는 것이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을 확인하여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정광순[23]은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결국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수업 변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교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존중(고려)하는 가운데, 교과서를 축약 확대 재구성하는 역량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수업의 변화는 교사가 사용하는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재구성해서 확보한 여유 차시나 시간이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진로탐색이든 자기탐색이든 모종의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본다. 만약 축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도 나가는 수업'에 고정된 경우라면, 단원 내 차시 간 경중을 구분하는 역량이라든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분하는 역량을 제고하여 '교육과정으로 교과서를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즉,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과단원의 학습 초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니,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교육과정 리터러시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20) 2013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제1차 세미나(2013.9.5) 자료집 pp.39~47
21) 예컨대, "교육경쟁력(학업성취도)을 높이는 게 모든 나라 교육정책의 기본인데, 우리는 왜 놀리게(?)하려고 난리인가?" "자유학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는 것 아닌가?" "한 학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학교의 변화가 가당하기는 하나?" "꿈을 키워주기만 하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될 틀에 박힌 학교 수업과 경쟁시험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22)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안에서의 교과 공부만을 의미있는 공부로 간주하는 현재 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음
23) 2013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집중연수(2013.8.6~8.7) pp.47~71

Ⅲ 추진 현황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6년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3년도는 1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전국 42개 중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이다. 2014년에는 2학년 1학기를 적용 대상으로 신규 연구학교 40여 개를 운영하고, 전체 중학교의 15% 내외를 희망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단계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도입 확대를 추진하게 되는데, 1단계로는 연구학교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운영교를 지원하고, 추후 교육부의 종합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2단계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지원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추진 체제

자유학기제 **추진단**(단장: 부교육감)과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단장: 교육과정기획과장)이 구성되어 있다. 추진단은 교육정책국 내 각 부서장이 참여하며, 부서별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 장학지원단은 교육지원청별 10명씩 총 50~60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에 확대되는 자유학기제 운영교를 지원하게 된다. 추진단(장학지원단) 주요 활동 의제는 다음과 같다.

- (MOU) 지자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 교육기부 기관(인력)을 발굴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한 연계망 구성
- (광역 단위 인프라 확보·활용) 진로교육 지원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구학교 간 매칭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연수 · 워크숍) 자유학기제의 순조로운 도입 확대를 위하여 중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연수, 워크숍, 홍보 안내 등 추진
- (성과 관리) 자유학기제 추진 지원 및 연구학교 운영 실태의 주기적 성과 분석·점검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질적 착근

장학지원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직무연수가 10~12월 기간 중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과제는 다음의 자유학기제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24)]

24)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집중연수 과제와 동일함

-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검토 :** 진로탐색, 동아리, 예·체능, 선택프로그램 모형, 진로탐색+예·체능, 진로탐색+동아리 모형 등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 **참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다양화 방안 세미나**
- **자유학기제 평가방법 마련 :** 형성평가·자기성찰 평가 등 학습 성취 수준 평가 방안 모색
-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 방안**
- **교육청 내 자유학기제 협력체제 구축 및 교육기부 기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 **관내 희망학교 지원·관리 방안 마련 :** 연구학교와 연계 협력 및 학교지원 세부계획 작성
- **교육지원청별 실행 계획서 발표 및 토론**

2. 자유학기제 추진과제별 구분

과제	지원 과제 명	주관 부서
1.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확대 지원	1) 학교 진로교육 기반 강화	창의인성교육과
	2) 교육기부 기관 연계 지원(MOU 등)	창의인성교육과
	3) 진로 · 직업 체험 활성화(직업체험학습실)	정보직업교육과
2.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1) 학생 중심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기획과
	2) 창의적 체험활동 및 예술 교육 지원	창의인성교육과
	3)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4) 학생교육문화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생교육문화회관
3. 학생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1) 다양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지원	창의인성교육과
	2)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다양화	교육과정기획과
	3)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교육과정기획과
4. 학교 자율성에 따른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1)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	교육과정기획과
	2)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교육과정기획과
	3) 선택 과목 신설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과정기획과
	4)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지원	교육과정기획과
5. 운영교 지원체제 구축	1) 고입 전형 방안 개선	교육과정기획과
	2)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	학교생활안전지원과
	3) 자유학기제 정책 개발 지원	정책기획관
	4) 자유학기제 교원 연수 지원	교육연수원
	5) 연구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확대	교육과학연구원
	6) 운영교 교원 배치 지원	교원정책과
	7) 학부모 연수 및 홍보 확대	정책기획관

※ 지원과제는 일부 수정, 보완 예정임

3. 향후 주요 일정(예정)

- ‘13.10.18 자유학기제 추진 종합보고
- ‘13.10~12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직무연수(5회, 20시간)
- ‘13. 10월 ’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선정
- ‘13. 11월 ’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담당자 연수(운영계획 수립)
- ‘13.11.15 지역사회 유관기관 MOU 체결 및 정책설명회
- ‘13.12.20 ’13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보고회
- ‘14. 1. 3 자유학기제 실무추진단 협의회(성과 분석 및 보완 대책 검토)
- ‘14. 2월 중 ’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원 워크숍(1박 2일)
- ‘14. 2.14 ’13년 자유학기제 추진성과 보고회
- ‘14. 2.21 장학지원단 워크숍(1박2일)

Ⅳ 과제(제언)

2013년 인천에서는 영종중과 부평동중이 자유학기제 정책추진학교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두 학교 모두 학교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동의 하에 자유학기제 도입을 결정했고, 쉽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지만, 전국 42개 운영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운영계획서 평가 및 컨설팅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아직도 모양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두 학교의 운영사례는 당장 내년도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업무 지원을 기준으로 향후 운영교 확대를 위한 추진 중점을 제언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자유학기제 운영은 전체 구성원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평동중의 경우, 체육 등 5개 과목 시수를 감축(-11)하고 창체 시수(+11)를 증배했는데, 구성원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기까지 1달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내부적 고민이 많았다는 뜻이다. 제1권역 시도교육청 사례발표에서 “본질에 대한 이해, 즉 동기가 부여되면 하게 되어 있다”는 표혜영 교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둘째, 자유학기제는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상반기 자유학기제 업무의 상당 부분은 ‘밖’으로 쏠린 눈길을 ‘안’으로 돌리는 과정이었다. 처음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모호할 때는 자연히 ‘바깥’의 진로 체험이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를 주목했고, 그것을 자유학기제의 모델로 간주했다. 그래서 일부 운영교에서는 당장 ‘체험활동비’ 부족

을 고충으로 토로했다. 자유학기제의 본령은 교육과정의 유연화, 인성교육 중심수업을 위한 교실의 혁신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는 '정책'이 아니라 '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정된 틀에다 학생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맞게 학교의 교육활동을 적용시켜야 한다. 교원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게 아니나 충분히 보람 있는 과제이다. '준비하는데 힘들었지만 막상 시작되고 보니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는 운영교 교사들의 말대로, 처음에는 염려가 많았는데, 오히려 교사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넷째,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교원의 교육과정 리터러시에 달려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으로 교육과정 전문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이외에는 교육과정에 무관심하다.[25] 자유학기제는 '작년 그대로'할 수도 없고, '옆 학교를 따라할 수도 없다.' 전체 교사가 함께 지혜를 짜내며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교육과정에 둔감하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없고, 설령 운영한다 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격이니 학교교육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는 그 시행에 걸맞은 분위기 성숙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유'를 강조한다면, 생각이 먼저 자유로워야 할 것인데, 운영교 담당자들은 오히려 속박감을 호소한다. 창의적 수업은 기계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학교마다 특색있는 무수한 자율과정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교사가 신이 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학생의 '행복'을 위해 교사가 도구적으로 소모되는 느낌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학생을 위해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시적인 '무엇'을 '빨리' 요구하는 정책적 조급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원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의 의미 및 역량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포럼('13.9.24) 토론문 참조

주제발표2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안

유 명 선
(인천서창중학교 교사)

□ 제안 배경

제5기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학교를 둘러싼 수많은 교육담론에서 개인의 성장을 도와 사람됨을 찾을 수 있는 학교 교육활동의 기본과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모색을 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현장이 공감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으로 대주제를 선정하였다. 7개 분과별 소주제를 정하여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협동학습의 심화된 형태인 <배움의 공동체 수업>으로 수업 중심 학교문화 형성하기,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기르기, 공감적 대화 능력 기르기, 개인의 맞춤식 진로역량 기르기, 개인의 삶의 지평을 넓고 깊게 하는 독서교육 내실화,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리더십 기르기, 급변하는 삶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위한 미래교육으로 의제를 설계하였다. 2012년에는 인천교육발전 의제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감과 인식 확산, 그리고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지원 안내 자료집>을 개발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를 정책자문실무위원들의 학교에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자 실천하고 보완하여 <학교지원 매뉴얼 자료집> 최종판을 내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교육 분야 중요 국정지표인 '행복교육'과 맥이 닿아 있으며, 더욱이 행복교육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이야기되는 자유학기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의미성이 커 지난 7월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인천교육정책 제안으로 교육청 해당부서에 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내용[2013 행복교육 학교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자료집, 인천교육정책 홈페이지 인천교육발전 포럼방(http://bestedu.ice.go.kr) 탑재, 추후 e-북 자료 발간 예정]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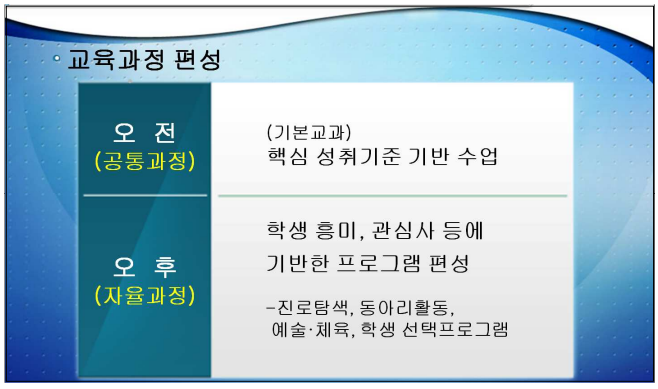
I 현황 및 필요성

1.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고,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낮은 상황
2. 자유학기제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학생 참여와 활동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 교육내용 지원 프로그램 매뉴얼이 적음
3. 학생 참여와 활동 유도를 위한 수업방식 변화에 따른 교사 부담이 큼
4.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협조, 교육기부 등 사회적 기반 미비
5.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 등을 반영한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프로그램 제공 필요
6. 인천교육발전 7개 제안 프로그램(교수-학습방법 및 교육내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자 유학기제 현장 지원 필요

Ⅱ 제안 프로그램의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의 실제

제안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편성 시 오전의 공통과정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으로 협력 학습의 심화된 형태로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프로젝트학습 방법을, 오후 자율과정에서는 학생 수요 기반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 공감적 대화, 독서교육, 미래교육, 리더십교육 5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4개 운영 모형 중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이 여기에 가장 알맞은 모형이며 타 모형 또한 부분적으로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편성



2. 수요자 중심의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1)**

⇒ 선택프로그램 위주로 학교 자율과정 편성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편성 (20시간)				
2					
3					
4		진로			동아리
5	예·체	선택프로그램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			
6					
7					
방과후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 진로탐색 2 + **선택프로그램 8** + 동아리 2 + 예술·체육 3 = 15시간

○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2)**

⇒ 선택프로그램 위주로 학교 자율과정 편성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편성 (20시간)				
2					
3					
4					
5	진로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선택 프로그램	예·체
6					
7					
방과후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 진로탐색 3 + **선택프로그램 5** + 동아리 2 + 예술·체육 3 = 13시간

3. 운영 방법 및 내용

◎ 학습 방법 개선 방안

- 핵심 성취수준 기반으로 기본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재구성 및 적용

  ★★★ 수업방법론으로 배움의 공동체 수업 적용, 프로젝트 학습 방법 적용

◎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 자율과정을 세부적으로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 체육활동으로 편성
- 학생의 희망과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 활용형 프로그램 매뉴얼로 공감적 대화, 독서활동, 진로교육, 리더십교육, 미래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교수 방법 개선

1) 오전에는 기본교과 수업을 토론, 실습, 체험 위주로 운영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개선

▷ 오전에는 기본교과를 중심으로 시간표를 편성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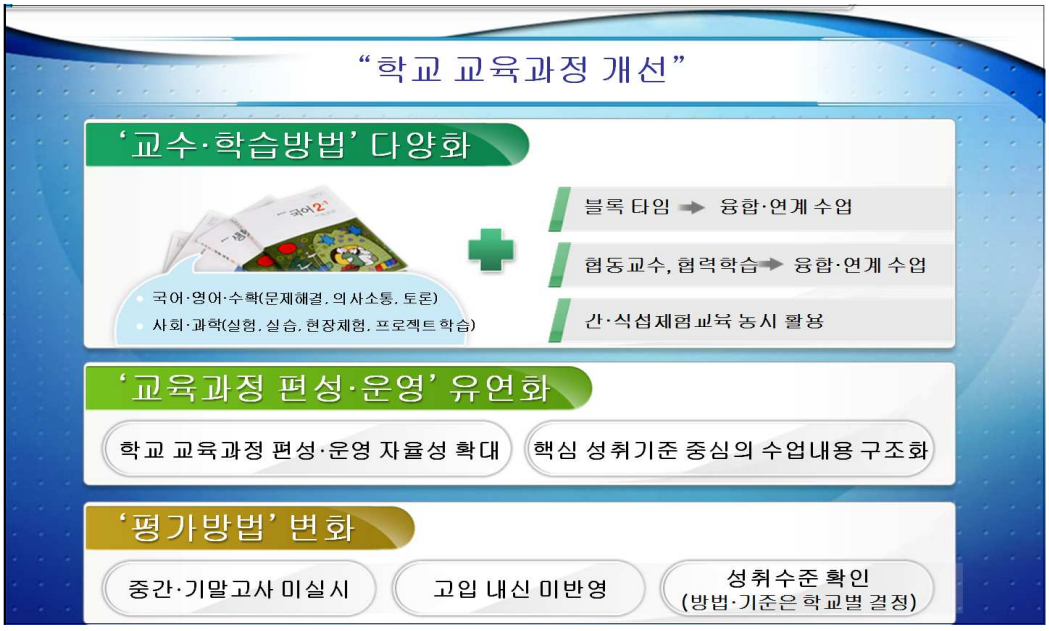
▷ 교육과정 : 핵심 성취기준 기반 수업

▷ 수업방법

- (국·영·수)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
- (사·과 등)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학습 등

▷ 토론, 실습, 프로젝트 방식 등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 방법 개발

▷ 평가는 지필고사 성적 대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과 도달한 정도를 서술형으로 기술



2)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참여와 활동 유도 교수-학습방법 지원 프로그램

○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26]> 이해와 실천

- 협동학습의 또 다른 심화 형태로 제안한 프로그램, 학생들의 표현 활동 강조
- 학습자의 배움 과정을 중시하는 장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함-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수업과 생활지도의 결합 모색
- 교과별 평가 방법의 변화 모색

○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 학습> 이해와 실천

- 블록타임 및 교과 간 융합 수업으로 프로젝트 수업 방법 모색
- 교과별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과내 진로통합 프로그램 운영
-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 : 예시) 4개 교과 통합 뮤지컬 만들기
-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 및 수업 혁신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확장

3) 지원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학교 적용 시 예상 효과

과정	지원 프로그램	특징	예상 효과
기본 교과 : 학교 교육 과정 개선 - 교수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수업** 이해와 실천	· 체험, 참여와 활동 유도 : 토론, 구성원 간의 대화와 만남 중시 · 참여·활동·협동 중심의 학습으로 교우관계 개선	· 수업참여도, 흥미, 집중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학습능률 제고 · 동료와의 성장을 중시하여 수업의 전문성 확보 및 교사 자존감 향상 · 수업 중심 학교문화 형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수업이 치유(治癒)라는 관점 : 대화적 실천 강조, 심층적인 학생이해 가능 · 수업의 활동적 참여로 행복한 학생, 행복한 교사 지향 ⇒ 참여형 수업으로 수업력 제고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한	· 학생 참여형 수업방법 접근으로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간 융복합 수업 실천 · 토론, 의사소통,	· 즐겁게 함께 공부하는 학습문화 형성 · 프로젝트학습 등 수업 방식을 자기 주도적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 · 창의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 학습역량 신장

26) 기존 협력(모둠) 학습의 심화된 형태로 수업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로 보고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학생의 배움 과정 중시, 교사 일상수업의 자발적 공개, 수업연구 동아리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2013년 7월 현재 대구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교육청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업 이해에 대한 설명은'안내 자료집'참조

- 에듀니티 온라인 연수 : 교육청 지원으로 약 1,200명 이수, 심화연수 이수 : 약 400명
- 컨설턴트 양성과정 : 현재 40여 명 3차 심화교육 완료
- 학교 수업 혁신 지원 : A형(학교전체 3,500만 원) B형(학년단위 1,500만 원) => 46개 학교 지원
- 교육청 산하 초,중,고 수업연구회 각 1,000만 원 예산 지원
  => 교육청은 지원, 인프라 제공의 역할, 연수 기획 및 참여는 교사들 자발적으로 실시

과정	지원 프로그램	특징	예상 효과
학습 방법	협력 **프로젝트 학습** 이해와 실천	문제해결 등 학생 주도의 수업 활성화 · 실험, 실습, 체험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탐구와 사고중심의 수업 강화 · 협동 교수-협력 학습 강화	· 비정형적 과제로 진행하는 수행평가 활동과 서술형 평가는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 신뢰 회복 · 창의인성 수업 모델(교과교실제 활용 블록타임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성취평가제)과 새로운 입시제도(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사정관제) 요구에 부응 ·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으로 전환 가능 ⇒ 자기주도 학습 능력

나. 학생의 희망과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율과정 -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1) 오후 자율과정은 학교별로 진로탐색, 예술 · 체육, 학생 선택프로그램, 동아리 중점 모형 중 1개 모형을 선택하거나 여러 모형을 혼합해 운영함. 본 제안은 학생 선택 프로그램 모형 (※ 자율과정 : 학생선택, 동아리, 진로탐색 중점모형과 혼합 가능)

▷ 학생 스스로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찾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학생 수요 기반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 확대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 지원 프로그램

► **인성교육 프로그램**

○ 학교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감적 대화>의 이해와 실천
- 공감적 대화를 위한 '이럴 때 이렇게 대화해요' 매뉴얼 제공
-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 처벌이 아닌 공감적 생활지도 모색
- 공동체 구성원이 소통, 존중, 배려 등 학교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감적 생활 지도의 이해와 실천

○ 학교 독서문화 재구축을 위한 열 사람이 한 권의 책, <독·토·논 활동>
- 교과 및 진로와 연계한 독서로 독서에 대한 재인식
- 학교 독서문화 재구축을 위한 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는 독서활동 매뉴얼 제공

►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제안**

○ 진로 중심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진로교육> 내실화

- 진로교육 차시별 매뉴얼 제공
- 교과와 연계 통합한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성취지표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교과 통합 진로교육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와 교육기부자들을 통해 배우는 멘토 체험 교육 시스템 구축 활용

○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셀프 리더십> 교육

-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매뉴얼 제공

○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교육>

-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교육 적용 프로그램
- 미래교육은 창의성을 기르고, 타인과 협력하는 인성교육
- 급변하는 삶에 대한 예측, 준비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핵심역량 강화

3) 지원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학교 적용 시 예상 효과

과정	지원 프로그램	특징	예상 효과
자율 과정 - 학생 흥미 관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학교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감적 대화 학교실천 (이럴 땐 이렇게 대화해요)	·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로 행복학교 구현	· 가족, 학교 인성교육 확대와 대화의 장 마련 · 교육공동체 이해와 소통으로 제반 학교 문제 감소 기대 · 가족, 학교 인성교육 확대와 대화의 장 마련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
	학교 독서문화 재구축을 위한 열 사람이 한 권의 책 <독·토·논 활동>	· 독서가 갖는 다양한 역할 (인성, 자기주도학습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로 창의인재 육성	· 실질적인 학교독서문화 재구축 방안 필요 - 연계 독서 · 학교에서 실질적인 독서기회 제공 및 연계 독서 강화로 독서 공동체 문화 구축 · 학생의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 효과로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
	진로 중심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진로교육 내실화>	· 자기 이해 및 진로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학습 동기를 찾아 학업에 매진하는 계기 마련 · 교과 외 지역사회 멘토 교육을 통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 창의체험 활성화를 통한 진로중심 학교문화 형성 · 진로체험 기회가 일회성, 단발성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용 · 진로역량 개발을 통해 자아정체감 및 진로 효능감 확보로 진로 설계 및 결정의 자기주도성 강화 · 교과 외 지역사회 멘토 교육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과 간접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진로의 설계

과정	지원 프로그램	특징	예상 효과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셀프리더십> 교육	·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 발현,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 대응 능력 향상	· 도전에 대한 응전의 주체로 자아 성장 도모 ·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신장으로 자아 존중감 및 진로 의식 향상 · 학생회 간부 중심의 소수 교육에서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교육>	· 미래역량 강화로 개인의 정체성 확립, 적성 및 소질 탐색 · 진로 직업 세계로의 접근을 위한 미래의 눈, 세계의 눈으로 새로운 비전 제공 · 교과 외 지역사회 멘토 교육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과 간접 경험	·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 :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고민의 시간과 계기 부족 · 급변하는 삶에 대한 예측, 준비로 진로 역량 강화 ·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이해로 자신의 역할 재정립 및 적응을 위한 개별적 재능과 관심 찾기 · 미래지향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

Ⅲ 제안 프로그램 학교 활용 방안

자유학기제 중학교 도입 일정에 따라 희망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제안 프로그램의 특징

가.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자발성과 헌신을 기반으로 함
나. 학교구성원이 미래사회의 변화와 준비를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다. 교육본질 추구, 학교 교육력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만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시함
라. 학생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자기주도적 참여형 수업으로 협동수업, 조사 관찰의 프로젝트학습 활성화
마. 인성 및 미래 역량 교육 강화, 적성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을 통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

2. 교육과정 편성

가. 핵심 역량 공통 교육과정 편성
나. 자율과정에 <셀프 리더십>, <미래교육>, <독·토·논 활동>, <공감적 대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다.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 진로학습→진로상담검사→진로체험→진로탐색 포트폴리오 구성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

❑ 창의적 체험활동 반영 : 교과 이외의 많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시간 배정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음,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등 계기교육으로 인해 여건이 힘든 경우 있음

❑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적용 : 중학교의 경우 교과군별 수업시수 20% 증감 운영

- 기존의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과에서 개발해야 할 핵심역량[27]을 함양하는 방안으로 각 교과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함
- 교과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식의 변화(성취평가제 적극 활용)를 통해 학문 중심의 교사 주도적 교수보다는 역량 중심의 학생 학습에 초점을 둠
- 자유학기제 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구현해야 할 미래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해당 교과 교육과정에 이들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28]

(인천시교육청 2013년 5월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워크숍 교재에서)

3. 교수 - 학습 방법

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을 위한 협력프로젝트 학습방법 적용

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의 활용

다. 기본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참여 및 활동 중심 학습방법 적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협력프로젝트학습>, 특히, 국/사/과 과목 <독·토·논 활동> 등을 적용

라. 교과통합형 융합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계획 수립

27) 이근호 등은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연구(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2)에서 각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핵심역량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교과별 중점 역량 요소	해당 특색 프로그램의 관련 핵심역량 2013 교육정책자문위 제안 프로그램(예시)
국어	**의사소통능력, 기초학습능력**, **비판적 사고력**	배움 중심 수업실천, 협력 프로젝트학습, 독·토·논 교육
도덕	도덕적 역량, **자아정체성, 개인적 사회적 책무성**	배움 중심 수업실천, 미래교육
사회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개인적 사회적 책무성	배움 중심 수업실천, 협력 프로젝트학습, 독·토·논 교육
수학	**문제해결능력**,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움 중심 수업실천, 협력 프로젝트학습,
과학	**문제해결능력**, 비판적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움 중심 수업실천, 협력 프로젝트학습,
실과	**진로개발능력**, 정보활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진로교육, 미래교육, 셀프리더십 교육
체육	건강 및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발달, 시민성(지역/글로벌)**	셀프리더십 교육
음악	창의력, 자아정체성, 심미적 감수성	
미술	창의력, 자아정체성, 심미적 감수성	
영어	**의사소통능력**, 시민성(지역/글로벌), **기초학습능력**	배움 중심 수업 실천, 협력 프로젝트학습,

학교급별 교육과정 구성은 중학교의 경우 공통역량 중심으로, 각 교과 교육과정을 핵심 필수 내용 중심으로 정선 재조직함으로써 교과 내용의 양을 감축하고 동시에 교과활동에 경험과 맥락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

28) 2013.5.11 인천시교육청 교육과정 컨설팅지원단 워크숍 자료(72,73쪽)

4. 희망과 수요를 기반으로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꿈과 끼를 키우기

- 학교별로 진로탐색, 예술·체육, 학생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중점 모형 중 1개 모형을 선택하거나 여러 모형을 혼합해 운영 가능

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 학교 의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감적 대화>의 이해와 실천

○ 학교 독서문화 재구축을 위한 열 사람이 한 권의 책으로 <독·토·논 활동>

- 교과 및 진로와 연계한 독서로 독서활동 내실화 및 인성, 창의성 함양

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제안

○ 진로 중심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진로교육> 내실화

- 교과와 연계 통합한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성취지표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교과 통합 진로교육 운영 활성화

○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셀프 리더십> 교육

○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교육>으로 창의성을 기르고, 타인과 협력하는 인성교육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핵심역량 강화

5. 프로그램 운영 방안(예시)

□ 방안 1 : 『기초 진로 집중과정』 운영

1) 필요성 : 자신의 특기적성을 살린 다양한 분야(예술, 예능, 체육, 기능 등)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 대상 : 희망 학생

3) 운영 방법

가) 필수 기본 교과 : 주당 19~22시간

나) 자율과정 :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예술, 체육, 교양 과목군에 교육과정 편성 확대 및 학생 선택권 보장

다) 진로역량 개방 선택 과목군 운영(개방 선택과목군에 관련 프로그램의 핵심역량반영)

○ 기초 예술 진로 집중 과정 : 보통 교과 + 예술계열 전문 교과

○ 기초 체육 진로 집중 과정 : 보통 교과 + 체육계열 전문 교과

○ 기초 직업 진로 집중 과정 : 보통 교과(생활·교양 교과군 집중 편성)

라) 『기초 진로 집중과정』 운영에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 주기 위한 교육내용 지원 프로그램 반영 : 진로교육, 셀프리더십, 미래교육, 독토논 활동 등

□ 방안 2 : 『내 꿈 찾는』 프로그램 운영

1) 필요성 : 학력 관리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우수학생과 부진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력 강화의 중심축은 가장 학생이 많은 중간 등급 학생들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2) 운영 목적 : 다이아몬드형 학력 구조에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간 등급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존감 향상을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연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역량 강화 달성
3) 중간 등급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여 주며,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 학교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감적 대화' 실천
 나) 학교 독서문화 재구축을 위한 열 사람이 한 권의 책, '독토논 활동'
 다) 진로 중심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라) 의사결정 능력 신장을 위한 '셀프 리더십'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마) 미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4) 지원 방법
 가) 기존의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과에서 개발해야 할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안으로 각 교과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함
 나) 중간 등급 학생들에 대한 집중 성적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다) 창의적 체험활동 발표 기회 확대 및 진로교육 센터를 통한 집중 프로그램 활용 방안 마련

IV 프로그램 적용 시 유의점

1.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참여 및 활동 중심 학습 방법을 더욱 강화하여 이를 중심축에 두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 활동을 모색함으로써 초중고 연계 가능한 교실수업개선 및 학교 교육과정 개선 유도
 가. 수업내용에 적합하게 학생 집단을 유연하게 구성하기
  -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융합적 학습과제 제시로 다양한 학습 집단 구성하기
 나. 통합교육팀을 운영하여 융합형 창의 인재 육성하기(수업동아리를 활용 다양한 교과 교사의 협업 프로젝트 학습 전개)
 다. 학생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적용하기
  - 학생들이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자신들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
 라.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이외의 장소를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과 연계시키는 교육활동 전개
 마. 협동학습을 통한 프로젝트 학습 강화와 ICT 활용 교육 접목

2. 추진 주체의 자발성 확보를 위해 맞춤식 교사, 학부모 연수 지원, 범교과 운영 동아리 혹은 학교 내 작은 학교(small school)[29]운영으로 추진
3. 추진 방향은 수업 중심 학교 문화 형성으로 교사 자긍심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변화가 학생과 교사를 변화시키고 자유학기제 운영 취지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출발
4.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 자발적인 교사 동아리 형성,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교수-학습 방법 프로그램은 단위학교의 통합교과 수업연구회 조직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활동 전 방위적으로 지원 추진
6. 교수-학습 내용 프로그램 매뉴얼의 내용은 학교급의 특성, 학교의 실태를 고려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적용
7. 자율 과정 시간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처리 방안
   가. 관련 교과 교육과정 내 핵심 역량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탄력적 운영
   나. 가칭 '꿈과 끼 영역'(기초 진로 집중영역)으로 개설하여 학생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적용하기

V 기대 효과

1. 자유학기제를 뒷받침 할 구체적 교육방법, 교육내용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사의 부담 경감
2. 자유학기제 현장착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도 역할 수행
3. 자유학기제 정착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견인하는 계기 제공

29) EBS 교육프로그램(2013.7.15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스몰 스쿨)에 소개된 내용으로 학교운영의 자발성을 이끌기 위한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운영'을 말함. 이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교사를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학년 단위(초등학교의 경우 2개 학년을 묶는 경우도 있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말함. 작은 학교(학년)가 추진주체가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 집행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

사례발표1

자유학기제 현장에서 전하는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이야기[30]

표 혜 영
(부평동중교감)

I 들어가는 말

자유학기제가 구체적인 교육과정 실체로서 가동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연구학교 지정 전·후 수개월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벌였던 격론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동안 느꼈던 모호함이나 불안감은 이제 상당 부분 걷혀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당시 '자유'라는 용어가 주는 막막함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적 칭찬을 받지 못했던 역대 교육정책들로 비추어볼 때 그다지 새로울 것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초 곽병선 박사의,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 방향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글을, 아프게 읽었습니다. 오래 묵어온 고질적인 교육체질을 교원 개인이 어찌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장차 자신이 투신할 만한 일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찾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의지와 꿈을 갖는 학생들'로 키우는 일에는 미미하게나마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울림이 컸고, 희망을 걸어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교육과정을 짜야, '어떠한 미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 즉 상황주도력을 가진 자유인'을 구현할 수 있을까, 제시된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교육과정 실체로,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핵심이자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지니는 교육가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을 투입했을 때 예상되는 아이들의 반응, 교수-학습의 결과로 기대되는 행동의 변화 등을 상정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애썼습니다. 이제 겨우 몇 발짝 뗀 데 불과합니다. 턱없이 이른 감이 있고 피상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출발 전 많은 이들의 우려에 비해 혼란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밖

30) 본고는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2013.9.26.)에서 토론원고로 게재되었던 필자의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에 관한 토론문'의 일부로서, 사례발표에 맞게 재구성· 보완한 것임

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아직은 상당부분 존재하며 이를 감수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일원으로서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구성 ·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2013.5.28.)'에 비추어 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한계와 보완점을 그간의 교육적 경험에 근거하여 살펴봄과 아울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타개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Ⅱ 자유학기제 안과 밖, 그 불편한 속내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자유학기제 안과 밖의 감지되는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이란 물론, 연구학교 실행 주체, '밖'은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비롯하여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교육계 안팎 일반을 지칭합니다. 왜 굳이 안과 밖으로 경계지어 논의를 시작하는가. 이미 '실행' 단계로 돌입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논의에서 무엇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연구학교 추진 당사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42개 연구학교의 목소리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밖에서 가늠하는 자유학기제와 안에서 체감하는 그것은 많이 다르기 십상입니다. 출발 전의 난상토론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부분 시행하고 있고 201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풍문으로 들려오는 자유학기제' 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다듬고 보완해가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몇 차례의 시행착오와 거듭되는 보완 끝에 탄생된 우리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편성과정에 들인 수고와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학생들로부터의 반응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학교 축에 속합니다. 학생들은 1학기보다 한층 활기를 보이고 있고 학부모들은 공부습관의 단절,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진 못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투입 후 자녀가 보이는 반응에 따른 신뢰감을 표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기존업무에 고스란히 보태진 자유학기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의 위태위태한 접점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이 뒤따르겠지만 특히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에서 감지되는 '밖'의 분위기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성을 담보할 순 없겠으나 대체로 두 흐름으로 갈립니다. 모두 자유학기제 도입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조하거나 무관심한 분위기, 다른 하나는 '전면 시행까지는 어렵고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 혹은 '곧 거둬들이거나 대폭 축소 운영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

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요는 자유학기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사 업무가중 측면을 배제하고 본다면 밖의 우려보다 안은 훨씬 '낙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며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되 기왕이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자유학기제가 되기 위해 무엇을 더 채우고 덜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가야 합니다.

Ⅲ 자유학기 교육과정, 외형적 모형보다 내용에 밴 본질 보아

교육부 발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으로 진로탐색 중점 모형,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형 분류 상의 오류31)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지적이 있어왔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얼개를 짜고 실질적인 내부 논의가 거듭되는 과정 어디쯤에선가부터, 제시된 자율과정의 네 가지 모형이 잊혀졌음을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외형적인 모형은 지엽적인 것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시간표 구성, 교실 및 운동장 등의 물리적 여건과 교사와 외부강사 등 인적자원 여건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맞물리는 일은 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만만치 않은 공동작업이었습니다. 하나의 단위학교에 두 개의 교육과정이 기찻길처럼 나란히 공존하며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이 전·후로 매끄럽게 연동되며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은, '연구학교 운영 영역을 교실수업 개선과 진로·인성교육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큰 틀에서 본다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의 모든 시간이 목적에 충실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의 전

31) '황규호 박사(한국교육과정학회장)가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발제문,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에서 지적한 '범주의 오류'를 일컫는 것으로 진로탐색 활동과 예술· 체육활동은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학습 경험의 영역을 지칭하고 동아리활동은 프로그램 운영의 시간을 지칭하고 있으며, 자율선택활동은 학생의 선택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을 명시해 주고 있어 병렬적 관계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환은 자유학기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 위주의 주입식 수업에 마지못해 앉아 있으면서 오후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 아니라, 오전의 기본교과 수업과 오후의 자율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라야 합니다. 자율과정을 통해 발현된 개개인의 생산적인 역동이 활동 중심 교과수업에 탄력을 주고 교과수업을 통해 얻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율과정을 고무시킬 수 있게 작용해야 하며 이것이 축적되면서 선순환의 효용이 커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교실수업 개선과 자율과정은 이런 의미에서 '동시에' '같이' 가야(강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젝트학습, 토론학습 등 활동중심 참여형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그 필요성을 수긍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학기제는,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접은 아이들, 발표를 싫어하고 자기표현을 꺼리는 자존감 낮은 아이들에 투영된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나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방향성을 잃은 아이들이 자유학기 운영 모형에서 공통으로 진로교육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로교육은, 예술·체육교육 및 선택프로그램과 나란히 나열해 놓고 중점을 더 두고 덜 두고 할 성격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격적 발달 과정에서 교육적 책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가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교육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도 광의의 진로교육 범주에 포함됨을 고려하면 자율과정에서 진로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체계를 가지고 이수하도록 기준시수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진로·인성은 공통으로 하되 선택 프로그램은 각자의 트랙대로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굳이 '모형'이란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수요자 입장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율과정 시수마련 문제를 교과교사들의 '양해'에 의해 십시일반 덜어내기 식으로 모아진 형태, 혹은 창의적체험활동 집중이수 형태로 풀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현행 평가시스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학부모의 학력저하에 대한 뿌리깊은 불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32)주지교과의 정해진 시수를 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자유학기에 33)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엄연한 존재 이유를 생각할 때, 교과수업에서 흡족히 충족되기 어려운 진로·인성교육활동, 체험활동은 일반학기에도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자의 권리입니다. 자유학기로 인해 자유학기 전·후의 교육과정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선택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

32) 본고에서는 편의상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교과로 한정함(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33) 3개년 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306시간 중 대부분을 자유학기에 집중 편성하는 경우를 말함

로그램 중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에 근거한 창의적 진로개발 수업은 현재의 인적자원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안되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자율 프로그램들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공작, 요리, 스포츠, 국악, 밴드, 디자인, 무용, 역사탐구, 천체관측 등) 외 전문성이 따라야 하는 것(사진, 애니메이션, 패션, 마술, 모의창업, 미디어와 통신 등)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전면 시행 시 비전문가인 교사가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교육기부 풍토를 주도하여 이전보다 형편이 좋아지고 있지만 기업과 공기관의 더 적극적인 참여와 범국가적인 교육기부 인력의 구축 등 2016년 전체수요를 염두에 둔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구 목적 상 연구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만 지나친 개방성으로 인해 본질이 흐려지거나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2014년 희망학교 확대 시 교육혁신의 기제로서 기능할 얼마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Ⅳ 자유학기제와 수업 혁신, 그 필연성에 대하여

수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논의(평가와 입시제도 등)가 필요하겠지만 본 장에서는 수업의 질적 혁신으로 범위를 좁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원이라면 누구나 일반 교육과정으로 복귀한 후 아이들에게 나타날 여러 양상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부터의 과감한 변형을 시도한 학교일수록 그 정도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12~14시간의 자율과정이 3시간 정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시 축소되는 그 자체로도 별도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수업마저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꼼짝없이 앉아 듣기만 해야 하는 수업으로 되돌아갔을 때 나타날 부정적인 행동 양상에 대해 예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자유학기제가 수업의 혁신을 견인할 것이고 반드시 견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는 것입니다. 수업 혁신에의 요구는 비단 자유학기제 학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전체 학년에 파급되어 향후 모두가 수용해야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 혁신이 전 학년에 걸쳐 파급되어 자유학기 전·후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약하게 감지되긴 해도 수업 변화의 파장은 분명히 일고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표방한 창의·인성 요소의 구현 노력으로 수 년 전부터 이미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인성포럼, 창의경영학교, 혁신학교 등을 통한 움직임과 교과연구회 단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했으면' 이제 꽤 확산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지층이 두껍고 넓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

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 수업혁신의 전파력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인가. 자료의 부족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인성교육넷(http://www.crezone.net)에 탑재되어 있는 방대한 수업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끌어다 내 것으로 구조화 할 '여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방만한 행정업무 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정체성을 잃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위기의 현실로부터 교사들을 과감하게 탈출시키지 않는 한, 수업의 혁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뎌질 수 있습니다.

V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착근 위해

'덜어내고, 걷어내는' 정책적 혜안 있어야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과 눈맞춤 한 번 제대로 못해본 채 귀가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아침에 눈뜨면 가고 싶어지는' 곳일 리 없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교사들이 오롯이 수업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수업'에의 자발적 동기가 촉발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학습자로서 '좋은 수업'에 대한 욕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시대 흐름을 읽으며 타 교과와의 융합 가능한 주제를 추출하고 능동적으로 성취기준을 재정비하며 평가도구를 고민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관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정책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고 각각의 정책들이 물고 들어오는 업무들로 학교는 그야말로 포화상태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어야, 꼭 필요치 않은 물건을 버리듯 기존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본질에서 먼 것은 걷어내야, 비로소 분명한 희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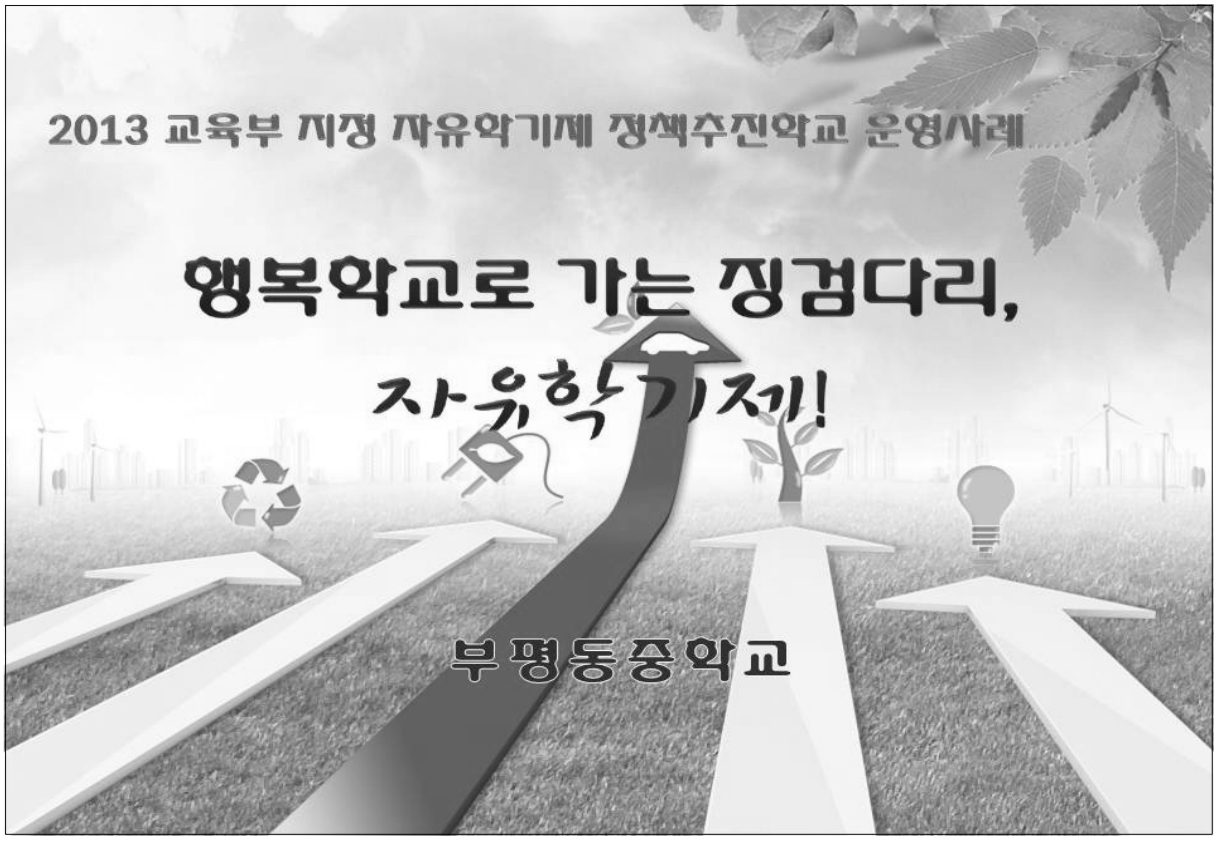
이즈음 시야에 들어온 『정리의 마법』 이란 책에 나온 글귀가 제 눈엔 자연스레 이렇게 바뀌어 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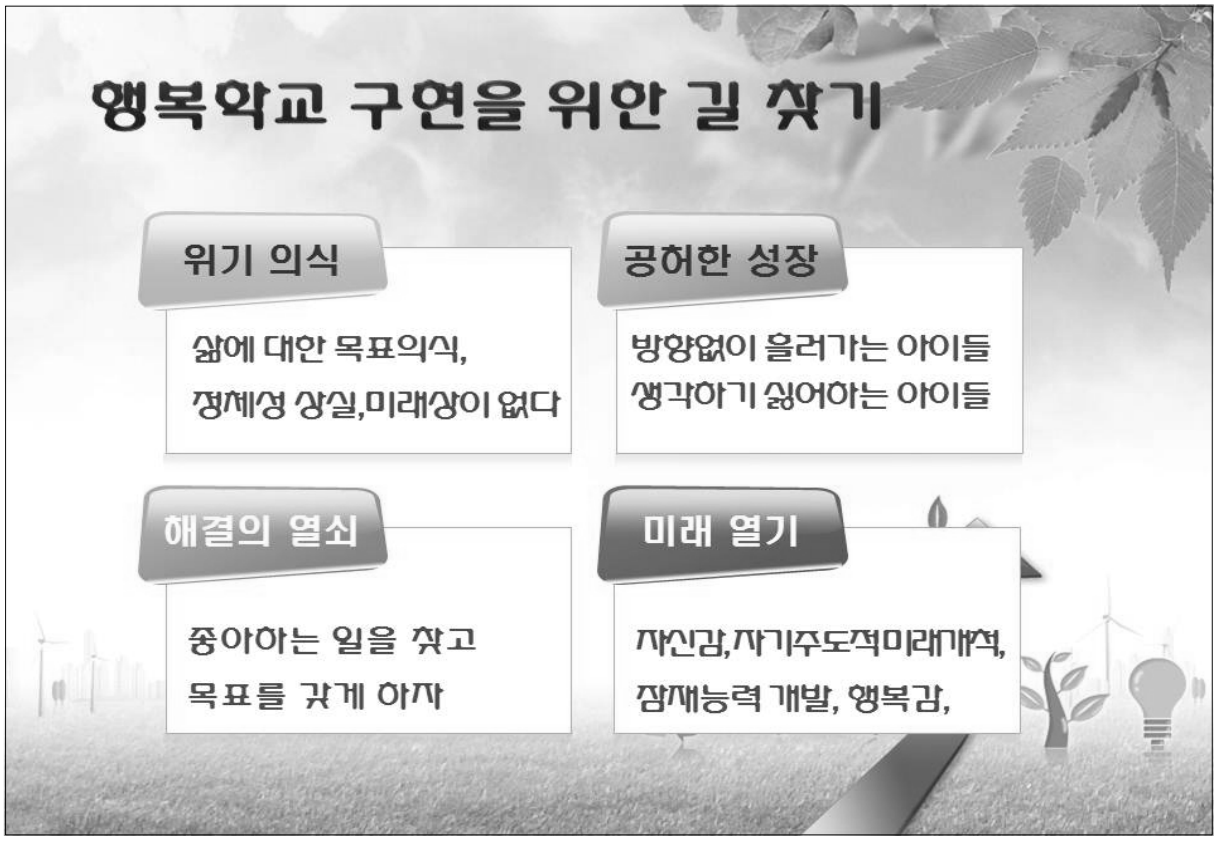
'울림 없는 물건(정책)은 모두 버려라.
진짜 인생(교육)은 정리한 뒤 시작된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혜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VI 부평동중 자유학기제 운영의 실제

- CHAMP 기반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미래개척 역량 강화 -




행복학교 구현을 위한 길 찾기
위기 의식
삶에 대한 목표의식,
정체성 상실,미래상이 없다
공허한 성장
방향없이 흘러가는 아이들
생각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해결의 열쇠
좋아하는 일을 찾고
목표를 갖게 하자
미래 열기
자신감,자기주도적미래개척,
잠재능력 개발, 행복감,

CHAMP 기반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미래개척 역량 강화

운영 목적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가는 사람

1. 창의성과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실수업 개선
2.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탐색 역량 강화
3. 자기성찰을 통한 자존감, 자신감 증진 및 더불어 사는 역량 강화
4. 잠재되어 있는 꿈과 끼를 키워주며 행복감 증진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학생자율선택 혼합모형
진로+문화예술 동아리+스포츠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국,수,사,과,영,도) 편성 (19시간)				
2					
3					
4					
5	창의적 진로개발활동 프로그램 (SCEP)	창의 공작, 창업가 정신 Wi-Fi 프로그램	마음 성찰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문화 예술 프로그램
6					
7					
	자율과정 주당 14시간				

교과별 수업 구성 현황

과목	본시수(변경전)		예정시수(변경후)
국어	5	-1	4
도덕	2	-1	1
사회	3		3
수학	4		4
과학	3		3
체육	3	-3	0
음악	1	-1	0
미술	2	-2	0
기술가정	2	-2	0
한문	1	-1	0
영어	4		4
창체	3	+11	14
합계	33	11	33

운영의 골격

자기 주도적 미래개척 역량 강화

으샤으샤.. 교실수업 개선
- 토론 학습 / 문제해결 학습
- 모둠협력학습 / 프로젝트학습
- 교과통합 진로교육

두근두근.. 미래 열음
-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 SCEP 모형 운영
- 기술공작 체험, 창의인재 양성
- '창업가 정신' 프로그램 운영

멈춰서서... 마음 성찰
-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 자신의 가치관 탐색하기
- 세계와 긍정적으로 관계 짓기
- 배려 · 협업 능력 키우기

콩닥콩닥.. 행복 채움
- 학생의 적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
- '꿈'과 '끼'의 행복한 학교 생활
- 체육활동의 다양화

요일별 창체활동 프로그램과 추진 분과

요일	활동 내용	추진 분과
월(3)	창의적 진로개발 워크북 활용 진로수업	미래열음
화(2)	창의 공작 : 건축학개론, 창의공작기계, 난타 타악과 퍼포먼스 창업가 정신 Wi-Fi : 모의 창업 활동	미래열음
수(2)	자아탐구, 힐링체험, 행복찾기, 자아발견	마음살핌
목(4)	스포츠활동 : 수영, 스키, 볼링, 티볼, 풋살리그, 베드민턴	행복채움
금(3)	자율선택활동 : 제과제빵, 바리스타, 수영, 만화애니메이션, 마술반, 뮤직클럽, 아트클럽, 방송댄스	행복채움

※ 1~4교시 창의적 교실수업 개선 : 교실수업개선 분과

운영과제 1. 창의력과 진로탐색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실수업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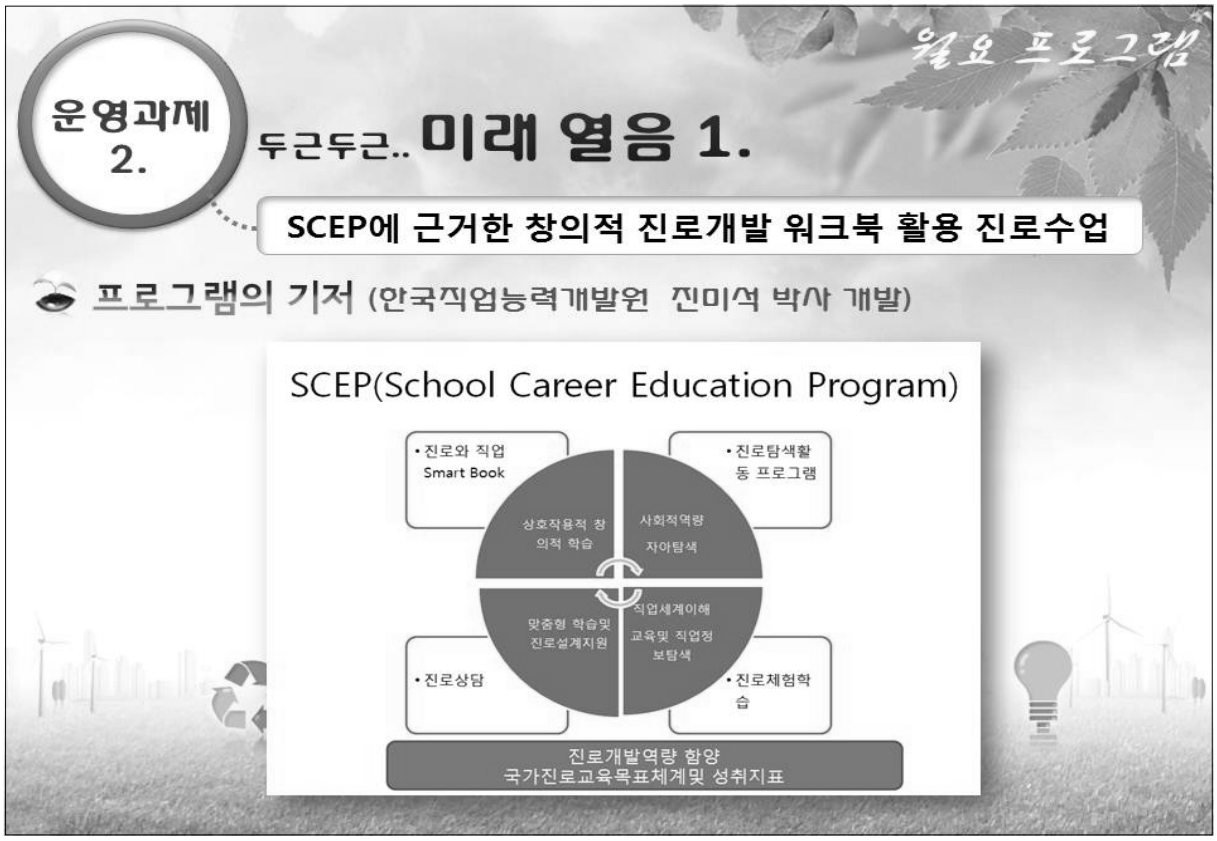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수업역량 강화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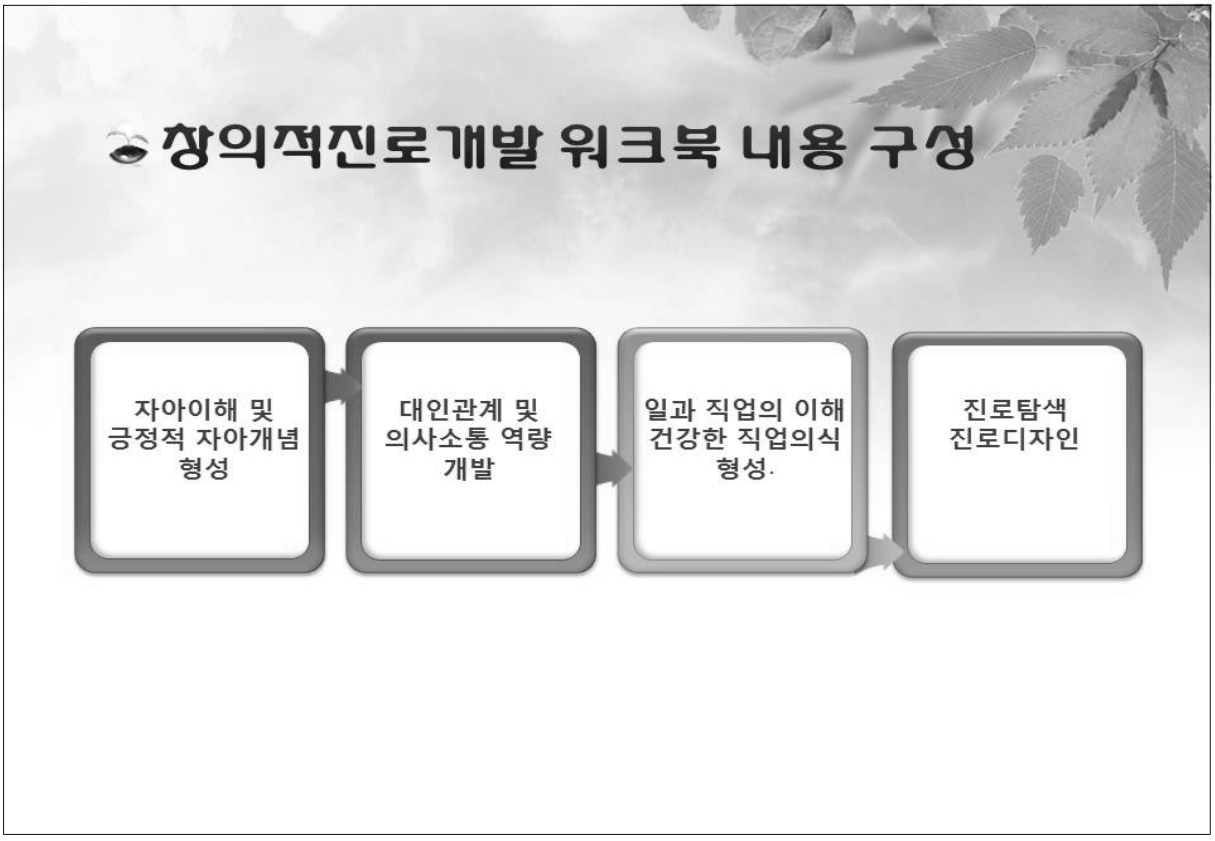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 추출

융합·통합 수업방안 협의 및 창의적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학생 중심 수업 활동

지속적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평가 · 환류


월요 프로그램
운영과제 2.
두근두근.. 미래 열음 1.
SCEP에 근거한 창의적 진로개발 워크북 활용 진로수업
프로그램의 기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박사 개발)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 진로와 직업 Smart Book
•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상호작용적 창의적 학습
사회적역량 자아탐색
직업세계이해 교육및 직업정보탐색
맞춤형 학습및 진로설계지원
• 진로상담
• 진로체험학습
진로개발역량 함양
국가진로교육목표체계및 성취지표


창의적진로개발 워크북 내용 구성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일과 직업의 이해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진로탐색 진로디자인

미래열음분과 1팀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 추진 일정

일자 / 구분	1주 8.26 (월)	2주 9.2 (월)	3주 9.9 (월)	4주 9.16 (월)	5주 9.23 (월)	6주 9.30 (월)	7주 10.7 (월)	8주 10.14 (월)	9주 10.21 (월)	10주 10.28 (월)	11주 11.4 (월)	12주 11.11 (월)	13주 11.18 (월)	14주 11.25 (월)	15주 12.2 (월)	16주 12.9 (월)	17주 12.16 (월)	18주 12.23 (월)	19주 12.30 (월)
주 제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일과 직업의 이해 및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
내 용	한 번 해 보자! 시간관리 방해요인 점검 나의 친구 관리	나의 건강관리 돈이란? 자출 기록장 기록하기	나의 건강관리 돈이란? 자출 기록장 기록하기	가을 소풍	적성과 흥미와의 관계 이해 다름에 대한 이해 나 전달법	상상 나무 그리기와 이야기 전달 나를 광고하기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나의 대인관계 능력 알아보기	직업체험 발표토론 나의 의사소통 방법 살펴보기	직업체험 발표토론 다양한 직업세계 알아보기	직업체험 발표토론 직업 고정관념 살펴보기 극복하기 직업관련 고정관념 극복하기	학급특색활동	직업체험 발표토론 직업이란? 아닐까? 직업 변화 탐구	지금은 사라진 직업들 새로 등장한 직업 찾기	직업 윤리 생각하기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자식 경제적 독립	공부 방법 진단 검사 공부 방법 문 점검하기 공부 방법 문 잡기	자주사회 진로교육 자원 찾기 신생 및 유망직업 찾아보기 새로운 직업 마주치기 체험	흥미로운 직업 마주치기 체험 창업 이야기 미디어 체험 배우는 즐거움	고등학교 유형 및 특성 찾기 고교 선택 시 생각할 일들	진로 의사결정 고정관념 알아보기 기고 싶은 고등학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연계기관 및 기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활동자료	SCEP 창의적 진로개발자료 (교육부, 직능원)				SCEP 창의적 진로개발자료 (교육부, 직능원)							SCEP 창의적 진로개발자료 (교육부, 직능원)							
활동장소	교실	교실 (전산실)	교실 (전산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예상 소요비용	● 책자 제작비 7,000원×200부=1,400,000원				● 전문가 초청 특강(교사 전문성 신장) 200,000원×2회=400,000원							● 교내 행사 추진 및 시상비 200,000원×2회=400,000원 ● 직업인 초청 특강 200,000원×10명=2,000,000원 50,000원×10명=500,000원							
지도교사 (6명)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1_오희용 2_구희숙 3_정은효 4_김미희 5_이지원 6_김은경
총괄교사	오정인	오정인	오정인		오정인	오정인	오정인	오정인	오정인	오정인		오정인	윤영희	윤영희	오정인	윤영희	윤영희	윤영희	윤영희

화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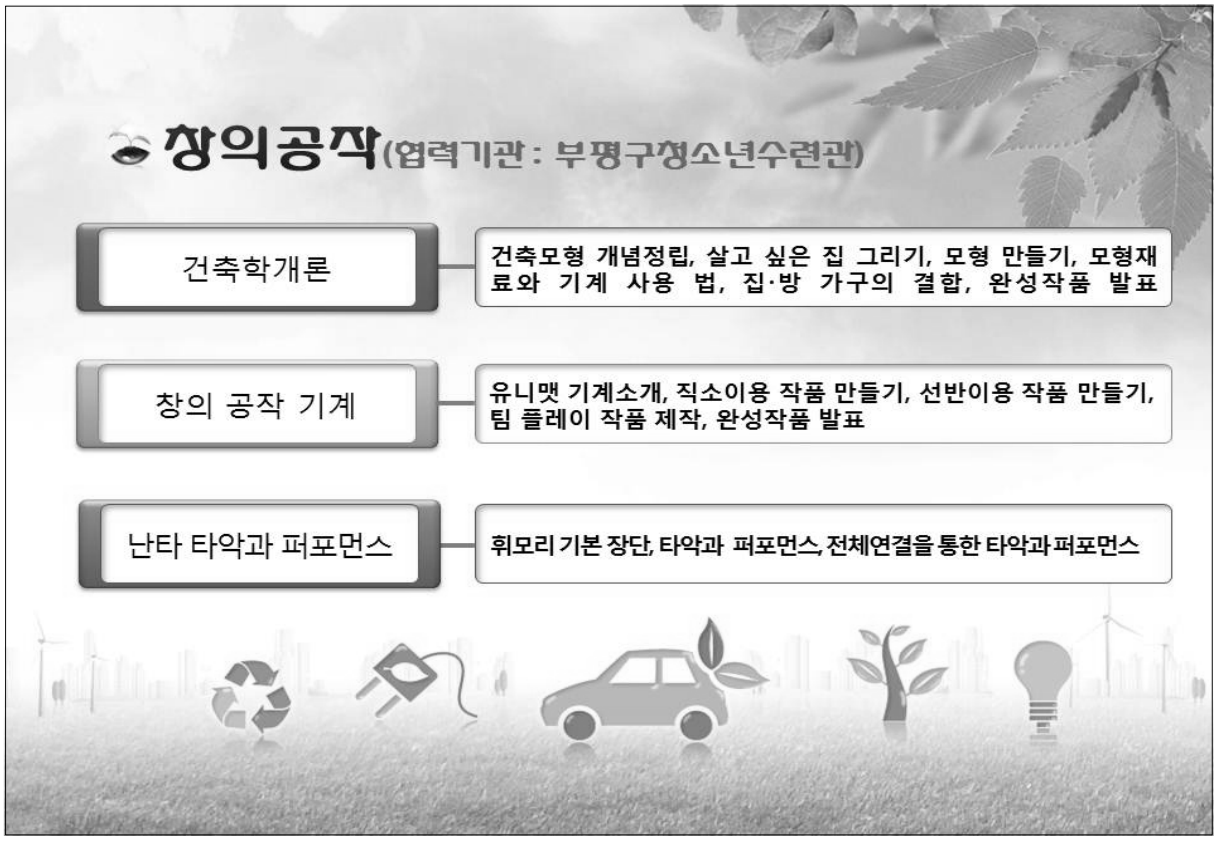
운영과제 2.

두근두근.. 미래 열음 2.

자율선택 진로 체험 프로그램

협력 자문 기관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캠퍼스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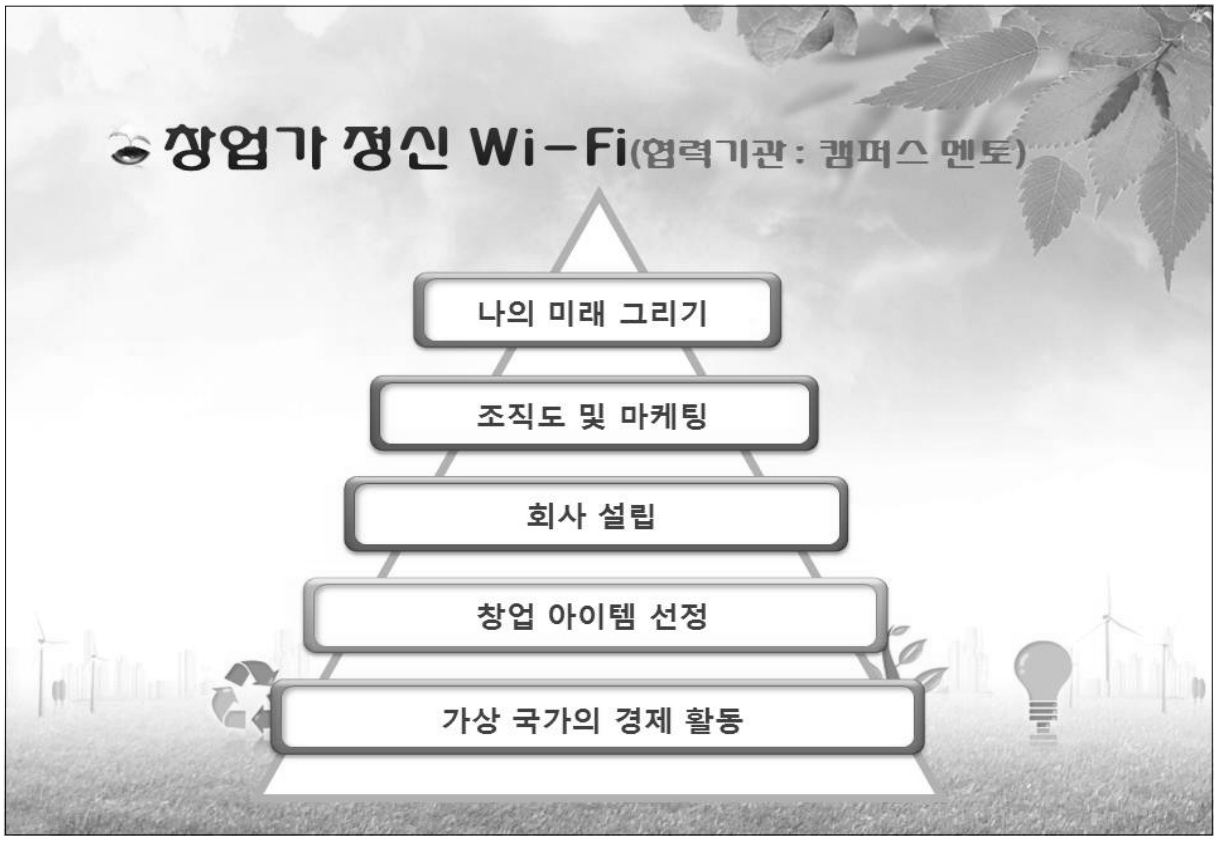
- 창의 공작과 창업가 정신 Wi-Fi
  - 창의 공작
    - 건축학 개론 — 20명
    - 창의공작 기계 — 20명
    - 난타 타악과 퍼포먼스 — 25명
  - 창업가 정신 Wi-Fi
    - 아이스브레이크→가상 국가의 경제 활동 → 창업 아이템 선정 → 회사 설립 → 사업 계획서 수립 → 마케팅 → 나의 미래 그리기 — 130명



미래열음분과 2팀 '자율선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창업가 정신 Wi-Fi' 추진 일정표

구분 \ 일자	1주 8.20(화)	2주 8.27(화)	3주 9.3(화)	4주 9.10(화)	5주 9.17(화)	6주 9.24(화)	7주 10.1(화)	8주 10.8(화)	9주 10.15(화)	10주 10.22(화)	11주 10.29(화)	12주 11.5(화)	13주 11.12(화)	14주 11.19(화)	15주 11.26(화)	16주 12.3(화)	17주 12.10(화)	18주 12.17(화)	19주 12.24(화)
주제 및 내용	오리엔테이션	건축학 개론						직업체험활동	진로동아리활동	직업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	건축학 개론							평가회
		건축모형 개념정립	비율, 스케일 비교1	스케일 비교2, 세계 건축물 알아보기	살고 싶은집 그리기	살고 싶은 방, 가구 그리기	살고싶은 집 모형 만들기1					살고싶은 집 모형 만들기2	나의 집 소개하기	모형재료와 기계 사용법	방과 가구 모형 만들기1	방과 가구 모형 만들기2	집과, 방, 가구의 결합	완성작품 발표	
		창의 공작 기계										창의 공작 기계 교육							
		유니맷 기계소개	직소사용 교육	직소이용 작품 만들기1	직소이용 작품 만들기2	직소이용 작품 만들기3	선반사용 교육					선반이용 작품 만들기1	선반이용 작품 만들기2	직소, 선반 이용 작품제작	팀구성, 팀 플레이 작품구상	팀플레이 작품제작 1	팀플레이 작품제작 2	완성작품 발표	
		난타 타악과 퍼포먼스										난타 타악과 퍼포먼스							
		난타소개	스틱 잡는 법, 손목 스냅연습, 장단 따라 익히기	바, 쿵을 번갈아가며 일정한 속도유지	액센트 변화주기 조별연습	액센트 변화주기 조별연습	휘모리 기본장단 조별연습					휘모리 기본장단 조별연습	휘모리 기본 장단과 퍼포먼스 조별연습	음원에 맞춰 타악 익히기	음원에 맞춘 타악과 퍼포먼스	휘모리장단연결, 타악과 퍼포먼스	전체연결을 통한 타악과 퍼포먼스	최종연습	
연계기관 및 기업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032-500-2200)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활동장소	교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창의공작플라자(110분 수업)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창의공작플라자(110분 수업)							교실
예상 소요비용	강사비 및 재료비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지원											강사비 및 재료비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지원 교내 행사 추진 및 시상비 200,000원							
지도교사 (2명)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오태용 임재택
총괄교사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유연미

전문가 강사약력	건축학개론 - 박소영	인하대학교 건축공학 전공 갈산도서관 건축학 개론 강사 역임	창의공작기계 - 김지숙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 전공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유니맷 공작기계 교육 담당	타악과 퍼포먼스 - 김명주	이화여대 한국무용전공 난타 퍼포먼스 공연다수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난타 전문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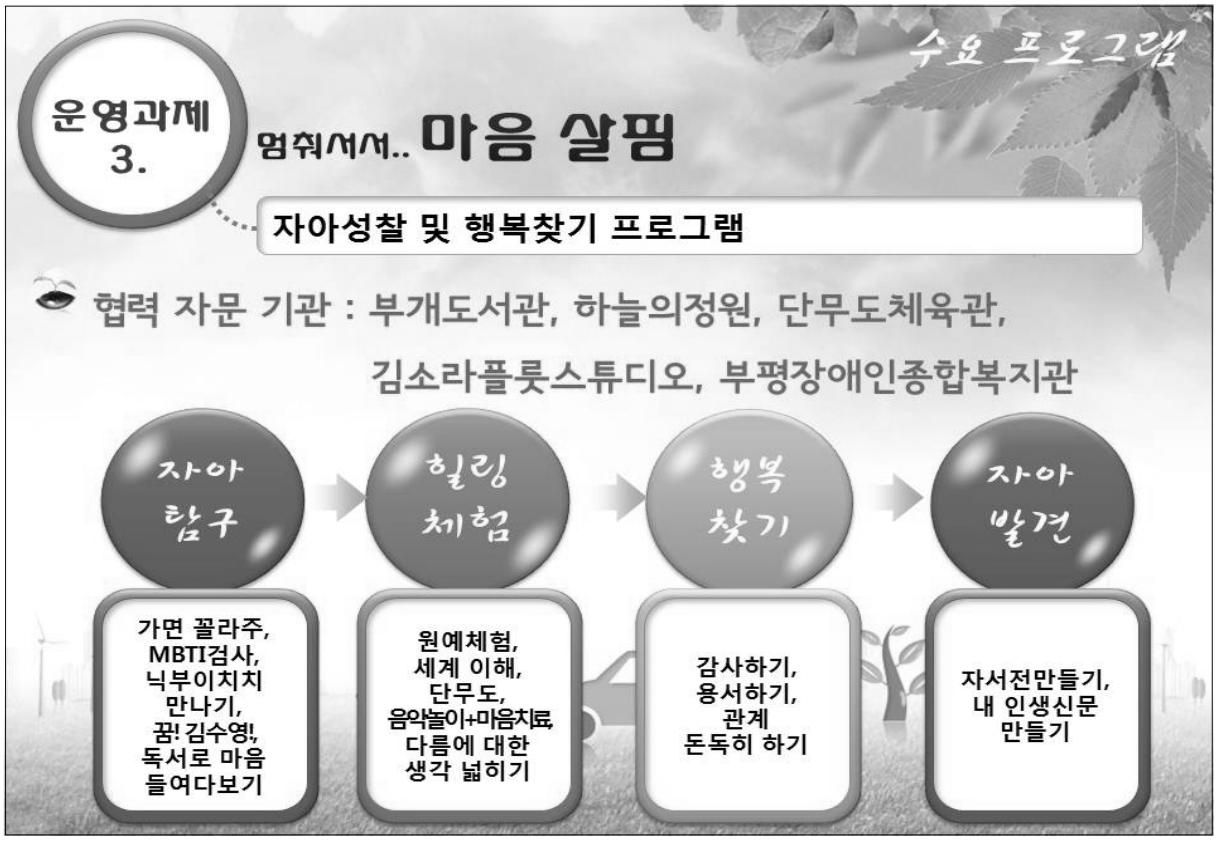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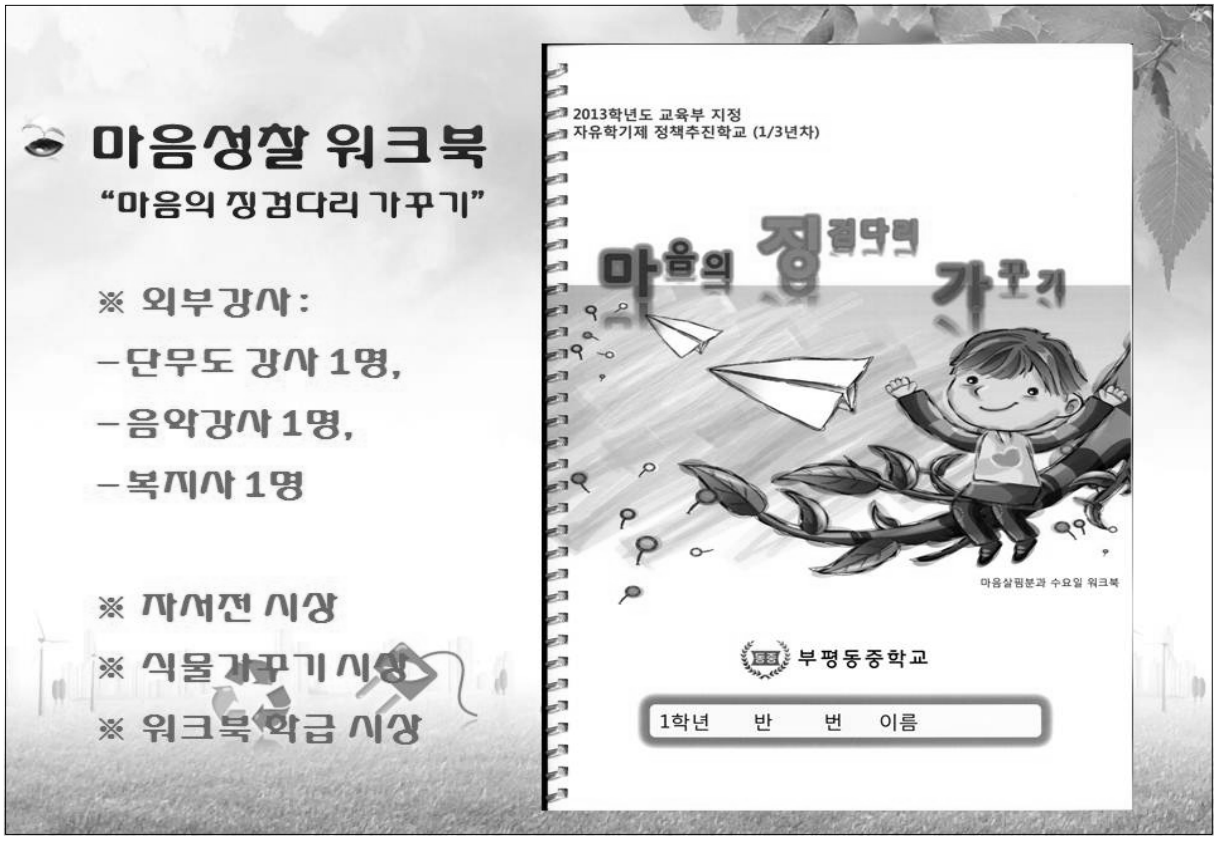
미래열음분과 2팀 '자율선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창업가정신 Wi-Fi' 추진 일정표

일자 / 구분	1주 8.20 (화)	2주 8.27 (화)	3주 9.3 (화)	4주 9.10 (화)	5주 9.17 (화)	6주 9.24 (화)	7주 10.1 (화)	8주 10.8 (화)	9주 10.15 (화)	10주 10.22 (화)	11주 10.29 (화)
주 제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크	가상 국가의 경제 활동		창업 아이템 선정		시청각 활용 직업체험	직업체험활동	진로동아리활동	직업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
내 용		기업가정신과 키워드 7가지 중요 기업가 정신 카드 3개 선정	미래 가상 국가 설립, 나라명 국가국기 화폐 직업 만들기	모의 시장	미래의 사업 아이템 선정	아이템 선정 선정된 아이템 발표	직업·진로 관련 자료 및 직업인 인터뷰 시청 소감문 작성				
연계기관 및 기업	캠퍼스멘토 (서울특별시 미포구 신촌로10길 7, ☎02-333-5966)						본교교사 지도				
활동자료	SCEP Wi-Fi 창업과 진로자료 (교육부, 직능원)						소감문				
활동장소	교실(80분 수업)										
예상 소요비용	캠퍼스멘토 교육활동비 3,800원×132명×10회 = 5,016,000원										
지도교사 (4명)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총괄교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일자 / 구분	12주 11.5 (화)	13주 11.12 (화)	14주 11.19 (화)	15주 11.26 (화)	16주 12.3 (화)	17주 12.10 (화)	18주 12.17 (화)	19주 12.24 (화)
주 제	회사 설립	사업 계획서 수립	조직도	마케팅	나의 미래 그리기	시청각자료 활용 직업체험		평가회
내 용	회사의 설립 절차 내적/외적 설립의 이해	사업 계획의 중요성 미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발표	회사의 조직 이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조직도 구성	마케팅의 이해와 마케팅 기법 모둠별 마케팅 전략 수립 발표	내가 꿈꾸는 회사 그리기 개별 발표	직업·진로 관련 영화자료 및 직업인 인터뷰 시청 소감문 작성		
연계기관 및 기업	캠퍼스멘토 -교육컨설팅 업종					본교 교사 지도		
활동자료	SCEP Wi-Fi 창업과 진로자료 (교육부, 직능원)					소감문		
활동장소	교실(80분 수업)							교실
예상 소요비용	교내 행사 추진(난타소품비) 및 시상비 200,000원							
지도교사 (4명)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서윤희 이송희 이가원 권연정
총괄교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서윤희

전문가 강사약력				
	안광배-캠퍼스멘토 대표이사 대학연합커뮤니티 컬프 운영 교과부 SCEP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개발 참여	지재우-World best class 기획실장 2013 진로교사 동계연수 기업가정신 강사	정승원-캠퍼스멘토 이사 청춘연구소 이사장 교과부 SCEP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개발 참여	이주은-캠퍼스멘토 기획 매니저 교과부 SCEP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개발 참여 2013 진로교사 동계연수강사	임영아-캠퍼스멘토 전문 강사 2013 진로교사 동계연수 기업가정신 강사


수요 프로그램
운영과제 3.
멈춰서서.. 마음 살핌
자아성찰 및 행복찾기 프로그램
협력 자문 기관 : 부개도서관, 하늘의정원, 단무도체육관,
김소라플룻스튜디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자아 탐구
힐링 체험
행복 찾기
자아 발견
가면 꼴라주, MBTI검사, 닉부이치치 만나기, 꿈! 김수영!, 독서로 마음 들여다보기
원예체험, 세계 이해, 단무도, 음악놀이+마음치료, 다름에 대한 생각 넓히기
감사하기, 용서하기, 관계 돈독히 하기
자서전만들기, 내 인생신문 만들기


마음성찰 워크북
"마음의 징검다리 가꾸기"
※ 외부강사 :
–단무도 강사 1명,
–음악강사 1명,
–복지사 1명
※ 자서전 시상
※ 식물가꾸기 시상
※ 워크북 학급 시상
2013학년도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정책추진학교 (1/3년차)
마음의 징검다리 가꾸기
마음살핌분과 수요일 워크북
부평동중학교
1학년 반 번 이름

마음 살핌… 행복 찾기

주제	활동 내용	학습방법	수업실행
감사하기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동영상, 체험활동, 워크북	지도교사
용서하기 관계 돈독히 하기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동영상, 체험활동, 워크북	지도교사
	행복은 '사이'에 있다.		

마음 살핌… 힐링 체험

주제	활동 내용	학습방법	수업실행
원예 체험	1인 1식물 가꾸기 (식물은 내 친구)	원예 체험, 발표	외부전문가 (하늘의 정원)
단무도	몸 수련을 통한 정신집중	몸 수련, 기체조	외부전문가
음악놀이+마음 치료	청소년들의 위축, 긴장, 불안 해소	연주회, 워크북, 토론	외부전문가 (들릿스튜디오)
'다름'에 대한 생각 넓히기	장애 인식 개선	강의, 장애체험, 점자훈련	외부전문가 (부평장애인 종합복지관)
세계 이해	함께 살고 싶은 세상,	명사 초청 강의	외부전문가

마음 살핌…자아 탐구

주제	활동 내용	학습방법	수업실행
자기 소개	나는 누구인가?	가면 만들기, 꼴라쥬	지도교사
MBTI 검사		전문가 검사 상담, 분석	외부전문가
닉부이치치 만나기	역경이란 무엇인가?	팀활동, 워크북, 토론	지도교사
영화로 보는 우정	우정에 대하여	팀활동, 워크북, 토론	지도교사
독서를 통한 마음 들여다 보기	동화책 '사료를 드립니다'	워크북, 독서	지도교사
독서를 통해 관계 들여다 보기	나를 둘러싼 관계 이해	전문가 멘토링, 토론	외부전문가 (부개도서관)

마음 살핌…자아 발견

주제	활동 내용	학습방법	수업실행
자서전 또는 내 인생신문 만들기(택일)	미리 써 보는 '나의 미래'	책 만들기	지도교사
		신문 만들기	지도교사

마음살핌분과 '자아성찰 프로그램' 추진 일정표

일자 /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18주	19주
	8.21 (수)	8.28 (수)	9.4 (수)	9.11 (수)	9.18 (수)	9.25 (수)	10.2 (수)	10.9 (수)	10.16 (수)	10.23 (수)	10.30 (수)	11.6 (수)	11.13 (수)	11.20 (수)	11.27 (수)	12.4 (수)	12.11 (수)	12.18 (수)	12.25 (수)
운영방법	6주 순환 프로그램 각 반별로 1주씩 총 6주제가 순환된다.								6개반 동시	3주 순환 프로그램 두 반씩 묶어서 총 3주제가 순환된다.			6개반 동시	6개반 동시		6개반 동시	6개반 동시	6개반 동시	
주 제	자기 소개	MBTI 검사	닉부이 치치 만나기	꿈! 김수영!	추석연휴	독서를 통한 마음 들여다 보기	독서를 통해 관계 들여다 보기	한글날	원예 체험	단무도	음악 놀이 +마음 치료	다름에 대한 생각 넓히기	세계 이해	감사 하기	진로캠프	용 서 하 기/관계 돈 독 하 게하기	자서전 또는 내 인생신문 만들기(택일)		성탄절
내 용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역경이란 무엇인가	진짜 내 모습		동화책 '사료를 드립니다.'	나를 둘러싼 관계이해		1인 1식물 가꾸기 (식물은 내 친구)	몸 수련을 통한 정신 집중	청소년들의 위축, 긴장, 불안 해소	장애인식 개선	함께 살고 싶은 세상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행복은 '사이'에 있다.	미리 써보는 나의 미래		
연계기관 및 기업		상담 전문가				부개 도서관	부개 도서관		하늘의 정원	단무도 체육관	김소라 플룻스 투디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문화 재단						
활동자료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동영상	워크북 동영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체험재료		워크북 체험재료	워크북 자서전, 신문양식		
활동장소	교실	교실	교실	교실		학교 도서관	부개 도서관		교실	강당 (2개합반)	학교 도서관 (2개합반)	교실/외부 (2개합반)	강당	교실		교실	교실		
예상 소요비용	재료비 300,000								재료비 900,000	강사비 600,000	강사비 450,000	강사비 210,000		재료비 300,000		재료비 300,000	자서전, 신문 재료 300,000		
지도교사 (6명)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총괄교사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행복채움분과 '스포츠 체험' 추진 일정표

일자 /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18주	19주
	8.21 (수)	8.28 (수)	9.4 (수)	9.11 (수)	9.18 (수)	9.25 (수)	10.2 (수)	10.9 (수)	10.16 (수)	10.23 (수)	10.30 (수)	11.6 (수)	11.13 (수)	11.20 (수)	11.27 (수)	12.4 (수)	12.11 (수)	12.18 (수)	12.25 (수)
운영방법	6주 순환 프로그램 각 반별로 1주씩 총 6주제가 순환된다.								6개반 동시	3주 순환 프로그램 두 반씩 묶어서 총 3주제가 순환된다.			6개반 동시	6개반 동시		6개반 동시	6개반 동시	6개반 동시	
주 제	자기 소개	MBTI 검사	닉부이 치치 만나기	꿈! 김수영!	추석연휴	독서를 통한 마음 들여다 보기	독서를 통해 관계 들여다 보기	한글날	원예 체험	단무도	음악 놀이 +마음 치료	다름에 대한 생각 넓히기	세계 이해	감사 하기	진로캠프	용 서 하 기/관계 돈 독 하 게하기	자서전 또는 내 인생신문 만들기(택일)		성탄절
내 용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역경이란 무엇인가	진짜 내 모습		동화책 '사료를 드립니다.'	나를 둘러싼 관계이해		1인 1식물 가꾸기 (식물은 내 친구)	용 수련을 통한 정신 집중	청소년들의 위축, 긴장, 불안 해소	장애인식 개선	함께 살고 싶은 세상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행복은 '사이'에 있다.	미리 써보는 나의 미래		
연계기관 및 기업		상담 전문가				부개 도서관	부개 도서관		하늘의 정원	단무도 체육관	김소라 플룻스 투디오	부평장애 인종합복 지관	인천문화 재단						
활동자료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동영상	워크북 동영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체험재료		워크북 체험재료	워크북 자서전, 신문양식		
활동장소	교실	교실	교실	교실		학교 도서관	부개 도서관		교실	강당 (2개합반)	학교 도서관 (2개합반)	교실/외부 (2개합반)	강당	교실		교실	교실		
예상 소요비용	재료비 300,000								재료비 900,000	강사비 600,000	강사비 450,000	강사비 210,000		재료비 300,000		재료비 300,000	자서전, 신문 재료 300,000		
지도교사 (6명)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박성윤 김미희 이송희 구희숙 이가원 오태용	
총괄교사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김정란	

행복채움분과 '스포츠 체험' 세부 활동 내용

일자 / 구분	4주 9.12(목)	6주 9.26(목)	9주 10.17(목)
주 제	아이들 육상 선수권 대회	모두의 패드민턴	꿈나무탁구대회
내 용	. 학급별 육상대회 실시(전원참석) . 대회 종목 - 50m달리기, 플라잉디스크던지기 포환던지기, 장애물달리기 반 전체계주 . 종목별점수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50m 60 50 40 30 20 10 장애물 60 50 40 30 20 10 전체계주 600 500 400 300 200 100 플라잉디스크, 포환던지기는 개인별 기록에 따른 점수부여 - 종합 점수 취합 후 대회 종합순위 결정 . 준비물 : 바통6개, 팀조끼, 포환, 장애물 플라잉디스크	. 학급별 2명씩 15개의 팀으로 편성(전원 참석) . 3개의 코트에서 1 코트 당 2개의 반 씩 11점 득점한 팀이 많은 반을 다음 경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시 . 전 경기에서 이긴 3개의 반끼리 리그전 경기를 통해 21점 득점한 팀이 많음에 따라 우승, 준우승, 3위를 선발한다. . 대기하는 반 및 경기에서 패한 반은 체육관 밖에서 패드민턴 라켓으로 하이클리어를 이용한 셔틀콕 바구니 안에 넣기 게임을 진행한다. . 준비물: 패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3코트, 바구니, 셔틀콕, 점수판	. 학급별 2명씩 15개의 팀으로 편성(전원 참석) . 3개의 탁구대에서 1개의 탁구대 당 2개의 반 씩 1세트(11점 득점)경기에서 우승한 팀이 많은 반을 다음 경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시 . 전 경기에서 이긴 3개의 반끼리 리그전 경기를 통해 1세트(11점 득점)경기에서 우승한 팀이 많은 반 따라 우승, 준우승, 3위를 선발한다. . 대기하는 반 및 경기에서 패한 반은 체육관 밖에서 플라잉디스크 던져 골대에 넣기를 통해 집중력 향상 시키는 연습을 한다. . 준비물: 탁구 라켓, 탁구대 3set, 탁구공 3개, 점수판, 플라잉디스크 도구
연계기관 및 기업	부평동중학교	부평동중학교	부평동중학교
활동장소	부평동중학교	부평동중학교	부평동중학교
예상 소요비용	우 승: 50,000원 상품 준우승: 40,000원 상품 3 위: 30,000원 상품	우 승: 50,000원 상품 준우승: 40,000원 상품 3 위: 30,000원 상품	우 승: 50,000원 상품 준우승: 40,000원 상품 3 위: 30,000원 상품
지도교사 (8명)	오태용, 정우수, 임영택,,김동민, 곽동혁, 김혜민, 권연정, 박성윤	오태용, 정우수, 임영택, 김동민, 곽동혁, 김혜민, 권연정, 박성윤	오태용, 정우수, 임영택, 김동민, 곽동혁, 김혜민, 권연정, 박성윤
총괄교사	오태용	오태용	오태용

금요 프로그램

행복 채움 2 : 문화 · 예술 체험 활동 (자율선택)

연계 기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시립예술단,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피카소재단

프로그램명	지도강사	장소
제과제빵	외부강사	뚜레본
바리스타	외부강사	부천 바리스타 학원
수영, 스키, 볼링	외부강사	웅진플레이도시
만화 애니메이션	외부강사	교실
마술	외부강사	교실
뮤직클럽	본교교사(김미희)	음악실
아트클럽	본교교사(구희숙)	미술실
방송댄스	외부강사(교육기부)	강당 및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계획

구분	기초과정	고급과정
일시	2013년 8월 20일(화)	2학기 개학후 1일 2시간 5~10일
시간	4시간	10~20시간
대상	학부모 진로코치 기초교육 희망자	학부모 진로코치 중급교육 희망자
내용	▪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진로지도에 ▪ 대한 학부모의 역할 ▪ 진로코치로서의 기본 내용 이해와 ▪ 소양교육	▪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진로지도에 ▪ 대한 학부모의 역할 ▪ 진로코치로서의 기본 내용 이해와 ▪ 소양 교육 ▪ 진로지도에 보조교사로 학생지도
협력기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북부교육청 지역사회협력과 협조)	(추진중)
예산	강사비 - 북부교육지원청 예산지원 음료수비 약 50명×1,000원=50,000원	(추진중)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멘토 양성 계획

- 협력 학교 : 인하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 역할 : 자율선택 진로체험 프로그램 보조교사 및 진로 직업체험 활동 시 인솔교사 도우미
- 기타 : 교육봉사 인정 및 교통비 지급

문화 · 예술 체험 활동

- '피카소의 절대미' 관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9.6(금)
- '찾아가는 축제 한마당' 관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11.22(금)
- 연극 '리어왕' 관람 (인천시립예술단) – 11.29(금)

부평동중 자유학기제 운영에 도움을 주신 기관 · 업체 … "감사합니다."

캠퍼스 멘토

부개도서관

하늘의정원

단무도체육관

김소라플룻스튜디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웅진플레이도시

아주볼링센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시립예술단

피카소재단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력 강화 계획

- 교과별 단원 영성평가 및 1:1 학습지 관리
- 학습 플래너의 지속적인 관리 지도
- '왜 공부하는가' 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 설정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 삼성드림클래스 운영을 통한 개별 학력관리
- 학생-학생 간 멘티 멘토 결성 운영
- 기초미달학생 및 수월성 교육 학생을 위한 방과후 강좌 개설
- 학부모 수시 상담
- 야간 늘품 면학실 운영

일반 교육과정 평가와의 두드러진 차이점

-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없다. (용어 자체가 없어짐)

※ 우리학교는 '과정평가' 라는 용어로 대체

※ 과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단원별로 영성평가(쪽지시험도 해당)한다.

-학생이 취득한 정량화된 점수와 수업진행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학습활동지,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서술식으로 기록한다.

-어디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

1학년 2학기 교과성적은 반영되지 않음

- 단, 고교입학 내신성적 산출에 필요한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 점수 산출은 기존 방식 그대로 함(1년 단위 산출)

구분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		
점수	12점			12점			15점		
학년	1	2	3	1	2	3	1	2	3
기본점수	3	3	3	3	3	3	4	4	4

☞ 봉사활동은 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
- 20시간 이상 (4점)
- 10~19시간 (3점)
- 9시간 이하 (2점)

☞ 가산점 받으면 1점 추가
※항목별 가산점 부여
- 행동발달 – 모범상,선행상,효행상 수상자
- 특별활동 – 교내.외 각종 상 수상자
- 봉사활동 – 교내.외에서 봉사와 관련한 상을 수상한 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한 학교와의 연락망 잘 유지하기
-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상시 대화나 밥상머리 진로교육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맥락 유지하기
- 국,수,영,과,사 기본교과의 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
  - –학교에서 배부한 학습지, 영성평가지, 쪽지시험지 등
  - –공부해야 할 과목수 축소, 부족했던 부분 복습, 기본을 탄탄히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과정 참여 , 직업체험장 발굴 협조
- 학급 담임선생님과의 수시 상담 통로 열어두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 내신 산출 방식은 종전 '그대로'
  -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반드시 해야
  - 각종 대회(특히 교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모범상, 효행상, 학급 반장, 부반장 등에 열심히 도전해야
-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일별 워크북 작성 및 관리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실수록 교육의 효과는 커집니다.
  - 월요일 : '내 꿈의 CHAMP 여행'
  - 수요일 : '마음의 징검다리 가꾸기'
-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진로 관련 대화 많이 하기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학창시절 동안 다시 없을 좋은 기회, 이 귀한 기간을 '나를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잘 선용하자.
- '왜 공부하는가' 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자.
- 요일별 프로그램 이행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자.
  - 워크북(월요일, 수요일) 필히 지참, 기록,관리에 성실할 것,
  - 준비물 꼭 챙겨올 것.
  - 교실활동이든 야외활동이든 지도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를 것,
  - 안전을 우선하여 모든 활동에 진지하게 임할 것.
- 학습에 최선을 다하고 단원형성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의 별도 지도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자.

사례발표2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과 실천사례

염 인 식
(영종중학교 교감)

Ⅰ 대 상

- 1학년(207명, 남:105명, 여:102명)

Ⅱ 기 간

- 2013. 04 ~ 2016. 02 (3년)

Ⅲ 운영 과제의 설정

운영과제	실행과제	세부실천내용
행복 **1. 행복 찾기 : 탈력적인 교육과정 평성 및 운영을 통한 행복 찾기**	1-1.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MOU체결, 테블릿 환경 구축)	1-1-1.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1-1-2. MOU 체결, 학부모지원단 구축 1-1-3. 환경구축(내외부 홍보물 설치, 테블릿PC 환경 구축)
	1-2.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홍보	1-2-1. 교사 연수 1-2-2. 학생 홍보 1-2-3. 학부모 연수 및 설명회, 내외 홍보 실시
	1-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3-1. 교육과정의 편성 1-3-2. 교육과정의 운영 1-3-3. 운영상의 문제점(개선점)

운영과제	실행과제	세부실천내용
꿈 **2. 꿈 찾기 :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한 꿈 찾기**	2-1.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개선(토론수업, 융합수업, 프로젝트 수업) 2-2. 과정중심 평가로의 개선(포트폴리오, 소감문, 관찰평가 등) 2-3. 교과연구회 운영(교과협의회, 교과동아리 활성화)	2-1-1. 토론중심 수업의 활성화 2-1-2. 융합 수업의 확대 2-1-3. 프로젝트 수업의 활성화 2-2-1. 과정중심의 관찰 평가 실시 2-2-2. 소감문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실시 2-2-3.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한 학년간 유기적 연계 2-3-1. 교과협의회 운영 2-3-2. 교과동아리 운영 2-3-3. 교과연구회 운영
끼 **3. 끼 찾기 : 맞춤형 체험활동과 선택프로그램을 통한 끼 찾기**	3-1. 진로유형 맞춤형 선택과정의 운영(진로발달검사) 3-2. 선택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체험활동 실시 3-3.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MI 검사 기반)	3-1-1. 진로발달검사 실시 3-1-2. 선택과정 개설 및 반편성 3-1-3. 선택과정 운영 3-2-1. 유형별 체험기관 선별 3-2-2. 시즌별, 유형별 체험기관 및 일정 계획수립 3-2-3. 체험활동 실시(전일, 반일, 반별 또는 학년별) 3-3-1. MI 검사 실시 3-3-2. 다양한 동아리 개설 3-3-3.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Ⅳ 운영 과제별 실행 계획

< 주제 >

교과간 융합프로젝트 러닝 모형을 통한 수업개선 및 진로탐색 능력 신장

운영과제 1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통한 행복 찾기

실천과제	
행복 찾기	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나.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 교육공동체의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역량 강화

1.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위 원 장
교장

자 문 기 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연구원
학교운영위원회
자유학기제 지원단

협 력 기 관
학부모 지원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와 직업 교과연구회, 한국고용정보원 인천시교육연수원, 인천시교육연수원 인천시평생학습관, 인천공항공사

부위원장
교감

연구주무
연구부장

희망 찾기 기획운영 분과	행복 찾기 교육과정 분과	꿈 찾기 수업개선 분과	끼 찾기 자율과정 분과
분과장 : 권석인	분과장 : 구교정	분과장 : 변재연	분과장 : 박석규
▪연구학교 기획 및 추진 ▪연구학교추진 협의회 주관 ▪연구학교 운영계획 및 보고서 작성 ▪스마트교육 환경구축, 관리 ▪물품관리 및 운영 ▪각종 기초조사 및 분석 ▪설문지 작성 및 통계 분석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연구· 분석 ▪검증결과 분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 및 홍보 추진 ▪교과연구회 운영 ▪MOU 체결 추진 ▪학부모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에듀팟 운영 ▪활동계획수립, 운영 및 결과정리(운영과제1)	▪수업모형 및 평가 방법개선 - 학생주도형 교수학습 모형개발, 교수학습 모형에 따른 다양한 평 모형 개발, 학생 성취결과 확인 방안 ▪교과 연계 진로교육 추진 ▪프로그램 적용, 방안 연구 ▪활동계획수립, 운영 및 결과정리(운영과제2)	▪자율과정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직업체험 계획 수립 및 운영 ▪캐리어존 구축 및 관리 ▪자율과정 강사관리 ▪진로캠프 운영 ▪활동계획수립, 운영 및 결과정리(운영과제3)
황은숙, 진이조, 강윤숙, 이은경, 한혜성	김경주, 강진아, 전은술, 김동환, 김민아	김소민, 전숙영, 엄민정, 최혜진, 최선임	김인구, 조영식, 권명자, 주리아, 한귀연, 김주식

교직원 회의 / 학부모 지원단 협의회

나.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 관련

1)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교육기부 문화 활성화
- 졸업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인사 중 진로교육자원 발굴 및 진로교육 공동체 구축
-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 직업체험기관과 MOU 체결 추진, 학부모 지원단 구성

2)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SCEP-school career educationprogram)의 적용

다. 학부모 연수 및 홍보 관련 등

1) 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 홍보 실시
   - 학부모 설명회 및 동의서 작성
   - 학교 홈페이지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코너를 개설하고 관련자료 탑재
   -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안내와 학부모 설명회 실시
2) 선택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피드백 실시

라. 대상별 연수 및 홍보 내용

대 상	연수 내용		홍 보
교직원	자유학기제 설명회	• 자유학기제 근본 취지 안내 • 자유학기제 추진 방안	• 교사 매뉴얼 활용
	수업역량강화 직무연수	• 교과연구회 및 교과동아리 활성화 • 교과별 융합수업을 위한 연수	• 교육청지원 협조
학 생	자유학기제 설명회	• 진로탐색의 중요성 안내 • 자유학기제 안내	• 학교별 홍보자료 활용 • e-진로채널, 진로교육 동영상 활용
	진로탐색 프로그램 안내	• 교육과정 운영 안내 • 진로동아리 활동 안내 •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안내	
학부모	자유학기제 설명회	• 자유학기제의 도입 배경 • 진로교육의 중요성 안내 • 자유학기제 안내 • 선택프로그램의 지원과 배정	• 학부모 진로교육 매뉴얼 활용 • 드림레터, 진로교육 동영상 활용 • 학부모지원단 구성
	자녀 진로교육 방안	• 자녀 진로교육 지도 방안 • 미래의 직업세계 등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운영	
	학부모지원단 연수	• 자유학기제의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교육공동체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학부모 연수	
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설명회	•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MOU 체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 학교와 지역 교육 환경의 변화 •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 협력체제의 필요성	

2.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편성(20시간) ○ 교육과정 : **핵심 성취기준** 기반 수업 ○ 수업방법 - (국·영·수)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 - (사·과 등)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 - (편성) **기본교과(62.5%) + 선택프로그램(18.75%) + 기타(18.75%)** - (운영) 선택형 프로그램*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2					
3					
4					
5	**진로 동아리 및 진로독서활동** 교과동아리 11개, 국악동아리 11개, 스포츠동아리 6개로 구성	**진로탐색활동** 진로검사/초청강연 포트폴리오 현장체험/직업리서치 모의창업 등	**선택 프로그램** 요리, 제과제빵, 과학탐구 등 교과관련 선택 프로그램 30개로 구성	**창의예술 활동** 사진, 디자인(조형)	**선택 프로그램** 요리, 제과제빵, 과학탐구 등 교과관련 선택 프로그램 30개로 구성
6					
7					
방과후 학교	교과 및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 선택프로그램 6 + 진로탐색 2 + 진로동아리 2 + 창의예술 2 = 12시간

1) 진로탐색 활동 :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주도하여 SCEP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활동과 직업체험활동, 초청강연 등

2) 선택프로그램 : 2학기를 3시즌으로 편성하여 각각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총 30개 프로그램 운영 (교과 연계)

3) 진로동아리 활동 : 국악동아리, 교과동아리, 스포츠동아리, 진로독서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4) 창의예술 활동 : 조형(디자인), 사진

나. 2013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운영

교 과 군		1학년 변경전	1학년 변경후	비 고
공통 교과	국 어	68	51	-17
	사 회	51	34	-17
	도 덕	51	34	-17
	수 학	68	68	0
	과 학	51	34	-17
	체 육	51	34	-16

교 과 군			1학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음 악	34	17	-17
		미 술	34	17	-17
		영 어	51	34	-17
선택	일반	한 문	17		-17
		정 보	34		-34
	교양	진로와 직업		17	+17
소 계			**510**	**340**	**-170**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7	24	+19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17	17	
		동아리 활동	6	70	+64
	봉 사 활 동		4	8	+4
	진 로 활 동		17	17	0
선택프로그램				102	+102
소 계			**51**	**238**	**+189**
학기별 계			**561**	**578**	**19**

3. 교육공동체의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역량 강화

가.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연수와 특강을 통한 전문성 신장

- 자유학기제의 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연수(학기별 1회 이상)
- 학생들과의 진로상담 활성화를 위한 전교사의 진로교육 연수
- 수업개선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수

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워크숍 실시(교과별 학기당 2회 이상)

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컨설팅 실시(수시)

운영과제 2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한 꿈 찾기

실천과제 꿈 찾기	가. 교과특성에 맞는 융합프로젝트 러닝 모형 구안·적용 나. 다양한 방법의 『진로와 직업』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적용 다. 진로탐색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방법 구안·적용

1. 교과특성에 맞는 통합프로젝트 러닝 모형 구안 • 적용

1. 기존수업 탈피-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전교과에 적용
2. 진로연계-수업내용을 진로와 연계(a little)하여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수·학습 구안
3. 블록타임제 / 교과간 융합수업 / 프로젝트수업 방법 모색
4. 교과별 2학기 교과별 핵심성취수준 발취/ 교수·학습지도안, 연간지도계획, 평가계획 수립

예시)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간 통합 모형인 STEAM수업 / 개별 및 조별 프로젝트 적용 수업 / 토의*토론수업(찬반토론, 원탁토론) / 과제해결 수업 / 협업수업(co-teaching) / 소집단활동 협동수업 / 실험 실습. 문제해결학습 등 탐구수업 실시

가. 개선 방향

-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전 교과에 적용
- 교과 내용을 진로와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모형 구안 및 적용
- 체험과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통해 자아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등 고등사고력 향상

나. 교수·학습 모형 적용

- 반 학기 또는 한 학기 동안 개인 및 조별 연구 프로젝트 수행
- 드라마, 연극, 잡지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 실시
- 사회성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 등 소집단활동 실시
- 찬반토론, 원탁토론 등 다양한 모형의 토의·토론 수업 실시
- 실험, 실습, 문제해결 학습 등 탐구수업 실시
- 주제를 중심으로 영역 간 통합 모형인 STEAM 교육 실시

다.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 마련

1) 블록(BLOCK)타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과 간, 교과와 창·체 간, 학습주제 간, 학급 간 융합·연계 수업 실시

《융합·연계 교수·학습 모형》

【①교과간 융합학습 모형(안)】

교과	활동내용
국어	고운말·바른말 사용 의미·방법 토론
⇓	
도덕	바른 언어 사용 학급 규칙 정하기
사회	자치법정에서 고운말·바른말 상벌 처리
⇓	
체육	규칙준수 등 올바른 경기자세 학습
미술	고운말·바른말 표어, 포스터 그리기
⇓	
평가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②교과와 창·체 연계학습 모형(안)】

구분	활동내용
주제	이동성(mobility) : 나를 변화시키는 힘
⇓	
교과 (2차시)	이동과 관련한 직업세계 탐색, 조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업군별 이동경로 작성
⇓	
창·체 (2차시)	조사자료 기초로 자신의 진로 상상·설계, 이를 발표·공유하여 나와 타인의 꿈 공유
⇓	
평가	과정 평가, 자기성찰 평가 등

2) 두 명 이상의 교원이 한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는 코티칭(Co-Teaching)과 학생간 역할분담 및 의사교환 등을 통해 학습하는 코러닝(Co-Learning)을 활용하여 능동적 협업학습 실시-('코티칭+코러닝') 과학(빛과 색의 합성 원리 설명) + 미술(빛의 원리를 이용한 인상파 작품에 대한 설명 및 빛을 활용한 학생 간 협동 작품 제작)

2 . 다양한 방법의『진로와 직업』교수-학습 방법 구안 • 적용

가.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 진로교육과 관련있는 단원학습 시 수업 시작 전 또는 수업 중에 진로와 연계한 수업 실시

나. 전 교과 진로탐색 중심 수업 실시

- 일반 교과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 교육적 요소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여 교과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교육하고 수행평가 실시

다. 스마트 북을 활용한 진로탐색 수업 실시

- 스마트 북 활용 연수 실시
- 태블릿 PC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 및 진로 탐구활동 실시

3. 진로탐색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방법 구안 적용

평가방향	평가유형
- 1회/2회 지필고사 실시하지 않음 - 관찰/토론/협동학습/체험 등 수업개선에 따른 과정중심 평가 - 진로직업 탐색 관련 다양한 교과통합적인 평가 * 1학년 수행평가 계획안을 전면 수정 *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자기성찰평가 / 소감문 평가 - 관찰 평가 - 조사 보고서 평가 - 면접 평가 - 질문지 평가 - 토의, 토론 평가 - 과제/작품/포트폴리오 평가 - UCC 제작평가

가. 평가 방향

1) 진로의식에 기초한 내면적 동기부여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교과 학습이 자신의 진로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 효능감 향상
- 교과 교육과정 내 진로탐색 활동에 따른 성취도 평가 실시

2) 정기고사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과정 중심 수행평가 실시
-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학기중 수행평가 성적으로 함
- 수행평가 중에서 일부를 과목별 진로탐색 관련 수행평가 실시
- 교과별 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별 구체적 평가방안 마련

나. 평가 방법

1) 진로탐색 관련 다양한 수행평가 확대
- 토론, 협동학습, 체험 등 수업방법 개선에 따른 과정중심 수행평가 실시
- 수업 중 활동 상황에 기초한 과정평가 시행
- 진로직업체험 활동에 대한 교과통합적인 수행평가 실시
  : 직장체험과정 관찰, 소감문, 멘토에게 편지쓰기, 보고서, 포트폴리오, UCC 제작 등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교과별 포트폴리오 평가(수행평가 100%)를 적용하여 운영
- 1학년 모든 교과에서는 2학기 수행평가 계획안을 전면 수정해서 전교과 포트폴리오 형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성찰평가 :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 수립 및 점검하는 평가(교사 피드백 제공)

2) 평가 방법 개선

교과	평가방법 개선 내용
도덕	탐구 협동학습으로 포트폴리오 제작 평가
사회	단기-장기 프로젝트형 과제 제시 평가
음악	1인 2악기 연주 지도, 교과통합 협력수업 뮤지컬 제작 과정 평가
미술	팀수업, 발표수업 과정 평가, 음악과와 협력수업과정 평가
기술가정	영양책 만들기 포트폴리오 제작, 건강신문 제작 평가

운영과제 3 맞춤형 체험활동과 선택프로그램을 통한 끼 찾기

실천과제 끼 찾기	가.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 다양한 체험중심의 『진로캠프』 운영 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1.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 프로그램별 전일 또는 반일체험 실시)
나. 진로발달 검사와 진로 유형에 따른 직업체험 운영 : 선택프로그램별 체험운영
다. 전문가 초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명사초청특강 4회 실시

2. 다양한 체험중심의『진로캠프』운영

가. 진로 캠프 운영 : 행복드림(Dream) 주말 진로캠프 운영
나. 테크로드 투어 실시 : 1박 2일 진로체험 실시
다. 학급별 진로 캠프 실시 : 월 2회 진로캠프 운영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실시 : 학부모지원단 운영
나. 직업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부모님 직업 체험일 운영
다. 지역의 시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협업기관을 활용한 체험 운영

4. 자율과정 편성 및 운영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5	**진로 동아리 및 진로독서활동** 교과동아리 11개, 국악동아리 11개, 스포츠동아리 6개로 구성	**진로탐색활동** 진로검사/초청강연/포트폴리오 현장체험/직업리서치/모의창업 등	**선택프로그램** 요리, 제과제빵, 과학탐구 등 교과관련 선택프로그램 30개로 구성	**창의예술 활동** 사진, 디자인(조형)	**선택프로그램** 요리, 제과제빵, 과학탐구 등 교과관련 선택프로그램 36개로 구성
6					
7					
방과후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가. 진로탐색 활동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주관하여 SCEP 프로그램과 스마트 북을 활용한 진로활동과 직업체험활동, 초청강연, 직업인 초청 등

차시	단원명	활동 내용
1	삶과 진로	나의 삶과 진로 알기
2		직업의 의미와 역할 알기
3	나의 특성 탐색	나의 이해
4		나의 특성 알기
5		사회적 환경과 나의 관계 알기
6	나의 진로 탐색	나의 종합적 이해
7		나의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8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미래	다양한 직업 조사하기
9		변화하는 직업 알기
10		미래의 직업 조사하기
11	직업 세계 탐색의 방법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 탐색하기
12		체험 학습을 통한 직업 탐색하기
13		전문가와 함께 하는 직업 탐색하기
14	직업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직업과 관련된 편견과 고정 관념 알기
15		고정 관념 극복하기
16	교육 경로 탐색	중학교 이후의 교육 경로 알기
17		고등학교의 유형 알기
18	진로 정보 탐색	나의 진로 선택하기
19		진로 정보 수집하기
20	직업인의 역할 모델 탐색	나의 역할 모델하기
21		역할 모델과 진로 조사하기
22	성공적인 직업 생활과 직업 윤리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조건 조사하기
23		직업인의 윤리 알기
24	진로 의사 결정	진로 의사 결정 방법 알기
25		진로 선택과 자기 책임감 알기
26	직업 선택 및 탐색	직업 선택하기
27		직업 탐색하기
28	진로 계획의 수립	나의 진로 목표 세우기
29		구체적인 진로 계획 수립하기
30	진로 계획 실천과 평생학습	생애 진로 계획과 실천하기
31		미래 사회와 평생 학습 알기
32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33		나의 미래 모습 상상하기
34		나의 사명서 작성하기

나. 선택프로그램

1학년 2학기를 3 시즌으로 편성하여 1시즌을 6주 과정(5주 과정 + 1체험)으로 10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 총 30개 과정 프로그램 운영

- Ready, Action, Check

1) 선택프로그램 편성표

구 분		실제형 (R)	탐구형 (I)	예술형 (A)	사회형 (S)	기업형 (E)	관습형 (C)
Ready		1. 1학년 대상 설문조사 및 진로탐색 검사(사전, 사후) 실시 2. 시즌별 학생희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Action	Season 1	R1: 북아트&북바인딩	I1: 파노라마 원리를 적용한 영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분석	A1: 나도야 사진가	S1: 내 고장 영종도를 소개합니다	E1: I'm a Big Traveler!	C1: 통계는 내 손에
		◎ 5주간 10차시는 프로그램별 진로유형에 따라 운영하고, 1주 2차시는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는 전일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 진로발달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 진로유형을 고려하여 개설한 10개의 프로그램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강신청하고, 1순위에 배정인원을 초과하면 진로유형을 우선 배정함					
	Season 2	R2: 요리조리 체험	I2: 원구를 활용한 과학적 탐구	A2: 시와 노래를 쌍둥이!!	S2: 과거 인천으로의 시간여행 GoGo~	E2: World Studies (모의 국제 회의)	C2: 스스로 세워보는 내 미래계획
		◎ 시즌2는 시즌1과 유사하거나 발달된 과제로 구성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복수강을 배제함 ◎ 시즌2에서는 시즌1과 같은 과목을 신청할 수 없으며, 나머지 9개를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하고 10순위에 시즌1에서 수강한 과목을 신청함 ◎ 5주간 10차시는 프로그램별 진로유형에 따라 운영하고, 1주 2차시는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는 전일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 진로발달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 진로유형을 고려하여 개설한 10개의 프로그램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강신청하고, 1순위에 배정인원을 초과하면 진로유형을 우선 배정함					
	Season 3	R3: 내손에 가구를..	I3: 과학 교과 통합 진로교육	A3: 영화를 통해 감상하는 다양한 음악	S3: 실제 생활 속에서 법과 경제를 체험해보자	E3: 국제회의의 이해	C3: 알차고 꼼꼼한 계획
		◎ 시즌3은 시즌1과 같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함 ◎ 시즌3에서는 심화된 과제를 선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진로탐색 및 설계능력을 향상 시킴 ◎ 5주간 10차시는 프로그램별 진로유형에 따라 운영하고, 1주 2차시는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는 전일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 진로발달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 진로유형을 고려하여 개설한 10개의 프로그램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강신청하고, 1순위에 배정인원을 초과하면 진로유형을 우선 배정함					
Check		1. 1학년 대상 설문조사 및 진로탐색 검사(사전, 사후) 실시 2. 과정(Season)별 결과물 정리-매 시즌 종료 후 정리하고 학기말에 최종 정리함.					

* 홀랜드(Holland's RIASEC) 진로탐색검사를 통한 적성, 흥미 유형과 학생의 선택에 따라 편성

2) 선택프로그램 개설 현황

영역	내용	관련교과	지도교사
실제형 (R/IA)	요리조리 캠핑요리 만들기 얼빵이네 제과제빵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리스타	기술가정	남일성
실제형 (R/SE)	재미있는 골프 수업을 통한 평생체육활동 전개하기 다양한 음악줄넘기를 통한 생활체육활동 전개하기	체육	김인구
탐구형 (I/RC)	파노라마 원리를 적용한 영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분석 완구를 활용한 과학적 탐구 과학 교과 통합 진로교육	과학	구교정
예술형 (A/IR)	입체조형능력 함양으로 나를 표현하기 영화를 통해 감상하는 다양한 음악	미술 음악	김경주 한귀연
예술형 (A/SE)	우리 학교 1학년 권장 도서 목록 작성하기 나는야 작가 시와 노래는 쌍둥이!!	국어	강윤숙
사회형 (S/EC)	내 고장 영종도를 소개합니다. 과거 인천으로의 시간 여행 GoGo~ 실제 생활 속에서 법과 경제를 체험해보자	사회	이은경
기업형 (E/SC)	I'm a Big Traveler! World Studies (모의 국제회의)	영어	최혜진 전숙영
관습형 (C/EI)	통계는 내 손에 스스로 세워보는 내 미래 계획 알차고 꼼꼼한 계획	수학	변재연

3) 인천지역 교과 관련 직업체험 예시

교과	운영내용
국어	연극관람, 시나리오 학원에서 대본작성 해보기, 영화시사, 인하대 한국어 교원양성 탐방, 신문사 견학 인천교통방송 견학 등 / 직접 시를 쓰고 짧은 소설이나 기사문 등을 써 보면서 문학가, 작가, 기자, 등으로서의 직업 탐색
수학	인천 지하철 본부 견학, 공항공사 항공제어시스템 견학
영어	인천대·인하대의 영문학과 체험, 인천공항 티케팅 연수, 관광객 안내
사회	인천항 도크 홍보관 견학 및 설명 듣기, 제일제당 견학,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산 견학-동인천소재, 서부공원 사업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정수처리장 견학-연수동 소재/ 시장경제와 기업경영 등을 배우면서 관련직업을 체험 등
과학	인천기상대 방문, 국립생물자원관견학-인천서구소재, 농촌진흥청 방문-동암역 부근
기술 가정	대우자동차, 동서식품, 현대제철 견학 / 양재 학원, 잡-월드 체험,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헌혈원 방문 등
체육	문학경기장 운영에 관한 설명듣기, 체육고등학교 방문
음악	예술고등학교 방문, 인천종학예술회관에서 하는 일 소개 받기
미술	아트센터에서 큐레이터의 역할 알기-동인천 소재

다. 진로동아리 활동 : 국악특성화,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운영

■ 진로동아리 운영 자율과정 편성표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5	진로동아리 활동 국악 특성화동아리 등	진로탐색 활동	선택프로그램	창의예술 활동	선택프로그램
6					
7					
방과후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1주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5	진로동아리 활동(전통음악)	진로탐색 활동	선택프로그램	창의예술 활동	선택프로그램
6					
7					

2주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5	학급별 활동 (소모임 활동)	진로탐색 활동	선택프로그램	창의예술 활동	선택프로그램
6					
7					

3주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5	진로동아리 활동(전통음악)	진로탐색 활동	선택프로그램	창의예술 활동	선택프로그램
6					
7					

4주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5	진로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진로탐색 활동	선택프로그램	창의예술 활동	선택프로그램
6					
7					
8					

라. 창의예술 활동 : 외부강사 채용, 2개 프로그램을 운영(조형, 사진)

: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들어 봄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1) 자율과정 편성표(창의예술 활동 운영)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5	진로동아리 활동	진로탐색활동	선택 프로그램	창의예술 활동 조형, 사진	선택 프로그램
6					
7					
방과후 학교	교과 및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 목요일 2시간을 격주로 블록타임 운영

2) 블록타임 시간제 운영

요일 / 시간	목(조형)
1	조형(1반)
2	
3	조형(3반)
4	
5	조형(5반)
6	
7	

요일 / 시간	목(사진)
1	사진(2반)
2	
3	사진(4반)
4	
5	사진(6반)
6	
7	

V 평가 및 검증 계획

본 운영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적연구(실태조사 및 진로탐색검사)와 질적연구(활동소감문, 포트폴리오)를 실시하고자 한다. 만족도조사는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백분율로 비교하고, 학생들의 홀랜드 진로탐색검사는 사전 사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사전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성과 흥미에 맞는 체험을 실시하고 사후검사를 통하여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 향상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표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영 역		조사내용	방 법	대 상	시 기
양적 연구	진로인식 실태분석	▸ 자기이해 ▸ 진로인식 ▸ 만족도 조사	자작 설문 조사	학생 학부모 교사	7월/ 12월
	홀랜드 진로탐색검사를 통한 학생의 특성 분석	▸ 영역별유형 백분율(성격, 활동 흥미, 직업흥미, 유능감) ▸ Holland's RIASEC 진로유형 ▸ 검사전·후의 유형 비교 ▸ 개인의 Holland 진로유형에 따른 학과 및 직업정보 ▸ 유형별 자기계발 방향 제시 ▸ 진로성숙 관련 정보	홀랜드 진로 검사	1학년 전체	7월/ 12월
질적 연구	활동소감문	▸ 각종 활동을 마치고 학생들이 작성하는 소감문		1학년 전체	연중
	수행평가 결과물/관찰/면담	▸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평가한 자료		1학년 전체	연중
	꿈을 담은 나만의 포트폴리오	▸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모아 정리하여 활용		1학년 전체	연중

VI 기대 효과

본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은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진로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로 수업의 참여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으로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넷째, 진로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자기 주도 진로설계 능력을 배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부록-[시즌1] 선택프로그램 운영 계획(매주 수·금 5-7교시) 전일체험 9/26

구 분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선택 5
적성유형		R/IA	C/RI	E/SI	A/EI	E/SC
프로그램명		포토샵 이미지 편집	한자왕 주몽 따라잡기	국제학 수업	독서! 내 인생의 책 목록 만들기	내 고장 영종도와 인천 탐험 Go Go~
평가유형		포토폴리오	소감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조사 보고서 평가, 소감문 평가, 과제/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작품, 태도,준비성	포트폴리오 평가, 소감문 평가, UCC 제작 평가, 활동 참여도 평가
연계기관 및 기업		인천공항공사	(주)아이엠비씨	영종도서관, 인천외국어연수원, 외교사료관, 인천국제교류센터	영종도서관	
예상 소요비용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담당교사		**김주식**	**한혜성**	**전숙영**	**강윤숙**	**이은경**
강의실		**1-1**	**1-2**	**1-3**	**1-4**	**1-5**
차시	월일					
1	8/21	선택도구 활용하기	오리엔테이션	국제학의 이해	내 인생 돌아보기 및 책 읽기	내 고장 영종도의 위치와 역사, 유적지 등 조사
2	8/23	선택 영역 변형하기	한자왕 주몽 1,2,3화	세계지도 만들기	독서와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1.	GPS 보물찾기
3	8/28	신호등 만들기	한자왕 주몽 4,5,6화	세계여행 준비하기	독서와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 2.	을왕리의 위치와 특징 조사
4	8/30	다양한 도형 만들기	한자왕 주몽 7,8,9화	세계여행 계획발표	책따세의 목록 살피고 독서하기	공화춘과 청 · 일 조계지 경계 계단
5	9/04	이정표 만들기	한자왕 주몽 10,11,12화	지구촌 탐구활동 1	물꼬방의 목록 살피고 독서하기	과거 개항장의 인천
6	9/06	다양한 문자 타이틀 만들기	한자왕 주몽 13,14,15화	지구촌 탐구활동 2	나만의 책 분류법 만들고 독서하기	과거 개항장의 인천
7	9/11	자유로운 이미지 만들기	한자왕 주몽 16,17,18화	영어발표연습	내 인생의 책 목록 만들기1.	대불호텔 국유화 토론
8	9/13	방향 표시 만들기	한자왕 주몽 19,20,21화	지구촌 탐구활동 3	내 인생의 책 목록 만들기2.	인천 은행거리
9	9/18					
10	9/20					
9	9/25	학교폭력 포스터 만들기	한자왕 주몽 22,23,24화	문화차이 연구	내 인생의 책 목록 만들기3.	자유공원과 차이나 타운
10	9/27	환경 관련 포스터 만들기	한자왕 주몽 25,26화	Role-play	친구들 인생의 책 목록 구경하기	영종 골든벨 퀴즈 및 답사 사전 교육
11	10/02	**전일체험**	**전일체험**	**전일체험**	**전일체험**	**전일체험**
12	10/04					

구 분		선택 6	선택 7	선택 8	선택 9	선택 10	비고
적성유형		R/SE	I/RA	R/IA	A/SI	A/RI	
프로그램명		뉴스포츠 활동 (음악줄넘기)	과학완구 활용	요리조리 캠핑요리 따라하기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 표현하기	화가꿈나무 (소묘로 기초세우기)	
평가유형		조사 보고서 평가, 소감문 평가, 과제/ 포트폴리오 평가	조사 보고서 평가, 소감문 평가, 과제/ 포트폴리오 평가	조사 보고서 평가, 소감문 평가, 과제/ 포트폴리오 평가	보고서 평가, 참여도, 소감문 평가, 과제/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소감문 평가	
연계기관 및 기업		21세기 줄넘기협회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인천공항	인천평생학습관 인천산업학교 짜장면박물관		도자기공방 방문	
예상 소요비용		3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담당교사		**김인구**	**구교정**	**남일성**	**한귀연**	**김경주**	
강의실		**체육관/운동장**	**과학1실**	**가정실**	**음악실**	**미술실**	
차시	월일						
1	8/21	줄넘기의 역사 이해하기	공명스프링, 가변관성 디스크, 노래하는 파이프	식단 작성하기	OT	소묘 (도형뎃생)	
2	8/23	음악줄넘기 용어 및 에티켓	동전이 사라지는 저금통, 동전축소저금통, 렌즈의 법칙데모	식재료의 준비	생활속 음악	소묘 (인체뎃생)	
3	8/28	음악줄넘기 기본스텝 익히기 1	물 먹는 새, 미라지, 말하는 테이프 줄	생식 조리법	음악방송 계획·구성하기	염색으로 표현하기(홀치기염)	
4	8/30	음악줄넘기 기본스텝 익히기 2	발표회, 물로 가는 자동차, 물 뿜는 돌고래	가열 조리법 1 :끓이기와 삶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염색으로 표현하기(홀치기염)	
5	9/04	음악줄넘기 기본스텝 익히기 3	매직 아크, 마음의 눈, 케미위즈	가열 조리법 2 : 찌기	세계민요1	염색으로 표현하기(날염)	
6	9/06	음악줄넘기 기본스텝 익히기 4	반데그라프 발전기, 볼타의 폭풍, 별자리 극장	가열 조리법 3 : 대치기	세계민요2	염색으로 표현하기(날염)	
7	9/11	음악줄넘기 기본스텝 익히기 5	비눗방울 과학 키드, 발표회, 소닉 익스플로러	가열 조리법 4 : 조리기	음악관련 직업알아보기	염색천으로 조각보만들기	
8	9/13	음악줄넘기 기본스텝 익히기 6	소형 마그데 반구, 신기한 진자, 삼차원 가상현실 거울	가열 조리법 5 : 굽기/볶기	우리나라의 대중음악1	염색천으로 조각보만들기	학부모 공개수업
9	9/18						추석연휴
10	9/20						추석연휴
9	9/25	음악줄넘기 기본스텝 익히기 7	전입체 자력선 데모, 웨이브 위즈, 자기부양팽이	가열 조리법 6 : 부치기	우리나라의 대중음악2	도자기공예 (생활소품 지점토 공예)	
10	9/27	음악줄넘기 기본스텝 익히기 8	포트폴리오 정리	가열 조리법 7 : 튀기기	우리나라의 대중음악3	도자기공예 (코일링으로 그릇만들기)	
11	10/02	**전일체험**	**전일체험**	**전일체험**	**전일체험**	**전일체험**	
12	10/04						

3
지정토론

주제 1 자유학기제의 수업 운영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1 :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 지정토론 2 : 나를 찾는 과정 – 수업

주제 2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 운영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3 : "자유학기제" 운영의 과제
- 지정토론 4 : 학부모가 바라본 '자유학기제' – 그 우려와 기대를 말하다

칼라간지

지정토론1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박 삼 철
단국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최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이 하나의 유행으로 퍼져가고 있다. 오늘 논의의 주제인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유학기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정책 제안을 한 당사자들도 "꿈"과 같은 이야기뿐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설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어떠한 연구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은 이래야 된다는 믿음에 의존하여 자유학기제라는 이상한 프로그램이 강요(?)되고 있다. 성과가 어떨지에 대한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2016년에는 전국의 학교로 확대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들 한다. 아이들에게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귀중한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이며, 아이들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토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일이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신비의 보물섬이 있다는 믿음에 의지한 채 보물을 찾아 항구를 떠나는 배를 보고 있는 심정과 같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문제에 접근하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도 이제는 그 배를 멈출 수 없는 것 같다. 걱정과 우려 속에 신비의 보물섬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본 토론자는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탐험 여행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호주의 IBPP(Innovation and Best Practice Project)에 소개된 중학생 대상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의 몇 가지 특징들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Ⅱ 호주의 전환학년(transition year) 프로그램 주요 특징[34)]

호주에서 21세기 초반에 수행되었던 IBPP(Innovation and Best Practice Project)란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혹은 일반 능력(generic ability)을 학생들에게 길러줄 수 있는 혁신적인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자 한 연방정부 수준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중등학교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개발, 적용한 프로그램이 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업 운영 방안들은 본 토론회의 주제인 자유학기제 운영 등과 관련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 호주 전환학년제 프로그램의 목표

IBPP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중요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들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왜냐하면 그 목표들은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미래의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학교 수업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BPP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환학년제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핵심역량 혹은 일반역량(general ability)을 길러줌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와줌
-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학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
- 학생들의 정체성, 소속감, 자아존중 의식 증진
-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 속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역량과 자신감을 발전시킴

2. 중학생을 위한 전환학년제 프로그램의 특성

- 하나의 팀으로 조직되어 함께 일하는 교사 팀 구축
- 서로 다른 학습 형태(style)를 지닌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 학생들에게 분명한 학습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
-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것

34) 박삼철(2013)의 일부 내용을 요약함

3. 중학생을 위한 전환학년제 수업 운영 전략

가. 수업 내용에 맞게 학생 집단 구성 유연화

호주 IBPP에 참여한 학교들이 보고한 학생 집단의 구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학년이 다른 학생들로 학습 집단을 구성하기(multi-aged grouping)
- 수업 집단 내에 다시 소집단(subgroup)을 구성하는 다층구조(two-tiers) 만들기
- 비슷한 학습 속도를 가진 학생들끼리 수업 집단 구성하기
-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수업 집단 구성하기
- 수업 내용에 따라 학생 집단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학생 집단 구성의 유연화 개념은 본질적으로 융합적 학습과제 제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의 학습 참여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공될 학습 경험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여 수업 집단의 규모와 성격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이다.

나. 협력수업 교사 팀 구성하기

교사를 팀으로 구성하여 협력수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은 마치 전문의들이 함께 협의하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최상의 처치 방안을 찾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제공될 교육과정이 융합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변화되면 교사 배치의 고정된 틀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 IBPP에 참여한 일부 학교에서는 2~4명의 소규모 교사 팀을 구축하여 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팀으로 협업하는 수업운영 방식은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교사중심 수업운영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이 중학교의 교과중심 수업운영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생소함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사 팀에 의한 협력수업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2가지 수업운영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첫째,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과제 중심 혹은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
- 둘째, 블록시간표로의 조정

다. 컨소시엄 구축하여 학교 범위 넓히기

학교 컨소시엄은 동일한 학교급 간, 서로 다른 학교급 간, 혹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기업 등과의 공동 연합체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에 활용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위학교는 필연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와 유

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된다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학생 지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학교 컨소시엄은 특별히 추가적인 재정 투자 없이도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입학생이 졸업한 초등학교와 함께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도 한다.

라. 학생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하기

호주 IBPP에 참여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기계적으로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IBPP에 참여한 일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징은 개별 학생의 요구에 교육과정과 수업의 목표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방식도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명확한 수업 목표를 세우고 학습활동 계획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여 수업 내용과 학습활동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법은 보다 조장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점이 있다.

마. 학교 이외의 장소로 수업 장소를 확대하기(off-site learning)

호주 IBPP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이외의 수업 장소'란 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의 다양한 장소를 말하며, 특정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학습의 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학, 기업체, 공장이나 공공단체, 비즈니스 사무실, 시장 등 다양한 장소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소풍이나 체험학습,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일부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 밖의 장소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인 교과 수업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주 IBPP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학습하기' 방안은 현재의 일부 학교 밖 프로그램을 뛰어 넘어 수업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소를 수업 장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장소를 학습 장소로 이용하는 방식은 추가적 공간을 확보하기, 기타 기관의 시설 이용하기 등이 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나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전통적인 교실 수업 방식은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학습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 참여를 높여 긍정적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바. 수업전략의 혁신: ICT 활용과 협동학습

과제학습 상황은 물론 일반적인 교실 수업 상황에서도 수업 집단을 소집단으로 재조직하는

소집단 수업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소집단 수업 모델에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소집단 협력학습을 하면서 점차 서로 친숙하게 되고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에 호주에서 활용되고 있는 ICT 활용 수업에는 연결 프로그램(Connections program)이 있다. 연결 프로그램이란 인터넷 혹은 원격 화상회의 장비를 활용하여 학교와 학교를 연결시키거나 혹은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상황과 교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생생한 현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ICT를 수업에 활용하는 수업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교 등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보다 생생한 학습경험을 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장비를 활용하여 세계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 연결하여 함께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 혹은 서로 다른 지역 즉, 도시와 농어촌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거나 상호 교류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학교 간에 서로 강점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차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Ⅲ 나가며

지금 우리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교육 실험을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도 확실하지 않다. 이제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분명한 것은 2016년경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될 것이며, 전통적인 교사중심과 교과중심의 교실수업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일 뿐이다(김진숙, 2013).

형태는 다를지라도 학교교육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는 교사와 학생은 있는데 교육내용 즉, 가르칠 내용이 안개 속에 감추어져 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들의 우려와 혼란이 나타나는 것일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 우리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개념: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보도자료, 2013.05.29.)

이 개념 속에는 토론과 실습, 체험활동 등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정작 중요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리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다양한 체험활동의 한 사례로 예시된 진로 탐색활동이 지나치게 자유학기제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논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대체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학생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육과정 논의가 시급히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분명한 목표와 성격, 교육내용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호주의 IBPP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수업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혁신적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착과 합의가 전제되지 못한다면 자유학기제는 또 하나의 교육 슬로건으로, 5년 후에 사라져 버릴 운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김진숙 (2013). 아일랜드 TY와 한국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비교. 2013 한국비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3-92

박삼철 (2012a). 한국과 호주의 통합학교 운영 사례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2(2), 107-128

박삼철 (2013). 호주의 IBP 프로젝트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자유학기제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CP 2013-01-4)

최상덕(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방향과 실행방안. 교육개발, 40(1), 66-71

DEST (2001). School Innovation: Pathway to the Knowledge society

지정토론2

나를 찾는 과정 – 수업

온 혜 현
화도진중학교 교사

I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

주제발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안”에서 선생님께서 오전 공통 교과과정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으로 협력학습(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프로젝트학습 방법을 제안하셨고 오후 자율 과정으로 학생 수요 기반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 공감적 대화, 독서교육, 미래교육, 리더십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학습 방법에 대해 공감하고 이런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습방법의 개선이야말로 안정적인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과 함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협력 프로젝트학습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신 교과 간 융합 수업,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이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찾기에는 교과 간 협의도 오래 걸리고 교사 입장으로서는 그 방법도 현실화하기 어렵습니다. 영종중학교에서 그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재의 교수요목에서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내용을 선정하여 자료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해야 실제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할 수 구체적인 교사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평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취수준 확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교사 입장에서 성취수준 확인과 평가 방법의 개선을 연관시키기 어렵습니다. 성취수준을 학교별로 재구성이 필요한지, 기존의 성취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현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실시하는 일회성의 진로체험도 예산 및 지역사회의 협조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언급하겠지만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에서는 직업체험이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직업체험은 며칠 내로 국한되어 있는데 의미있는 직업체험이 되기 위한 기간 설정 및 직업체험 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Ⅱ 나를 찾는 과정으로서의 수업 들여다보기

1. 상황학습

상황학습이란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실제 맥락 속에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식은 그 지식이 적용될 상황 속에서 가르칠 때 유의미하고 가치를 지닌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Duffy & Jonassen , 1991). 상황학습 이론은 수업을 실제 생활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상황학습 이론은 학생들의 지식과 기능을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맥락 안에서 학습할 때 학습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이론은 지식을 개인과 환경 간의 독특한 관계의 역동적 산물로 간주한다. 상황학습 이론가들은 실생활의 맥락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요구에 연결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식을 보다 유의미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상황학습에서는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면 대 면(face- t o- face)의 인간 상호작용이 최대한의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면 대 면 패러다임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되어야(Suchman , 1987)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면 대 면의 커뮤니케이션은 특정한 학습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연결시키는 수단이 되며 서로 간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2. 실천공동체와 NTTP(New Teachers Training Program) 교사연수

만남 - 교실의 벽을 넘은 소중한 만남으로
공감 -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유대 - 격려하고 지지하는 인간적인 유대를 만들어
배움 -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아이사랑 -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교사공동체의 모토가 된 위의 글은 '교사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고민하던 교사로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천공동체(CoP)'는 동일한 일, 주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이다, 특정 업무나, 주제, 문제를 중심에 두고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를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라고 한다. 즉 '실천공동체'는 일을 잘하기 위하여 일과 관련된 학습을 하는 학습 공동체인 것이다. '교사 실천공동체'에서는 학습활동이 '실천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핵심기제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아직 명료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참여',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을 전제로 하며,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사 교육 분야에서도 실천공동체의 개념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도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교사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성 개발에서는 교사의 학습보다는 숙련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수와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 학습관과 지식기반사회의 영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서도 학습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사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이 강조되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교사활동 상의 실천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아가 현장의 문제들을 상호협력을 통하여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실천공동체적 수준의 모임까지 다양한 형태와 발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 실천공동체 연수 중 하나의 방법으로 NPPT(New Teachers Training Program)가 있다. NPPT는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및 학생상담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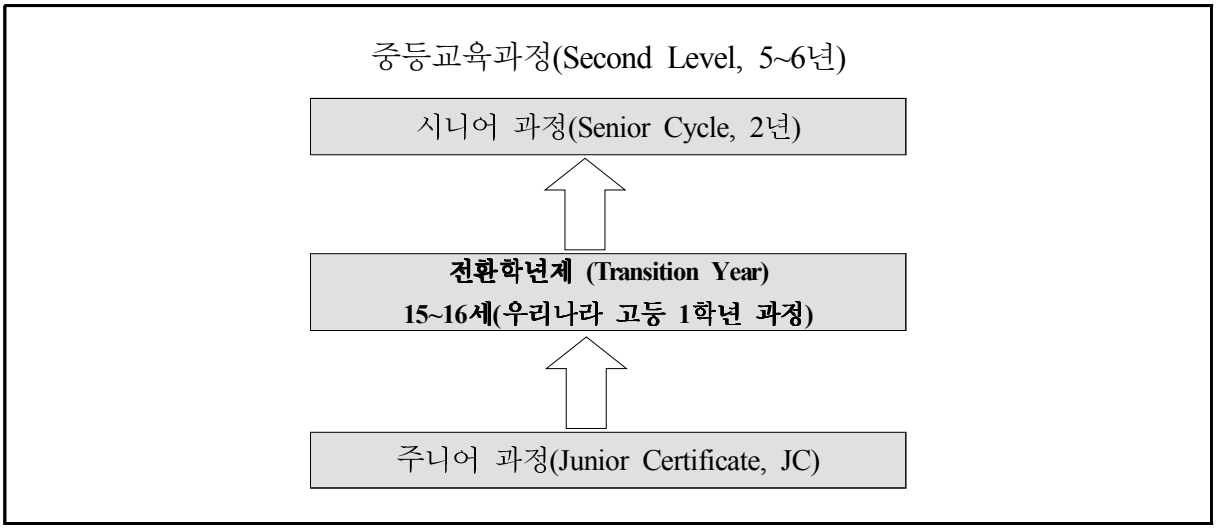
전문가 집단인 교사들에게 지속적 성장 동력인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 학습자 성장으로 교직 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 현장적합성 강화 ▲ 교직 생애단계별 맞춤형 연수 ▲ 교직사회의 집합적 창의성 신장에 역점을 두고 설계하였다. 이러한 연수에서 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능력, 요구, 관심 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연수받은 내용을 학교현장에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실천공동체 연수의 일원으로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수업혁신 기획 및 연구회도 운영하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 구성을 독려한다.

Ⅲ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Y system)에서 길 찾기

1. 전환학년제의 개념

처음 전환학년제의 도입은 당시 아일랜드의 학생들이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느끼는 성적에 대한 심한 부담감 때문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는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전환학년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인성적 발달과 지역사회 봉사 등을 경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1년 동안 학업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발달을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전환학년제는 전통적인 교과교육(traditional academic education)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다양한 역량(competencies) 및 능력(skills)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학년제(TY) 학제



전환학년제 평가 방법

사정 (Assessment)	•종합평가 (summative assessment) •쓰기·실행·구두·듣기평가 (written, practical, oral and aural assessment) •직업체험 보고서 (report of work experience) •프로젝트(projects) •포트폴리오·전시회 (portfolios and exhibitions of work) •개인성장 보고서 (pupil diary/Log book recording personal progress) •기술과 역량 획득 기록 (records of skills and competencies attained)	•내부 평가 (학교 관리자, 학생, 학부모) •외부 평가 (직무제공자, 지역공동체 등)	**평가 (Evaluation)**

2. 전환학년제 제도에서의 수업

가. 전환학년제 수업 주제

1. 전통교과 (Linear Subject) 수학, 과학, 언어와 같은 학문 교과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함	2. 철학과 논리 (Philosophy and Logic)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소개하여야 함	**3. 학생과 교사의 관계 (Students-teacher relations)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역할에서 더 확장되어야 함**
4. 사회적 기술 (Social Skills) 학생들로 하여금 공적인 자리에서의 의견 표명, 행동 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함	5. 예술 및 인문학 (Arts and Humanities) 학문적 교과를 통해 생긴 지적 편견을 음악, 예술, 시, 문화 연구를 통해 상쇄하여야 함	6. 지역사회 서비스 (Community service) 학생들로 하여금 빈곤층, 약자, 노인 등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함
7. 직업세계로의 전환 (Transition to work)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취업, 직무 능력을 갖도록 하여 직업을 가진 성인으로서 준비될 수 있게 하여야 함	8. 새로운 교과 (New subjects)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미디어, 천문학 등의 새로운 교과를 소개하여야 함	**9.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는 학생(Non-academic students)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학교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함**

나. 전환학년제 수업을 경험한 학생의 사례발표

『제퍼슨 교수님과 인터뷰 중』

『중학교 3학년 중 유학 간 김○○ 학생과 인터뷰 중』

일산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6세 김○○학생은 입시위주의 암기식 수업에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고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일랜드로 유학을 가고 2012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전환학년제(TY)를 경험함. 김○○ 학생은 영어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유학을 가서 힘든 점이 많았지만 4주간 경험한 직업체험(영화사 사무보조-본인이 직접 체험에 대해 계획하고 외부 평가 받음), 1회성의 영국으로의 수학여행(field trip), 치즈를 만드는 작은 회사(mini company) 경영으로 본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함. 또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하나인 그룹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뮤지컬 발표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함. 본인은 현재 전환학년을 마치고 2학년 과정에서 대학 공부를 준비하고 있지만 1학년 때 경험했던 많은 체험학습들이 학과과목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함.

참 고 문 헌

직업능력개발원(2012).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Etienne Wenger.(2007). 실천공동체 CoP.학지사
사토 마나부(2009). 교육개혁을 디자인하다. 학이시습
사토 마나부(2009).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북코리아

지정토론3

“자유학기제”운영의 과제

배 은 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도입 - 기대 반, 우려 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제안되고 이로 인해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제 우리 사회는 교육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도 관심도 없는 듯하다. 개혁 피로증후군으로 인해 어떻게 해도 무슨 큰 변화가 있겠냐는 식의, 또 골치아프겠지 라는 식의 반응이 더 큰 것 같아 걱정도 많이 된다. 한 학기로 교육이 변하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자유학기제도’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이 틀에 박힌 교과수업과 시험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꿈을 키워보라는 학기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정말 ‘자유로운 공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도가 과연 중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에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 한 학기만 운영하고 다른 학기들은 ‘자유롭지 않은 공부’를 여전히 이어간다면, 그 한 학기에 학교 구성원들이 과연 얼마나 큰 신경을 쓸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얼마나 노력을 들일 것인가 하는 우려들도 ‘자유학기제’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려면, ‘자유학기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변화와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Ⅱ ‘자유학기 교육과정’운영으로 인한 변화와 기대

1. 수업의 변화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참으로 반가운 것은 자유학기제가 기본교과 수업의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주로 오전에 시행되는 기본교과 수업은 공통과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시행되는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에서는 핵심 성취기준 기반 수업으로, 블록타임을 활용한 융합·연계 수업, 코티칭과 코러닝의 활용, 실험과 실습, 프로젝트 학습, 체험학습, 문제해결학습, 토론 등의 다양한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인천의 시범학교는 인천시가 수업혁신을 위해 그동안 연수를 통해 알려왔던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프로젝트학습’방법을 활용하고 토론과 모둠협력학습, 문제해결학습, 교과통합학습 등의 방법을 교과와 수업내용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방법의 전환은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의 효과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고, 교사가 보다 밀착하여 학생의 학습을 보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생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고력, 협동력, 표현력, 기획력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업방법의 변화는 사실 새로운 개혁이기보다는 이미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교사 개인적으로나 최근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에서나 꾸준히 시도되었던 것이기에 별다르게 새로울 것도 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수업방법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중학교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 수업방법의 문제는 교사 개인의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전반적인 수용이 어려울지 모른다. 모든 학교교육의 개혁은 교사의 합의와 동조가 있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보다는 교사공동체의 자발적 개혁 의사를 유도해 내는 일이 더 급선무일 수도 있다. 결국은 이러한 변화를 모든 학교 현장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2. 체험활동의 다양화와 확대

자유학기제에서는 오후에 주로 자율과정이 전개되는데,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과정이란 이름으로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여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오전에 진행되는 기본교과에 들지 못한 예체능 교과수업은 자율과정에 편입되어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학생의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율과정 운영에도 역시 방법의 변화가 적용되는데, 학생의 참여와 체험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안하고 있는 어떤 모형을 적용하든,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프로그램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활동 영역에 따라 비율만 다를 뿐 모두 활용된다. 기존과 달리, 보다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과정은 좀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율과정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규모가 보다 소규모화 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학교들이 시도하는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개발, 인성교육프로그램, 진로탐색활동, 예체능 프로그램도 현재의 학급 규모로 운영하기보다는 보다 소규모로 운영되어야 그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여’와 ‘체험’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인 것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뿐 아니라 인적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부평동중학교와 영종중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3. 평가의 변화 –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 서술형 기술평가

‘자유학기제’의 도입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수업방법의 변화와 연계된 평가의 변화이다. 수업방법이 변화되고 교육과정 편성이 달라진 만큼 그 평가도 연계하여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변화된 수업방법에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역시 평가방법도 기존의 지필고사에 의한 서열화 평가가 아니라 교과내용과 수업방법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서술형 기술로 한다.

초등학교 이후로는 서술형 기술평가를 볼 수 없는데 중학교의 ‘자유학기’에 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성취수준 절대평가제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서술형 기술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잘 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초등학교와 달리 여러 학급을 수업해야 하는 중학교에서 서술형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이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른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

Ⅲ ‘자유학기 교육과정’운영의 문제점과 과제

영종중학교와 부평동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운영모형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여러 가지 우려가 스쳐지나갔다. 과연 이것을 진정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학교여건에서 가능할까 라는 우려가 저절로 생겼다. 수업방법이 변화한다고 학생의 학습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수업방법은 변했지만, 학생의 학습효과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변화한 수업방법이 제대로 학습효과를 내려면 수업의 여건도 바뀌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의 의욕과 관점도 바뀌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교사의 더욱 철저한 수업준비와 관심이 필요하고, 학습효과를 확인하기까지의 시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학기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제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학교 쪽의 준비와 학생・학부모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자율과정 운영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려되는 부분의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프라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자율과정을 원활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자율과정의 운영은 자칫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다.

가. 물적 인프라

자율과정이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을 위한 학습의 장이 확보되고 재편되어야 한다. 이때 학습의 장은 학교 내의 장소일 수도 있고, 외부의 장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고정적인 학습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의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여도 자율활동의 선택활동 프로그램은 학급의 편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공간의 새로운 배분이 필요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의 일반교 학력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의 경우 다양한 교과동아리를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서 교내 학습공간의 부족으로 교사휴게실이 없어지고 방송실을 두 개의 공간으로 쪼개는 일이 많은 학교에서 벌어졌다. 따라서 자율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외부의 공간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배분과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필요한 자료, 기자재, 도구 등이 잘 갖추어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인적 인프라

시범학교의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이외에도 외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교내의 교사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부평동중학교처럼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외부공간과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학급단위가 아닌 보다 소규모 단위로 운영할 경우에는 교내 교사 수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 운영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이는 지역연계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자율활동 운영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 자율활동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교내의 인력만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을 위한 업무부담은 배가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그 교사는 자신의 수업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활동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 제도적 인프라

자율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물적, 인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서는 달라지는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범학교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알기 어렵지만, 정부의 제안에 따라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수업 내에 이루어지는 형성평가와 과제물, 프로젝트 보고서, 활동관찰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서술형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자율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서술형평가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중학교의 경우 한 교과교사가 적게는 4학급, 많게는 10학급 이상을 담당할 수도 있다. 자율활동의 경우에도 한 교사(외부강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게 된다. 여러 학급을 담당할 경우 그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과 지표를 활용하여 서술형평가를 하는 것이 진정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한 교사당 담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서술형 평가는 몇 가지 유형으로 간단히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 개인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술형 평가의 의의를 살리자면 평가 시스템의 세밀한 구축이 필요하며, 자율활동의 경우만이라도 소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투입을 늘려야 한다.

2. 교육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 활용

자율활동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원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범학교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진로과정과 선택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율활동은 지역사회를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때 그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이미 오래된 화두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이 대두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유학기'의 자율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요구하며, 진로체험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자율활동 프로그램은 학교 내 교사들의 힘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지역사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교사들만의 운영은 프로그램의 신선함과 새로움을 유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자율활동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를 돈독히 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함으로써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학기'와의 연계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이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 자유로운 탐구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게 하고 그에 맞추어 행복을 키워나가도록 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자유학기 프로그램에서는 진로교육이 강조된다. 문제는 '자유학기'는 한 학기이고 그 이전과 이후의 과정과의 연계이다. '자유학기'를 통해 '꿈과 끼'를 발견했다면 과연 그 이후의 과정, 그리고 고교에서 그 '꿈과 끼'를 과연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혜영 교감 선생님의 말씀처럼 수업혁신은 단지 자유학기 한 학기의 수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평가시스템의 개선 없이 한 학기만 서술형 평가를 운영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수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권리가 한 학기에만 충족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즉, '자유학기'는 '자유학기'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학기'는 그 이전으로도 그 이후로도 연계되어 우리 학교의 변혁의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

4. 각 학교 여건에 적합한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

인천의 시범학교는 2개교여서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 모형의 다양성을 보기는 어렵다. 실제 교육부가 제시한 여러 모형도 자율활동의 중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중점

활동 영역의 비율만 조금씩 다를 뿐 모든 활동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다양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왕 ‘자유학기제’가 주어지고 그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보다 각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교의 여건을 분석하고,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여건에 적절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문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자유학기’ 교육과정이 더욱 다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Ⅳ 교육혁신으로의 방향 전환

표혜영 교감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육계의 개혁은 여지껏 좋은 것을 개발하여 부가하기에만 신경 써 왔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 관찰하여 골라내 덜어내기에는 소홀하였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것도 내 것으로 구조화할 ‘여유’가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국제포럼에서 정병오 선생님이 주장하듯, 한국의 풀무학교 정신, 대안학교 흐름, 서울 하자센터의 실험, 최근의 혁신학교 흐름 등 한국의 자발적인 교육혁신 운동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잘 활용한다면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교육혁신의 흐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는 한 학기를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달라지고 나아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도 달라지기를 촉구하는 진정한 교육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수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시교육청이 그 선두에 있기를 바란다.

지정토론4

학부모가 바라본 ‘자유학기제’ - 그 우려와 기대를 말하다

이 상 연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지도위원, 부원여중 운영위원장

Ⅰ 들어가며

‘행복교육 실현!’

과연 이 행복은 누구를 위한 행복일까?

학생, 학부모를 위한 행복인가, 아니면 교사를 위한 행복인가?

물론 교육의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행복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바탕은 공급자인 교사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만으로도 교사들은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과도한 업무에 지쳐 있다. 거기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교사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작된 연구라 하더라도 그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과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온전히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교사상을 기대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자유학기제가 되길 바란다. 이에 교육의 수요자의 입장인 학부모로서 ‘공공의 행복’을 모색하며 그 우려와 기대를 조심스레 언급하고자 한다.

Ⅱ 공감하며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전국 42개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드디어 시작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핵

심인 교육정책의 일환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취지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하며 긍정의 시각으로 보는 바이다. 그 동안은 점수에 얽매어 학업을 강요하고 인성보다 성적을 우선시하여 학생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이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미래를 위한 꿈을 찾을 시간과 여유를 주지 못하고 교육의 본질마저 망각한 채로 '흥미도'와 '행복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지필고사 위주의 시험제도와 강의 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아닌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활동과 체험중심의 수업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중심에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이라는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교사의 의지와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탐색하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기회와 시간을 학교활동에서 제공한다는 '자유학기제'의 진정한 목적에 공감한다.

Ⅲ 우려되는 점, 그리고 제언들

1. 학교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 -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자유학기제를 자칫 그저 노는 학기라는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학습습관의 단절, 학력저하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에서 오는 혼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다양한 홍보와 연수를 통하여 막연한 의혹과 우려를 잠재우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여 공감대 형성으로 승화(昇華)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학기제 본연의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이 교사들 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학교 구성원 간의 이해와 협력 여부에 따라 각 학교단위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분위기 형성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이다.

2. 진로코디네이터 배치 – 정부의 인적 · 물적 지원 필요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단위학교의 '진로코디네이터' 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싶다. 간혹 학교장의 재량으로 추경예산을 책정하여 한 학기라도 진로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업무를 나누는 학교도 있다. 학생 수가 적은 단위학교일수록 한

교사 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6학년도 이전에 상주하는 진로코디네이터를 채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제 근무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학부모 진로교육기부단 결성 – 리더그룹과 파레토 법칙[35)]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현행보다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것이다. 각종 체험학습 활동 시 담임교사나 담당교사만으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인솔지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 리더들을 활용한 '학부모 진로 교육기부단'[36)]을 교육지원청과 학교단위로 구성하여 진로체험활동 시 인솔지도 업무에 도움을 주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직업인 초청강연 등 진로교육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역량을 높여 교육의 주체로서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학부모 리더 대상의 다양한 연수가 진행된 바, 학부모 리더 연수 이수자들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진로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진로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학교 내의 교육활동을 학교와 교사만의 권한으로 여기지 말고 학생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들이 리더그룹을 형성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파레토의 법칙의 20%가 되어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다른 80%의 노력을 이끌어내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맺으며

필자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여부를 감히 교육현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책신뢰도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학부모들의 대화에서 '5년소계(5年小計)' 혹은 '5년졸계(5年拙計)'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옛말을 정권이 바

35) 파레토 법칙- 결과물의 80%는 조직의 20%에 의해 생산된다는 경제법칙

36) 학부모 진로 교육기부단 -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중학교운영위원장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진로교육기부단'이 활동하고 있음. 구성원모두가 재능을 공개하고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해당과에 인력풀을 제출한 상태임. 시작은 미흡하나 자체적으로 결성되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함

뀌는 5년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풍자하여 탄생 된 신조어(新造語)이다.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옳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대중매체를 통해 오르내릴 때마다 이번 정책의 지속성은 언제까지일까? 혹여 내 아이가 실험실용 쥐처럼 새로운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학부모들은 흔들리고 고민하게 된다.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정책 또한 도입배경과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전면 시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곧 축소 운영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정책실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선행이 이번 정책의 성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를 꿈꾸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응원을 바란다.

이번 토론회 원고를 작성하면서 문득 올해 봄에 개봉되었던 '파파로티'라는 한 편의 영화가 생각났다.

재능은 있지만, 일찍이 주먹세계에 입문한 건달학생과 건강상의 이유로 성악가의 꿈을 포기했던 음악선생님을 통해 꿈을 꾸는 제자와 스승의 아름다운 동행(同行)과 인간미를 그려낸 영화였다.

중3이 된 큰 아이와 함께 보았던 이 영화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꿈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학생도 그렇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의 모습 때문이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선생님이 존재할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라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기대가 있다.

20년 후,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아이가 서른을 넘겼을 때쯤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자신의 미래에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정책에 긍정의 열정을 쏟아 부을 '학교'라는 울타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참 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활동요약(2012~2013)

정책기획관

교육감 지시사항('13.3.21)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이 단순한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여, 인천교육발전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2012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성과

※ 사업 성과 ※

- 인천교육발전 의제(어젠다) 중심 활동으로 현장공감 정책개발 및 설계
-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 인천 적용 아이디어 참고자료 제공으로 정책고객 만족도 제고
- 교육정책 홈페이지를 통한 현장공감 자료 제공으로 정책 홍보
- 주제탐방 연구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로 정책자문위원회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제 5기 교육정책자문위원 인천교육발전 7대 의제 >

- ✎ 학생과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 ✎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 학습활동'**
- ✎ 공감적 대화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의사소통 활성화'**
- ✎ 학교 독서문화 재구축을 위한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 ✎ 창의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
- ✎ 미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교육'**
-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 교육발전 의제 중심 활동으로 현장공감 정책개발 및 설계

○**인천교육발전 7대 의제(어젠다) 설계**로 '인천교육발전 토론회' 개최(152명 참석)하고 **학교지원 안내 실천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 실행력 제고

*교육정책설명회 시 참석자(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등 1,500여 명) 연수 및 초중고 발전의제 실천 매뉴얼 자료집 배부('13년 첫 실시), 특별기고 2회

※일반적인 토론회의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학교적용 실천 안내 자료집' 을 제작하여 현장 실천 노력 강화

○인천교육발전 어젠다(의제) 설정으로 향후 **정책자문위원회 사업의 중심 활동으로의 방향 설정[2년 단위 설계 및 실천]**('13년 첫 실시)

□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 참고 자료 제공으로 정책 고객 만족도 제고('13년 변화)

○**동향자료의 발굴 건수(7개 분과 3회차 230건 제공)**

*자료발굴뿐만 아니라 인천 적용 아이디어 제공까지 제공, 교육청 전 기관 확대

□ 교육정책 홈페이지를 통한 현장공감형 자료 제공으로 정책 홍보

○'함께 해요! 베스트 인천교육'
(학교교육 활동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 홍보 등 활성화 노력)

□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자문위원회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우수기관 주제탐방연수(7,8월)/좋은 학교박람회 탐방(9월)

*10월 성과팀 지식골든벨 인천적용 우수사례 제공 등 일반화 자료 배부

○전문성향상연수(6월), 평가환류회(12월) 등 전문성강화로 인천교육발전 우수인재양성

2013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추진 성과(10월말 기준)

＊ 사업추진 목표 ＊

- 인천교육발전 의제 학교 단위 실천 및 정책 반영 노력
- 국내·외 교육동향발굴을 인천적용아이디어 참고자료 제공으로 정책고객 만족도 제고
- 교육정책 홈페이지를 통한'현장공감'자료 제공으로 정책홍보 강화
- 자문위원 역할수행의 책무성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주제탐방연구'

[세부 사업 실천 노력]

□교육발전 의제 학교 단위 실천 및 정책 반영 노력

○발전의제 학교 단위 실천을 위한 우수계획서 공유 정책자문 실무위원 워크숍 개최(6.5)

- 실무위원 소속 32교, 33명 7개 교육발전의제 실천 보고서 작성방향 및 발표토론

○교육발전의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업무담당자 협의 정책제안, 6월)

1. 일반계고 육성 지원을 위한 '내 꿈 찾는 행복누리학교' 운영 프로그램 제공
2.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3. 인천 원도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안

→ 1,2 사항은 교육과정기획과 부분 반영 회신(2013.8.20.), 3번 사항 정책기획관 원도심 공모 사업 계획 기본 토대 반영

○인천교육발전토론회 개최(10.29) :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 2013 행복교육 학교 지원 7개 프로그램 안내 자료집 제작 보급 200부(책자제작, 홈피 탑재, e-Book 제작 포함, 추후 전자문서 게시)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정책고객 만족도 제고

○양질의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을 위한 사전검토 강화(정책자문 지도위원)

- 관련 사업 : [총 4회차 분과별 국내·외동향 발굴 및 인천적용 아이디어 참고 자료/전자문서 게시 제공 등(300건)] ☞ 실무위원 1인당 연 10건 안팎 동향 발굴로 인천 적용 정책 제안 참고 자료 제공

□교육정책 홈페이지를 통한 '현장공감' 자료 제공으로 정책 홍보 강화

○학교의 자발성을 지원하는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자료 구축함(연중)

○자문위원 활동 각종 성과물 탑재로 다양한 정책지원(연중)

- 관련 사업 : [교육정책 홈페이지 운영/관련 사업 활동 각종 성과물 탑재/학교지원 자료방 등]

□정책자문위원 역할 수행의 책무성, 전문성 강화로 자문위 활동 위상 제고

○전문성향상연수(6월), 우수기관 주제탐방연구로 학교현장과의 소통능력 강화(7,8월)

→ 7개 분과 84명, 21곳 방문, 탐방보고서 일반화 및 전자문서 게시공문 발송예정(11월)

[정책자문위원 교육발전의제 관련 연간 주요 활동]

* 상반기(1년 2012):교육발전의제(어젠다) 설계, 학교적용 매뉴얼자료 개발
* 하반기(1년 2013):발전의제 학교실천, 정책제안, 행복교육 지원 안내자료집 제작

[참조]

차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2014-2015)

인천교육발전 의제(어젠다) 설계 및 추진 배경(검토안)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학교 운영 지원

- 잘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는 행복한 교실 -

대주제안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학교 운영 지원

- 잘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는 행복한 교실 -

의제	선정 의제	소주제	추진 배경
제1분과 창의 인성	**원도심 교육 여건 개선**	원도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누리 학교 운영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계층 이동의 사다리' 만들기로 교육의 형평성 확보 · 원도심의 근본적인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해야 함 · 먼저 원도심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우수 교원 배치 등이 뒤따라야 효과성이 큼 · 자율형 공립고 지정으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검토 · 원도심의 교육적 성공이 중도 탈락을 줄이고, 기초학력 미달 감소 등 인천교육력을 제고시켜 전국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음 · 대규모의 교육기회 비용 및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육희망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 있음. - 의제개발 방향 : 새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과 연계 지음, 개발된 5기 정책의제를 적극 활용하여 원도심 프로그램으로 지원 모색 - 교육정책네트워크 개발자료 적극 활용 :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좋은 학교 특성/교육에서 형평성을 위한 10가지 방도 등> <교육과정중심형/학교문화중심형 혼합>

의제	선정 의제	소주제	추진 배경
제2분과 교육 과정	**핵심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운영**	학교 자율역량 (여건)을 뒷받침하는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학교 적용 매뉴얼 개발 및 실천)	· 21C 미래시대 학교교육, 직업세계,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 ①창의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의사소통능력, ④정보처리능력, ⑤대인관계능력, ⑥자기관리능력, ⑦기초학습능력, ⑧시민의식, ⑨범지구적 소양, ⑩진로개발능력 ⑪문화예술감수성 ⑫생태감수성 등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 학교가 지역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해결형, 교육지표 달성형의 교육과정 모델 개발의 필요성 · 방과후학교나 현장체험학습 중심의 창체 운영이 집중되면 본 수업이 부실할 수 있음,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실 수업 안에서 창체적 요소 반영함(프로젝트 학습) - 의제개발 방향 : 자율학교나 공모제 학교, 정책추진연구학교에서의 운영 방안 모색, 경기 서정초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 사례 참고<교육과정중심형>
제3분과 학력 제고	**수업을 통한 학교 변화**	교사 ·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실천	· 교사의 자발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변화의 실천 주체로서 교사의 전문적 성장 유도 필요 · 핵심역량을 발휘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교사학습동아리) 필요 ·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내 연수 정착(수업협의회 중시), 질 높은 연수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소통문화 형성 · 학교도서관을 북카페로 만들어 학생 교사의 소통방 형성 필요 · 교사가 전문직이라는 자존감 회복에서 출발 필요(교사의 회복적 자존감 - 자기 효능감 극대화) · 교실수업 공개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교사 전문성함양 · 학습자의 배움 과정을 중시하는 장학 패러다임 변화 · 서로의 수업실천을 공개하고 비평하며 함께 창조하는 관계 형성 · 배움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학생 만들기, 수업과 생활지도 결합 - 의제개발 방향 : 배움의 공동체 수업 이해와 실천, 교수학습 중심문화 구축, 실천사례 공유로 전문성 제고, 프로젝트 학습, 수업코칭, 학습평가 변화 모색(학업성취목표제 : 수행형/서술형평가) <학교문화중심형 혼합>

의제	선정 의제	소주제	추진 배경
제4분과 생활 지도	**학생의 행복한 학교 생활 문화 만들기**	행복한 학생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적용 프로그램 구안 및 실천	·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 처벌이 아닌 회복적 생활지도 모색 · 가족, 학교 인성교육 확대와 대화의 장 마련 · 학생들의 성공체험, 칭찬문화, 진로진학 연계 강화 · 자존감, 배려, 존중 교육 프로그램 구안 · 수업과 생활지도와의 결합(성남 보평중, 용인 흥덕고 사례) - 의제개발 방향 : 새정부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 적극 활용 필요, 학교소통문화(공감적, 회복적 생활지도, 학생자치문화(회의, 축제 등) 활성화, 상담활동, 돌봄과 치유 프로그램 구축, 부적응 방지 학생 복지 프로그램(학교 내 대안학교 프로그램 개설) 등 <학교문화중심형>
제5분과 교원 전문성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착근 방안	·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유도 · 안정적 착근을 위한 여론 주도 집단 형성의 필요성 ·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성 ·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구안 필요성(특히 진로영역) · 자발적인 교사 실천 역량 강화 유도 - 의제개발 방향 : 핵심역량중심교육과정 운영과 연결, 연구학교, 교육개발원 자료 활용, 2013 인천해외테마연구팀 활용,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5기 인천교육발전의제 7개 프로그램 활용), 수업 및 평가방법의 변화가 성공과 직결됨, 관 주도보다는 단위학교 책임경영 방식 운영 설계, 학교여건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자유학기제 클러스터 운영 등 <교육과정중심형/학교문화중심형 혼합>
제6분과 교육 행정	**업무재구조화로 효율적인 학교운영**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가 교원업무 정상화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구축에 있으나 교원의 적정(최소) 수준의 행정업무는 필요함 · 학교 행정업무사 확충이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직결되므로 종합적인 접근 필요 ·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감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접근 필요

의제	선정 의제	소주제	추진 배경
제6분과 교육 행정	**업무재구조화로 효율적인 학교운영**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 관리자나 행정실의 혁신적 마인드 필요 · 다양한 행사 또한 교과 교육과정에서 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창체 활동, 방과후 활동 또한 적정 수준에서 부여되어야 함 · 행정업무와 교무업무 구분 정리 필요, 업무관리시스템과 중복되는 장부별도 출력 지양, 비효율적 관행적 학교 업무 간소화 및 과다 의전행사 지양 · 학년 중심 학교 운영[학년에 대폭 권한 이양 - 위임 전결 확대, 학년군 학교제(small school)] · 교장실, 교무실(교육행정), 행정실(일반행정)을 통합한 교육지원실 일원화 방안 모색 - 의제개발 방향 : 새 정부의 교원행정 업무경감 정책 적극 활용, 교무보조인력 확보 및 활용 방안, 인천 산곡초, 경기도 사례 적극 활용 <학교문화중심형>
제7분과 평생 교육	**소통과 참여의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문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지원으로 행복교육 실현 및 학교교육활동의 이해와 업무경감 모색 · 지역의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 방과후교육활동 연계하기(학생들의 선택권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 · 학부모 교육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 소통문화 제고 · 학부모를 코디네이터로 활용하여 참여 기회 제공(진로, 특기적성, 모니터 요원으로 의견수렴 창구 등)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과 실천의 봉사활동 - 의제개발 방향 : 텃밭 공동체, 학부모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부모), 아버지교육, 지역사회 협력 및 지원, 즐거운 방과후학교<거버넌스 협력 방안 모색>, 교육정책네트워크 현장 개선 과제 학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활용<학교문화중심형>

부 록

❑ 교육정책자문위원 분과별 명단(7개 분과 총57명)

인천교육 정책자문위원(지도위원)

연번	분 과	소속 · 직	성 명	비 고
1	창의인성 (1분과)	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영갑	
2		인하대 교수	김영순	
3		인천대 교수	안효진	
4		인천남중 학운위 부위원장	김형용	
5	교육과정 (2분과)	인천대 교수	김복영	
6		경인교대 교수	권난주	
7		고잔유치원	유애자	
8	학력제고 (3분과)	경인교대 교수	조동섭	
9		삼량고 교장	장기숙	
10		인천시장 교육특보	김월룡	
11	생활지도 (4분과)	신흥중학교 교장	김태용	
12		전 학부모 모니터 회장	권흥원	
13		계수중학교 학운위 위원장	김인환	
14	교원 전문성 (5분과)	전 청량중학교 교장	문길모	
15		전 연화초등학교 교장	김영식	
16		월간 사람과 사람들 발행인	김순겸	
17	평생교육 (6분과)	인천연일학교 교장	강병훈	
18		월드비전 인천지부장	김민숙	
19		부원여중 학운위 위원장	이상연	
20	교육행정 (7분과)	인천여고 교장	이영숙	
21		연합뉴스 기자	김창선	
22		불로중 운영위원장	김용옥	

제5기 인천교육 정책자문위원(실무위원)

연번	분과	소속	성명	전체역할	분과역할	비고
1	창의 인성	인천인혜학교	김정인		서기	
2		인천남부초등학교	김경애	초등부회장	분임장	
3		인천조동초등학교	백현아		총무	
4		청학공업고등학교	천세권	전체회장	홈피	
5		인천공항고등학교	김경심		어젠다	
6	교육 과정	인천가좌초등학교	강도현		어젠다	
7		인천가현초등학교	신보현		서기	
8		석남중학교	이영순		홈피	
9		시교육청교육과정기획과	김정수		총무	
10		인천예일고등학교	진근영		분임장	
11	학력 제고	인천왕길초등학교	김지희		홈피	
12		인천검단초등학교	안병천		총무	
13		송천고등학교	권봉희		분임장	
14		청라고등학교	이수진		서기	
15		연수여자고등학교	안윤희	중등부회장	어젠다	
16	생활 지도	인천마장초등학교	정은선		총무	
17		강화삼성초등학교	신현태		어젠다	
18		신흥중학교	장정호		홈피	
19		해밀학교	이성숙		서기	
20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조명곤		분임장	
21	교원 전문성	고잔초 병설유치원	김진		홈피	
22		인천목향초등학교	윤효진		분임장	
23		작전중학교	최영숙		총무	
24		인천예술고등학교	이대식		어젠다	
25		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정소영		서기	
26	평생 교육	인천신대초등학교	박광렬		분임장	
27		인천봉화초등학교	박나현		서기	
28		인천대정초등학교	윤홍표	홈피관리	어젠다	
29		계산여자중학교	김용구		홈피	
30		서창중학교	유명선		총무	
31	교육 행정	인천연일학교	정영남		총무	
32		인천굴포초등학교	강미선		분임장	
33		송현초등학교	윤정열	전체총무	서기	
34		연수고등학교	유종섭		홈피	
35		인천공항고등학교	전성곤		어젠다	

• 기　　획 | 정　책　기　획　관　　송영기
정책기획담당사무관　　김영일
정책기획관 장학사　　오헌주

• 편집위원 | 인천대정초등학교 교사　　윤홍표
인천목향초등학교 교사　　윤효진
인천공항고등학교 교사　　김경심
인천공항고등학교 교사　　전성곤
인천송천고등학교 교사　　권봉희

현장이 공감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2013 인천교육발전토론회

-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발 행 일 | 2013년 10월 29일
• 발 행 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 발 행 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 발간번호 | 인천교육-2013-0121